

기본연구과제 2002-02

충남의 시·군별 성장잠재력 분석 및 특성화 방안

한 무 호

발 간 사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세계는 정치적인 이념대립이 종식되고,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북한의 개방화 시도 등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지역화 추세 속에 변화의 격동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경제환경의 변화는 지역경제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기초단위로서 자리매김과 동시에 세계의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발전은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상공인, 지역민 등 지역경제주체의 자발적·창조적 노력에 의존하였다기보다 중앙의 거점지역개발에 따른 확산효과나 일시적 지원에 의지해왔다. 그결과 중앙의 적극적 개입이 크게 제한을 받는 지방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체들의 창조적 노력 없이는 현재와 같은 불균형발전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이제 세계는 전지구적 경쟁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방마다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당해 지역사회의 가치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려는 지방의 자립노력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성숙함에 따라 지역단위의 개발정책이 강화되고, 지역중심의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수도권의 산업기능 수용의 최적 대안지로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서북부지역과 대전 주변지역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쇠퇴하는 지역내 불균형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발전잠재력은 지역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근거이므로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당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 육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시군별 성장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명하여 시군에 적합한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충남 전체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준 한무호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직)

김 대 길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2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2
 제2장 지역 경제성장의 전개과정	4
제1절 이론적 고찰	4
1.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4
2.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5
제2절 지역 경제성장의 선행연구 검토	11
1. 1970년대	11
2. 1980년대	11
3. 1990년대	12
4. 지역경제성장의 메카니즘	14
 제3장 충남의 지역경제 현황	15
제1절 인구현황	15
1. 인구규모	15
2. 연령별 인구	16
3. 인구이동	18
제2절 지역경제	21
1. 지역내 총생산	21
2. 산업구조	22
3. 인적자원	29
제3절 사회간접시설	31
1. 산업단지	31
2. 교통·물류시설	32

제4절 관광자원	37
1. 자연관광자원	37
2. 역사문화관광자원	37
제4장 지역의 유형화와 경제성장잠재력 분석	39
제1절 지역의 유형화	39
1. 유형화 방법	39
2. 분야별 유형화	40
3. 지역사회 유형화	48
4. 정주생활권	50
5. 삶의 질(낙후도지수)	52
제2절 지역별 경제성장잠재력 분석	56
1. 지역 경제성장잠재력 분석방법	56
2. 산업구조의 다양성 및 특화산업	56
3. 충남 시·군의 변이할당분석	64
제5장 충남 시·군별 지역경제정책 및 특성화방안	86
제1절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86
1.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중요성 부각	86
2. 정보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86
3.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87
4. 동북아경제권 형성	87
5. 고속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88
제2절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90
1. 천안시	90
2. 공주시	92
3. 보령시	94
4. 아산시	96
5. 서산시	98
6. 논산시	99

7. 금산군	101
8. 연기군	103
9. 부여군	105
10. 서천군	106
11. 청양군	108
12. 홍성군	110
13. 예산군	111
14. 태안군	113
15. 당진군	11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20
【부록】	123

<표차례>

<표2-1>	지역개발 패러다임 및 국토정책·계획의 변천	10
<표2-2>	국내의 연구동향	13
<표3-1>	충남의 인구	15
<표3-2>	지역별 인구분포	16
<표3-3>	충남 연령별 인구의 변화추이	17
<표3-4>	2000년 인구이동	18
<표3-5>	충남지역 시·군간 인구이동	20
<표3-6>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21
<표3-7>	충남의 산업구조	22
<표3-8>	충남의 농가현황	23
<표3-9>	충남의 농가인구 구성비	24
<표3-10>	충남의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25
<표3-11>	시·군별 광공업체수	26
<표3-12>	충남의 서비스업구조	27
<표3-13>	역외유출비율 추이(금융기관 전체)	28
<표3-14>	학교별 재학생 비중(2000)	29
<표3-15>	지역별 연구개발 활동현황	30
<표3-16>	국가산업단지 현황	31
<표3-17>	시·군별 산업단지 분포 현황	32
<표3-18>	시·도별 도로현황(1999. 12. 31. 기준)	33
<표3-19>	철도시설 현황	35
<표3-20>	항만시설 현황	35
<표3-21>	자연관광자원 현황	38
<표3-22>	전통마을 현황	38
<표4-1>	지역유형화 기준	40
<표4-2>	인구부문의 유형	41
<표4-3>	충남의 지역별 인구변화	42
<표4-4>	지역별 교육정도별 유형	43
<표4-5>	충남 지역별 대졸이상 인구구성비 변화	43
<표4-6>	광공업종사자 유형화	44

<표4-7> 재정규모의 유형화	45
<표4-8> 충남의 시·군별 재정자립도(2001)	46
<표4-9>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01)	46
<표4-10> 면적당 도로연장 유형화	47
<표4-11> 읍·면 단위 농촌지역사회 유형별 분포	49
<표4-12> 지역생활권	51
<표4-13> 낙후도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53
<표4-14> 낙후도지수에 의한 지역유형화	54
<표4-15> 충청남도 지역별 낙후도	55
<표4-16> 시도 산업별 다양화지수	59
<표4-17> 시도별 산업특화계수(2000)	59
<표4-18> 산업분류표	60
<표4-19> 충남 시·군별 산업의 다양화 지수	61
<표4-20> 충남 시·군 산업별 특화계수	61
<표4-21> 시·군 산업분류표	62
<표4-22> 시·군 제조업 다양화 지수	63
<표4-23> 시·군별 제조업 특화계수(2000)	63
<표4-24> 제조업 업종분류표	64
<표4-25> 산업별 유형	66
<표4-26> 변이할당 분석결과	67
<표4-27> 전산업 변이할당분석	68
<표4-28>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69
<표4-29> 산업 및 제조업 분류표	69
<표4-30> 천안시의 산업유형	71
<표4-31> 공주시의 산업유형	72
<표4-32> 보령시 산업유형	73
<표4-33> 아산시 산업유형	74
<표4-34> 서산시 산업유형	75
<표4-35> 논산시 산업유형	76
<표4-36> 금산군 산업유형	77
<표4-37> 연기군 산업유형	78

<표4-38> 부여군 산업유형	79
<표4-39> 서천군 산업유형	80
<표4-40> 청양군 산업유형	81
<표4-41> 홍성군 산업유형	82
<표4-42> 예산군 산업유형	83
<표4-43> 태안군 산업유형	84
<표4-44> 당진군 산업유형	85
<표5-1>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효과	89
<표5-2> 천안시 지가변동률	91

<그림 차례>

[그림1-1] 연구흐름도	3
[그림2-1] 지역불균형성장 메카니즘	14
[그림3-1] 지역별 자금역외유출비율	28
[그림3-2] 도로현황	34
[그림3-3] 충남의 관광객수 변화추이(1990~2000)	38
[그림4-1] 충청남도 농촌지역사회 유형 구분도	49
[그림4-2] 생활권	50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목적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라는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WTO가입 등 외형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개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IMF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고, 공간적으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초일극중심의 국토불균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펼쳐왔으나 국토의 불균형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MF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설정하면서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과 상반된 정책들이 시책화 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에는 자원의 방기와 사회적 정체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지가양등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양자 모두에 비효율을 강요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정책의 실패는 시장실패와 정책의 실패에 의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도시 육성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인구이동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규제나 설득에 의해서 인구분산을 성취하기는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은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자체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피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의 성장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사회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충남 내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파악하여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여 자족적인 지역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15개 시·군의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잠재력 분석을 위해 전국의 시·군과 비교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대전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이후인 1990년과 2000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충청남도의 지역별 성장잠재력과 특성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을 고찰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부문별 분포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둘째, 전국과 비교하여 인구, 경제, 사회간접자본 등 각 분야별 충청남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시·군별 분야별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각종 지역 유형화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분야별, 자연·지리적 여건, 정주생활권, 삶의 질 등을 기준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야별로 공간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증가율을 이용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정태적인 분석과 동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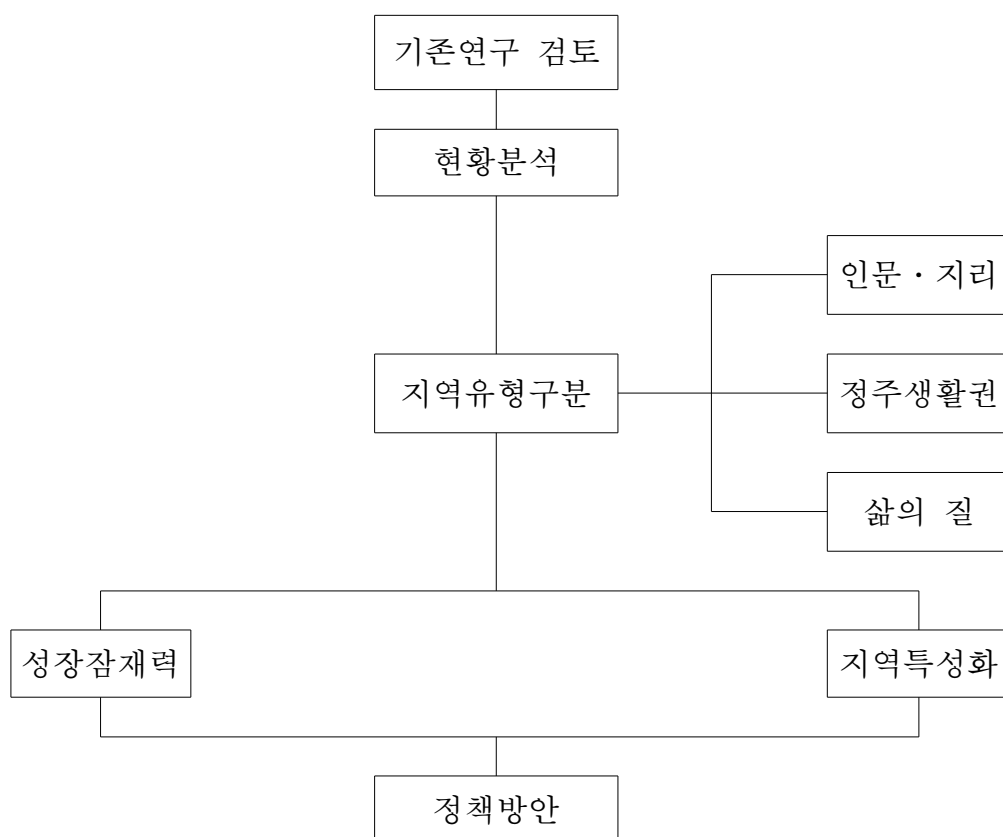
생활권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국의 통학·통근자료를 분석한다. 지역별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들을 유형화한다.

종합적인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낙후지역 선정에 위

해 발표한 8개의 지표의 자료를 수집 표준화하여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사용 AHP 분석기법을 통해 종합점수화 한다.

끝으로 위의 방법들에 의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성장잠재력을 분석하고, 또한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역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을 검토하고, 동시에 대내외 여건변화를 전망한 다음 위의 분석결과와 종합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1] 연구흐름도



제2장 지역 경제성장의 전개과정

제1절 이론적 고찰

1.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패러다임의 개념

패러다임(paradigm)이란 한 학문분야에 있어서 접근방법이나 견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분야를 바로 보는 세계관을 마련해 주고, 문제설정과 해답의 방향에 대한 일관성을 갖게 해주는 견해를 말한다¹⁾.

토마스 쿤은 1960년 후기에 패러다임의 의미를 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과학자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믿음, 가치, 기술 등의 구성체를 지칭하며, 다른 하나는 이 같은 구성체 안에 있는 한 가지 종류의 요소로서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이나 범례로 사용되어 정상과학²⁾에 남아있는 수수께끼 풀이³⁾를 하는 근거로 보았다.

패러다임을 이같이 규정할 때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은 지역개발의 이념적 지향성, 이론적 체계, 정책유형 등을 전반적으로 관류하는 공통적인 지적체계라 할 수 있다.

1)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박영사, 1976.

2) 정상과학이란 “어떤 특정한 과학자 집단이 연구사업이 기초로 인정하고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과거의 과학적 업적에 확고히 근거한 연구”를 의미한다. 정상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연구활동으로 앞선 과학자들의 문제해결의 방식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작업이다.

3) 수수께끼는 그 해결과정에서 독창력과 기술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패러다임의 규칙이나 기존의 개념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패러다임의 규칙을 잘 이용하면 수수께끼는 해결될 수 있다. 쿤은 패러다임의 존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수께끼풀이는 패러다임을 다듬고 분류하는 작업으로서 사실수집, 기구사용, 상수결정, 이론의 정식화가 있다. 정상과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주어진 패러다임 내에서 자연세계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위해 의미가 있는 사실들의 탐구.
2. 패러다임에 속하는 기본 이론들로부터의 예측과 이러한 사실들과의 비교 및 설명
3. 패러다임의 기본 이론들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연구가 그것이다. 쿤은 이들의 과학활동을 수수께끼풀이와 같다고 하였다

2)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변천

지역개발분야도 다른 사회과학분야처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논점사항들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개발의 개념과 이론들이 한계에 부딪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⁴⁾.

개발이론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해온 성장모델과 재분배모델의 구조적 틀 속에서는 국가적 능률성과 지역적 형평성의 상쇄효과가 지역정책의 관건이었다(John Friedman, 1960, pp.45-53; William Alonso, 1968, pp.1-12; N.Hansen. B. Higgins and DJ. Savoie, 1990. pp.3-4). 최근에는 지역개발이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이동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범세계주의와 지방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대응력·잠재적 지역자원의 활용이 당면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상향식 및 내발적 개발이론과 더불어 이른바 지방경영, 신기술과 유연적 생산체제 등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 기존의 지역개발이론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개발의 환경변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에 따른 공간이용 패턴의 변화, 지방자치와 같은 지역개발 제도적 상황의 변화, 세계화에 따른 지역공간의 맥락변화,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인식 및 이론체계의 등장 등을 꼽을 수 있다⁵⁾. 이 같은 현실과 이론의 변화가 곧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

2.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1) 지역개발이론체계

지역개발이론은 경제성장의 공간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달성

4)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6권 제2호, 1994, p.88.

5) 조명래, 지역개발학의 패러다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제2호, 1995, p.52.

할 수 있는 전략에 관한 다양한 논리적 체계와 방법론을 포함한다. 즉 경제성장이 공간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지역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다룬다. 지역개발이론은 경제성장의 지역적 현상을 원인과 과정차원에서 설명하는 실증이론(positive theories)과 지역개발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는 전략을 다루는 규범이론(normative theories)로 구분된다. 전자는 가치중립적인 현상의 설명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가치판단적인 정책적 전략제시를 중시한다.

지역개발의 실증이론은 속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균형이론과 불균형이론으로 구분된다. 균형이론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지역간 균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전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며, 불균형이론은 경제성장의 역사와 구조적 요인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성장이 지속된다는 지역개발이론이다. 지역불균형 발전이론은 성장거점이론, 역사적 이론, 지역간 소득격차이론, 종속이론, 마르크스주의자의 불균형 지역개발이론으로 세분화된다. 지역개발의 전략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규범이론은 국가발전전략이론과 지역개발전략이론으로 크게 구분되고, 지역개발전략이론은 다시 개발의 공간전략이론과 추진전략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의 공간개발전략이론은 균형개발 전략과 불균형개발 전략이론으로 세분화되고, 지역개발 추진전략이론은 지역개발의 추진주체, 추진방식, 추진전략에 관한 이론과 지역경제성장 전략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개발전략의 추진방식은 중앙정부나 상위 계층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방식(top-down approach)과 해당지역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 그리고 개발자원이나 원동력을 내부에서 동원하는 내생적 개발과 외생적 개발이론 등이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공간조직이론과 지역개발이론은 안정된 기술, 대량생산·소비 구조에 바탕을 둔 전통적 산업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유연적인 생산체제로 대체되고 경제체제의 지구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의 자본과 기술이동의 장애가 감소됨에 따라 전통적 산업사회를 전제로 한 기존의 지역개발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유연적 생산체제(flexible production regime)가 등장하면서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산체제에 바탕을 둔 대안적인 지역개발이론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고, 경제성장 및 기존의 지역개발방식이 지구자원과 환경을 고갈시켜 인류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환경의식

을 토대로 현재의 개발이 인류 생존기반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론이 새로운 지역개발이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목표와 전략차원에서 매 10년 단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촉진을 1980년대는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1990년대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역개발정책은 간선교통망, 다목적댐, 항만 등 전국적 규모의 사회간접시설과 산업단지 기반을 확충하여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치중하였다. 산업성장을 위한 물적 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투자를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집중개발과 특정지역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제1차경제발전계획(1962~66)에서는 서울-인천 특정지역, 울산특정공업지역, 제주도 특정지역이 지정되었다. 제2차경제발전계획(1967~71)에서는 태백산 특정지역, 영산강 특정지역이 지정·추진되었다. 서울-인천 특정지역과 울산특정지역은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간접시설과 공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졌다. 제주도, 태백산, 영산강, 아산-서산, 영동-동해 특정지역은 관광, 지하자원, 영농자원 등 국토자원의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개발되었다.

1963년 국토종합건설계획법이 제정되어 수출산업의 육성과 공단조성 등 개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권 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시기의 지역분업구조는 1960년대는 노동집약형 제조업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던 도시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의 도·농간분업이었다고 하면, 1970년대는 전통적인 대도시의 경공업과 새로운 공단조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간의 분업이 지역간 분화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는 지역개발정책의 기초가 경제성장에서 복지위주의 균형적 발전전략으로 전환되며 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분산적 집중개발전략이 채택되었다.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이 사회적·지역적 불균형, 환경오염 등 부작용

용을 초래하였고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의 자생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에서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성장거점개발전략이 채택되었다. 성장거점도시의 육성방안으로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교역, 업무, 중추관리기능의 육성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닌 집적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 업무단지 조성, 특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대전3공단, 전주, 군산2공단, 군장산업기지, 대불공단, 광양공단을 비롯하여 20여개의 공업단지 지정·개발되었다.

또한 1980년대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상대적 낙후지역을 위한 종합개발사업과 특정지역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생활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가격의 양등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수도권내 5대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도로확장, 포장,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제5,6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잡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전 국토를 15개의 거점도시 육성전략과 자생적 생활공간단위를 구축하고 28개의 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지방발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성장거점전략의 입법화 추진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91)에서는 지역경제권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역경제권은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두 개 이상의 시·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영남권 및 제주도로 나누어졌다. 수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의해 동남권, 서남권,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제도적인 추진장치의 미흡과 지역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구체적인 실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90년대의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에 대한 경직적이고 물리적인 규제를 조정하고, 지방에는 대규모 집적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권개발은 대내적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대응거점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세

계경제와의 통합을 증진하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경쟁체제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을 8대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서해안 중심의 대규모 신산업지대 조성, 지역의 기술혁신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멀티미디어단지, 정보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 시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해안개발사업에는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군산공단, 군장산업기지 등 대규모 산업기지 조성과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는 영종도 신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의 건설, 부산 가덕항만, 광양항 확장사업, 동북아 물류거점 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8개 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으나 부산·경남권 및 아산만권을 제외하고는 본격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는 19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토지이용의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기존의 특정지역개발 사업이 종결단계에 이르게 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새로운 낙후지역개발제도인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개발촉진지역은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특성 있는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표2-1> 지역개발 패러다임 및 국토정책·계획의 변천

구 분	1950-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지역 개발 전략	국가균형성장이론 (Rosenstein-Rodan 1943; 1961, Nurkse 1952, Lewis 1955) 국가불균형성장이론 (Hirshman 1958) 기초수요 접근방법(Dudly Seers 1962, ILO) 하향식 개발전략	고용지향적 전략(1976) 상향식 지역개발전략 -농촌개발론 (Haque 1977) -생태개발론 (Sachs 1976) -농도지구개발 (Friedman, Douglass 1978) -신국제경제질서 (Tinbergen 1976)	지역의 재구조화 내향적 투자촉진 신산업지구의 조성 지역경영의 도입 탈규제화 유연생산체계에 조응하는 지역공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1992) Eco-City 자원절약성 토지이용
가치 및 패러 다임 갈등	효율성/규모의 경제 개발과 저개발 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	형평성/분배의 경제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상향식개발과 하향식 개발	쇄신성/범위의 경제 외향적 개발과 내생적 개발 중앙중심개발과 지방중심개발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디즘	환경성 개발과 보존 경제적 지속성/생태적 지 속성
공간 형식 및 환경 변화	기능통합/지역통합		<환경의 변화> 금융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다원화·세계화 지방화·도시화	<도시발전방향> 효율성·형평성 쾌적성·지속가능성 삶의 질
국토 정책 변화	경공업중심의 수출산업화 사회간접자본의 기반확대 산업의 기반확충 수출산업공단개발 대도시공업지역개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기초소재의 수입대체 산업육성 동남해안산업기지개발 지방중심도시공단개발 중화학공업단지개발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일반특화산업 및 중소 기업의 활성화 농공단지 개발 대도시 공업정비	자작기산업의 기반구축 서비스화 중심의 Software형 산업육성 서남해안국가공단개발 과학산업단지개발 민간공업단지개발
국토 계획 변화		경제성장기반구축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개발기반확충 국민생활환경개선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거점개발전략	국토균형발전 국민복지향상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수준제고 국토의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 지역생활권 조성 대도시 성장억제 및 관리 낙후지역개발촉진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복지향상 지방분산형 국토골격형성 자원절약적 국토이용계획 국민복지향상과 환경보전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첨단화 국민생활환경부문의 투자확대
계획 특성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광역거점개발

제2절 지역 경제성장의 선행연구 검토

1. 1970년대

B. M. Renaud는 1973년과 197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소득분포의 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1959~1970년 기간 중에 발생된 총체적인 소득분포의 경향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도·농간의 불균형이 1960년대 초반기에는 심화, 증가되고 있으나, 1960년대 후반기에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안제(1974)는 서울과 부산 및 9개의 도지역을 대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등을 사용하여 한국의 지역간 불균형을 측정하였으며, 1960~1970년 기간 중 지역불균형은 계속 심화,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 Mera(197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간 소득불균형이 1964~1967년의 기간 중에는 증가하고, 1968~1971년의 기간 중에는 완화,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후 1974년까지는 거의 불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의 감소 및 수렴성은 중앙정부의 가격정책을 통해서 농업노동자의 거래조건의 개선에 주로 기인된다고 한다.

D. C. Rao(1978)는 1963~1975년의 기간에 걸친 한국의 지역불균형을 측정하였으며, 한국에 있어서 비교적 넓은 성장이익의 분포는 주로 총량적 성장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지역간 소득불균형이 1960~1965년의 기간에는 심화, 증가하였으나, 1965년 이후 1975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완화, 감소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 1980년대

주학중(1978, 1981)은 비농업부문에 있어서 소득분포의 불균형이 1965~1970년 기간 중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1970~1976년의 기간 중에는 오히려 급속히 심화, 증대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에서는 소득분포의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3년 후 1981년에 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역간 소득불균형이 1960~1970년 기간 중에는 심화, 증대되었으나, 1970~1980년 기간 중에는

완화, 감소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정식(1981)은 경상도지역의 37개 시·읍과 전라도지역의 30개 시·읍을 대상으로 1964~1971년 사이의 지역개발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시·읍을 중심으로 한 변이분석의 경우 두 지역간의 격차는 1971년 이후 계속 심화,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황명찬(1982)은 1966~1975년 사이에 지역불균형은 입지조건 개선에 의해서 지역격차의 심화, 증대하였으나 인구이동에 의한 균형화의 영향으로 지역격차는 분석기간 중에 완화,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영모(1987)는 지역간 발전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1975~1985년 기간 중 지역불균형은 완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불균형을 결정짓는 요인은 공공투자, 대출, 제조업, 공장입지 및 인구규모라고 분석하였다.

장익수(1989)는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자료를 이용 지역격차의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968년에 최고에 달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가 1970년대 초반에 다시 심화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개선되어 1978년 최저점에 다다랐고, 그 후 다시 격차가 커져 전반적으로 M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1990년대

최영출(1993)은 1985~1991년 사이 시도별 지역격차의 변화추이 분석결과 분석기간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인구이동의 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용·박진석(1996)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지역소득격차의 수렴성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은 두 시점 모두 균형성장 경로를 벗어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간 소득격차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노근호 외(1995)의 분석에 의하면 1970~1991년 사이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1981년과 1983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갑성·김인전(2001)은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1991~1999년 사이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지역격차를 분석한 결과 지역격차는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차산업의 비중이 지역간 격차가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박용규 외(2001)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경제

력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행·재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또는 지역별 독창적인 사업발굴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2-2> 국내의 연구동향

연구자	연 도	연구의 초점	연구의 결과
김안제	1974	지역간 불균형 측정	1960~1970년 사이 지역간불균형은 계속 심화 증대되고 있음
장익수	1989	지역간 경제격차의 변동 추이 분석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1인당 GRP에 의한 지역격차는 M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공간패턴상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임
김영정	1989	공업화 전략과 지역간 격차와의 관계	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이 본격육성되면서 도시집적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김영모 외	1992	산업부문별 고용증가와 인구증가와의 관계 추정	인구증가는 3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울과 비 교해 볼 때 경기와 인천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높음
김성태 외	1992	지역간 절대적 경제력 격차의 원인분석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GRP 절대적 격차와 상대적 격차 심화, 1인당 GRP의 절대적 격차는 심화, 상대적 격차는 줄어 듦
최영출	1993	지역간 경제격차 분석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역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격차의 감소는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장종희	1994	지역간 경제격차 분석	1966년을 최저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7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노근호 외	1995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1970~1991년 사이 지역경제력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981년과 1983년을 정점으로 감소함
김영용 박진석	1995	한국의 경제성장과 지역 소득격차	1977과 1987년을 분석대상으로 지역소득격차의 수렴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균형성장 경로를 벗어나 있으며, 경제성장과 지역간 소득균형간의 관계가 우하향 하는 곡선으로 나타남
변병설	1999	한미간 비교연구를 통해 격차의 역U자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 지역격차는 역U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증가하다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김갑성 김인전	2001	지역별 생산구조와 지역 격차	지역격차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외 환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다양화될수록 지역경제의 안정성이 높음
박용규	2001	지역경제 현안과 발전모델 모색	지역산업구조의 취약,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처가 미흡으로 지방의 경제력 격차의 지속되고 있음,

자료 : 노병한, 지역균형의 이론적배경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1991.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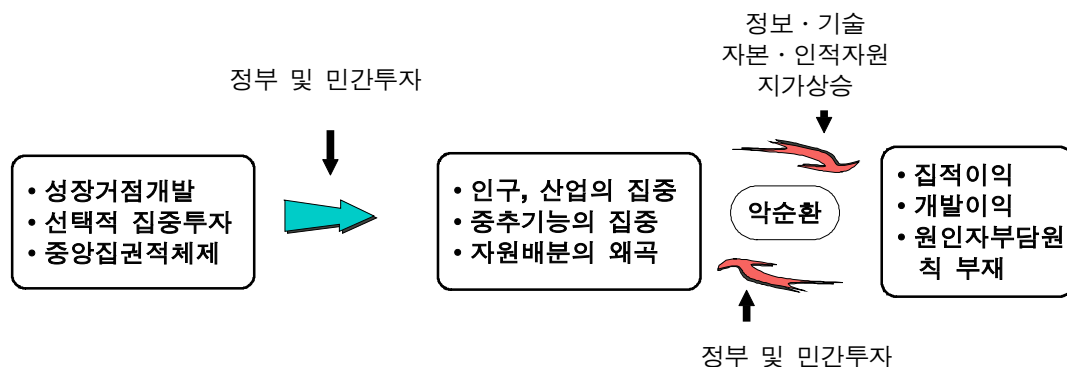
4. 지역경제성장의 메카니즘

국내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도간의 지역간 격차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간 경제력격차는 시기별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1960년대 후반기에는 대체로 확대되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지역간 경제력격차는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성장의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물리적 특성, 고용구조, 사회간접시설, 공공투자의 규모, 정책결정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승적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는 과거 경제성장단계에서 거점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2차산업의 의도적인 지역간 편중에 기인하며, 그에 따른 공공투자와 금융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산업의 지역간 편중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의 집중을 초래하여 지역간의 재정력의 격차 및 기반시설과 사회·문화적 편의시설 등의 비의도적인 지역간 격차로 이어지는 누진적 순환과정을 겪으면서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고 판단된다. 또한 누진적인 지역간의 격차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대도시 지역의 지가상승을 야기하여 토지발생자본이익의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을 초래하고, 이는 지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다시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림2-1] 지역불균형성장 메카니즘



제3장 충남의 지역경제 현황

제1절 인구현황

1. 인구규모

충남의 총인구는 2001년 말 현재 1,928천명으로 전국의 3.99%를 차지하고, 1990~1995년 사이에는 연평균 -1.8%씩 감소하였으나 1995년을 정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대비 충남의 인구비중은 1990년 4.73%에서 2001년 3.99%로 감소하여 충남의 인구는 전국인구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1> 충남의 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변화율	
									'90~'95	'96~'01
전 국	42,869	45,982	46,434	46,885	47,174	47,543	47,977	48,289	1.4	0.6
충 남	2,028	1,855	1,878	1,903	1,919	1,926	1,930	1,928	-1.8	0.5
구성비	4.73	4.03	4.04	4.06	4.07	4.05	4.02	3.99	-	-

주: 주민등록인구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시·군별 인구분포는 2000년 현재 천안시(21.9%), 아산시(9.6%), 서산시(7.8%), 논산시(7.4%), 공주시(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인구가 충남인구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1995~2000년 사이에 계룡출장소(11.95%), 천안시(4.78%), 아산시(3.09%), 서산시(1.07%), 당진군(0.07%) 순으로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서북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2> 지역별 인구분포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5	2000	연평균 증가율	
				90-95	95-00
충 남	2014(100.0)	1852(100.0)	1922(100.0)	-1.66	0.74
천안시	313(15.5)	334(18.0)	421(21.9)	1.28	4.78
공주시	158(7.8)	138(7.5)	136(7.1)	-2.66	-0.36
보령시	146(7.2)	123(6.6)	119(6.2)	-3.39	-0.73
아산시	165(8.2)	158(8.5)	184(9.6)	-0.84	3.09
서산시	149(7.4)	142(7.7)	150(7.8)	-0.93	1.07
논산시	176(8.7)	150(8.1)	142(7.4)	-3.14	-1.04
금산군	84(4.2)	71(3.8)	65(3.4)	-3.35	-1.85
연기군	91(4.5)	81(4.4)	80(4.2)	-2.36	-0.07
부여군	117(5.8)	104(5.6)	93(4.8)	-2.42	-2.19
서천군	101(5.0)	85(4.6)	75(3.9)	-3.35	-2.45
청양군	54(2.7)	46(2.5)	41(2.1)	-3.28	-2.14
홍성군	105(5.2)	101(5.5)	95(5.0)	-0.68	-1.23
예산군	129(6.4)	110(5.9)	101(5.3)	-3.14	-1.60
당진군	83(4.1)	122(6.6)	122(6.4)	8.02	0.07
태안군	132(6.6)	72(3.9)	69(3.6)	-11.38	-0.97
계 룡	12(0.6)	16(0.8)	28(1.4)	5.45	11.95

자료 :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각년도.

2. 연령별 인구

충남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보면 0~14세 연령층과 15~29세 연령층 인구구성비는 각각 1990년 24.4%와 29.1%에서 2000년 20.2%와 23.3%로 감소한 반면 30~44세 연령층과 45~64세 연령층은 각각 1990년 18.8%와 20.0%에서 2000년 23.0%와 21.4%로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인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 7.7%에서 2000년 12.0%로 증가하였다. 2000년 현재 전국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비해 인구의 노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고령인구의 비중은 읍부 12.0%, 동부 5.8%, 면부는 17.8%로 나타나 면부는 거의 고령사회⁶⁾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군별 고령인구의 비중은 청양군이 20.4%로 가장 높고, 서천군(19.7%), 부여군(18.8%), 금산군(17.5%), 예산군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3-3> 충남 연령별 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 명, %)

1990년	인구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전 국	43,410,899	25.7	30.4	22.9	16.0	5.0
시부	32,308,970	26.4	31.5	24.6	13.9	3.6
읍부	3,603,647	25.9	28.9	20.8	17.9	6.5
면부	7,498,282	22.5	26.2	16.7	24.2	10.3
충 남	2,013,926	24.4	29.1	18.8	20.0	7.7
시부	467,444	28.1	31.4	22.5	13.7	4.3
읍부	480,532	25.7	29.7	20.6	17.8	6.1
면부	1,065,950	22.2	27.7	16.4	23.7	9.9
1995년	인구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전 국	44,608,726	23.1	27.6	25.6	17.8	5.9
읍부	3,484,148	23.4	25.4	23.8	19.3	8.1
면부	6,088,105	18.5	22.2	18.7	26.7	13.9
동부	35,036,473	23.8	28.7	27.0	16.1	4.3
충 남	1,766,854	21.2	25.2	21.4	22.2	9.9
읍부	488,967	22.7	26.5	22.9	20.0	7.9
면부	812,218	17.9	23.0	17.5	27.5	14.0
동부	465,669	25.5	27.7	26.5	15.3	5.1
2000년	인구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전 국	46,136,101	21.2	25.2	26.6	19.6	7.3
읍부	3,755,782	22.6	22.5	25.9	19.4	9.5
면부	5,625,175	16.5	19.6	19.7	26.2	18.0
동부	36,755,144	21.8	26.4	27.7	18.7	5.4
충 남	1,845,321	20.2	23.3	23.0	21.4	12.0
읍부	453,943	21.3	23.8	24.1	20.8	10.1
면부	796,021	16.2	21.7	18.6	25.7	17.8
동부	595,357	24.7	25.1	28.2	16.1	5.8

자료 :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각년도.

- 6)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를 넘는 상태를 말하고, 이 비중이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하고, 20%를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7.2%)을 기준으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3. 인구이동

2000년 충남인구의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총 이동인구는 273,341명으로 그 중 53.6%인 146,393명은 지역내 이동을 하였으며, 인구 유출지역은 경기도가 34,99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27,407명, 대전이 25,750명, 인천이 8,449명으로 나타나 주로 수도권과 대전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유입 지역을 보면 총 유입인구는 265,599명이고, 경기도가 31,98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3,083명, 대전이 21,068명, 인천이 8,386명, 충북이 7,550명으로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2000년 인구이동

(단위 : 명)

O \ D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	9,009,441	2,219,407	595,975	477,595	531,318	301,498	312,560	166,690
서울	2,266,346	1,582,429	15,968	9,986	52,829	11,579	16,154	4,105
부산	639,669	28,564	466,071	6,363	3,882	1,640	3,012	13,580
대구	480,947	16,970	5,844	367,458	2,209	531	2,378	3,465
인천	518,153	45,970	2,895	1,806	358,102	2,236	3,515	1,015
광주	301,512	17,894	1,319	528	2,736	198,924	1,640	471
대전	303,984	18,698	2,227	1,944	3,273	1,461	211,847	765
울산	163,474	6,129	9,863	3,092	1,094	463	952	115,859
경기	1,858,301	312,616	12,073	8,595	67,516	8,949	16,514	3,637
강원	266,537	27,874	2,733	2,082	5,956	974	3,329	1,370
충북	239,559	18,321	1,807	1,799	3,879	676	10,937	901
충남	273,341	27,407	2,315	1,676	8,449	1,134	25,750	1,058
전북	372,218	32,637	2,285	1,074	5,587	7,143	6,427	838
전남	359,049	33,517	5,466	1,063	6,859	62,634	2,785	1,349
경북	406,344	23,599	10,732	59,687	4,370	944	3,949	8,846
경남	472,407	20,015	52,156	9,712	3,526	1,350	2,849	9,008
제주	87,600	6,767	2,221	730	1,051	860	522	423

O \ D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042,327	255,403	235,155	265,599	350,628	25,511	380,638	463,895	85,242
서울	435,573	22,832	14,934	23,083	22,390	22,969	14,576	11,741	5,198
부산	20,758	2,812	2,191	3,110	2,275	5,600	11,629	65,707	2,475
대구	13,071	1,889	1,824	2,087	1,016	971	52,556	7,977	701
인천	67,498	5,512	4,074	8,386	4,658	5,034	3,545	2,888	1,019
광주	12,520	964	742	1,252	6,382	53,374	670	1,325	771
대전	18,360	2,700	9,361	21,068	4,776	2,163	2,869	2,008	464
울산	5,194	1,254	971	1,364	846	1,376	7,254	7,396	367
경기	1,284,156	26,514	19,900	31,988	18,854	18,535	13,654	10,948	3,852
강원	31,013	171,050	5,512	3,450	1,618	1,867	4,539	2,636	534
충북	22,065	5,220	156,984	7,550	1,838	1,336	4,052	1,834	360
충남	34,994	2,867	7,685	146,393	5,482	2,269	2,647	2,719	496
전북	26,700	1,640	1,990	5,990	268,054	7,317	1,630	2,142	764
전남	26,998	2,130	1,945	2,883	8,207	194,566	2,634	4,533	1,480
경북	21,345	4,556	4,511	3,186	1,325	2,027	247,544	8,869	854
경남	17,565	2,730	2,165	3,221	2,164	4,543	10,045	329,812	1,546
제주	4,517	733	366	588	743	1,564	794	1,360	64,361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000.

시·군별 순이동인구는 2000년 현재 천안시(13,681명)와 아산시(1,044명)만이 순전입인구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시·군들은 모두 인구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가 1,808명, 금산군이 790명, 당진군이 2,583명, 서산시가 2,012명, 부여군 2,272명, 보령시 2,537명, 예산군 2,145명, 연기군 758명, 서천군 2,571명, 태안군 483명, 공주시 1,421명, 홍성군 2,060명, 청양군 927명의 인구유출이 발생하였다.

<표3-5> 충남지역 시·군간 인구이동

(단위 : 명)

구 분	합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천안시	48,644	41,041	451	233	4,261	371	151	50
공주시	10,454	728	7,900	133	258	119	336	52
보령시	9,530	500	171	7,305	167	129	113	32
아산시	19,655	5,745	191	88	12,354	183	63	36
서산시	13,435	759	140	108	239	10,043	134	20
논산시	9,768	347	373	110	132	86	7,747	90
금산군	2,072	105	55	26	46	25	77	1,613
연기군	3,321	955	238	32	120	28	78	34
부여군	3,967	193	209	150	67	50	665	28
서천군	3,503	202	52	218	70	41	94	15
청양군	1,788	180	280	140	87	22	41	5
홍성군	4,881	612	100	343	225	272	85	17
예산군	5,205	920	112	104	652	193	44	8
태안군	3,212	328	74	61	76	900	37	10
당진군	6,958	780	79	97	392	494	57	16
합계	146,393	53,395	10,425	9,148	19,146	12,956	9,722	2,026

구 분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539	95	98	89	321	470	153	321
공주시	198	170	41	256	61	89	45	68
보령시	29	134	145	118	396	90	99	102
아산시	78	34	55	59	126	367	79	197
서산시	31	50	29	21	248	178	981	454
논산시	86	512	82	35	67	40	20	41
금산군	33	19	21	9	16	6	9	12
연기군	1,681	32	8	13	31	32	12	27
부여군	45	2,227	95	130	27	33	12	36
서천군	11	118	2,520	27	32	16	45	42
청양군	11	102	32	635	113	103	20	17
홍성군	31	28	27	134	2,429	366	70	142
예산군	24	37	17	72	372	2,322	59	269
태안군	15	6	18	5	62	39	1,473	108
당진군	34	31	16	23	153	240	181	4,365
합계	2,846	3,595	3,204	1,626	4,454	4,391	3,258	6,201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000.

제2절 지역경제

1. 지역내 총생산

전국대비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1990년 3.8%에서 2000년 4.6%로 증가하여 21조 5,249억원에 이르고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경기(11.1%)와 충북(9.2%)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고 증가하였다. 2000년 현재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은 경기가 22.8%로 가장 높고, 서울(20.7%), 경남(11.7%), 경북(7.3%), 부산(5.8%), 전남(4.8%), 충남(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 서울 중심의 수도권이 평면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2000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비중이 49%에 이르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6>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전 국	247,735.1 (100.0)	357,722.5 (100.0)	465,183.2 (100)	6.5
서 울	64,660.7 (26.1)	84,598.7 (23.6)	96,470.6 (20.7)	4.1
부 산	19,221.6 (7.8)	24,134.9 (6.7)	27,038.1 (5.8)	3.5
대 구	10,690.3 (4.3)	13,917.8 (3.9)	14,792.1 (3.2)	3.3
인 천	11,525.6 (4.7)	18,007.0 (5.0)	20,755.3 (4.5)	6.1
광 주	6,026.2 (2.4)	8,522.2 (2.4)	9,874.0 (2.1)	5.1
대 전	5,773.8 (2.3)	7,934.9 (2.2)	9,872.1 (2.1)	5.5
경 기	36,799.5 (14.9)	60,835.1 (17.0)	105,855.3 (22.8)	11.1
강 원	7,650.6 (3.1)	9,766.7 (2.7)	11,317.9 (2.4)	4.0
충 북	7,382.2 (3.0)	11,846.3 (3.3)	17,744.2 (3.8)	9.2
충 남	9,337.0 (3.8)	14,774.1 (4.1)	21,274.4 (4.6)	8.6
전 북	9,253.0 (3.7)	12,971.7 (3.6)	14,758.0 (3.2)	4.8
전 남	12,696.3 (5.1)	18,907.4 (5.3)	22,524.9 (4.8)	5.9
경 북	16,321.3 (6.6)	24,003.1 (6.7)	33,991.9 (7.3)	7.6
경 남	27,600.8 (11.1)	43,760.5 (12.2)	54,513.2 (11.7)	7.0
제 주	2,796.2 (1.1)	3,741.9 (1.0)	4,401.1 (0.9)	4.6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2. 산업구조

충남의 산업구조는 1990년 농림어업 27.5%, 광공업 27.0%, 서비스업이 45.5%에서 1995년 농림어업 19.5%, 광공업 28.9%, 서비스업이 51.7%, 2000년에는 농림어업 15.5%, 광공업 39.2%, 서비스업이 45.2%를 차지하여 광공업비중의 증가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2000년 현재 농림어업의 비중은 거의 2.5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10% 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표3-7> 충남의 산업구조

(단위 : 10억원, %)

구 분	전 국						충 남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산업총생산	228,052	100	340,463	100	450,217	100	8,268	100	13,672	100	20,056	100
농림어업	19,730	8.7	22,871	6.7	24,332	5.4	2,272	27.5	2,660	19.5	3,117	15.5
광업	1,138	0.5	1,063	0.3	846	0.2	65	0.8	91	0.7	76	0.4
제조업	76,078	33.4	108,350	31.8	174,400	38.7	2,166	26.2	3,859	28.2	7,788	38.8
서비스업	131,107	57.5	208,179	61.1	250,640	55.7	3,765	45.5	7,063	51.7	9,075	45.2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1) 농업

2000년 현재 도내 농가인구는 179천가구에 539천명으로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1995년 사이에는 연평균 -2.6%와 -5.4%의 감소율을 보이고, 1995~2000년 사이에는 연평균 -1.5%와 -3.4%의 감소율을 보여 감소폭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농경지면적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도시시설의 확충 등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 280천ha에서 2000년 257천ha로 연평균 -0.9%의 감소율을 보

이고 있으며, 논보다는 밭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1990년 11,026천원에서 2000년 22,376천원으로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5.6%, 농업외소득은 9.6%, 이전수입은 8.1%의 증가율을 보여 농업외소득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면적과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농가소득은 증가한다는 것은 농경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3-8> 충남의 농가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증가율		
				90~95	95~00	90~00
농가구수(천호)	220	193	179	-2.6	-1.5	-2.0
농가인구(천명)	847	641	539	-5.4	-3.4	-4.4
농경지면적(천ha)	280	272	257	-0.6	-1.1	-0.9
논	199	193	188	-0.6	-0.5	-0.6
밭	81	79	69	-0.5	-2.7	-1.6
농가소득(천원)	11,026	21,803	22,376	14.6	0.5	7.3
농업소득	6,264	10,469	11,131	10.8	1.2	5.9
농외소득	2,841	6,931	7,073	19.5	0.4	9.6
이전수입	1,921	4,403	4,172	18.0	-1.1	8.1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백서, 2000.

충남의 시·군별 농가인구의 평균구성비는 28.0%이며 2000년 현재 당진군(71.0%), 청양군(52.7%), 부여군(44.2%), 예산군(41.9%), 금삼군(41.4%), 홍성군(38.9%)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안군(-8.5%), 천안시(-7.1%), 아산시(-5.4%), 서산시(-4.8%), 보령시(-4.5%) 순으로 빠르게 농가인구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어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9> 충남의 농가인구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0	1995	2000	증가율
충청남도	44.8	34.6	28.0	-4.6
천 안 시	19.2	13.5	9.2	-7.1
공 주 시	40.9	34.6	29.8	-3.1
보 령 시	41.8	32.5	26.4	-4.5
아 산 시	38.3	29.7	22.1	-5.4
서 산 시	46.8	35.9	28.5	-4.8
논 산 시	43.7	36.1	28.2	-4.3
금 산 군	58.7	46.5	41.4	-3.4
연 기 군	40.6	33.4	29.3	-3.2
부 여 군	59.8	47.8	44.2	-3.0
서 천 군	53.5	42.5	36.0	-3.9
청 양 군	70.3	54.9	52.7	-2.8
홍 성 군	54.6	43.4	38.9	-3.3
예 산 군	51.9	42.8	41.9	-2.1
태 안 군	56.1	26.5	23.1	-8.5
당 진 군	61.7	79.5	71.0	1.4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2) 제조업

충남 제조업의 생산액 기준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1998년에 화합물및화학제품업(22.7%),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12.3%), 자동차및트레일러업(9.4%), 기타기계및장비업(8.1%), 제1차금속업(7.4%), 고무및플라스틱업(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속도는 기타운송장비업이 55.9%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정밀광학기각및시계업(48.7%), 자동차및트레일러업(47.2%),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39.6%), 기타기계및장비업(36.3%) 순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10> 충남의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1		1995		1998		연평균 증가율		
							91-95	95-98	91-98
섬유제품제조업	392,035	9.3	785,503	6.1	929,783	5.1	19.0	5.8	13.1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71,258	1.7	77,722	0.6	65,089	0.4	2.2	-5.7	-1.3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00,700	2.4	130,931	1.0	63,973	0.4	6.8	-21.2	-6.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0,165	0.7	74,864	0.6	84,339	0.5	25.5	4.1	15.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5,443	7.0	943,814	7.3	1,258,046	6.9	33.7	10.1	23.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622	1.0	124,105	1.0	127,502	0.7	29.9	0.9	16.6
코크스, 석유정제품및 핵연료제조업	574,219	13.6	804,640	6.2	-	-	8.8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53,484	15.4	2,505,125	19.3	4,131,324	22.7	39.9	18.1	30.1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201,637	4.8	545,427	4.2	1,059,692	5.8	28.2	24.8	26.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76,040	16.0	1,028,774	7.9	878,968	4.8	11.1	-5.1	3.8
제 1 차금속산업	246,894	5.8	911,970	7.0	1,338,204	7.4	38.6	13.6	27.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2,200	3.6	580,173	4.5	980,480	5.4	39.7	19.1	30.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9,026	4.0	1,316,881	10.2	1,477,845	8.1	67.1	3.9	36.3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제조업	-	-	212,947	1.6	312,574	1.7	-	13.6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204539	4.8	830,353	6.4	695,788	3.8	41.9	-5.7	19.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16417	5.1	1,200,378	9.3	2,234,515	12.3	53.5	23.0	39.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6062	0.6	186,004	1.4	419,783	2.3	63.4	31.2	4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4272	2.7	510,265	3.9	1,711,726	9.4	45.4	49.7	47.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746	0.3	49,086	0.4	240,777	1.3	46.2	69.9	55.9
가구 및 기타 제조업	57913	1.4	124,673	1.0	157,911	0.9	21.1	8.2	15.4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15,144	0.1	25,600	0.1	-	19.1	-
합 계	4,236,672	100.0	12,958,779	100.0	18,193,919	100.0	-	-	-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충남의 광공업체수는 1990년 1,630개에서 2000년 2,790개로 증가하여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1999년 현재 광공업체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천안시(31.7%), 아산시(12.7%), 논산시(7.3%), 연기군(7.1%), 금산군(6.0%) 순으로 높게 나타나 광공업체의 대부분이 서북부지역과 대전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한편, 서천군(15.2%), 당진군(13.1%), 태안군(12.5%), 금산군(10.0%), 서산시(9.0%) 순으로 광공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1> 시·군별 광공업체수

(단위 : 개, %)

구 분	1990	1995	1999	증가율		
				90~95	95~99	90~99
충 남	1,630 (100)	2,768 (100)	2,790 (100)	11.2	0.2	6.2
천 안 시	455 (27.9)	789 (28.5)	885 (31.7)	11.6	2.9	7.7
공 주 시	203 (12.5)	235 (8.5)	194 (7.0)	3.0	-4.7	-0.5
보 령 시	106 (6.5)	122 (4.4)	94 (3.4)	2.9	-6.3	-1.3
아 산 시	174 (10.7)	327 (11.8)	354 (12.7)	13.4	2.0	8.2
서 산 시	42 (2.6)	80 (2.9)	91 (3.3)	13.8	3.3	9.0
논 산 시	129 (7.9)	206 (7.4)	204 (7.3)	9.8	-0.2	5.2
금 산 군	71 (4.4)	159 (5.7)	168 (6.0)	17.5	1.4	10.0
연 기 군	123 (7.5)	199 (7.2)	197 (7.1)	10.1	-0.3	5.4
부 여 군	53 (3.3)	105 (3.8)	98 (3.5)	14.7	-1.7	7.1
서 천 군	33 (2.0)	75 (2.7)	118 (4.2)	17.8	12.0	15.2
청 양 군	22 (1.3)	40 (1.4)	35 (1.3)	12.7	-3.3	5.3
홍 성 군	58 (3.6)	100 (3.6)	63 (2.3)	11.5	-10.9	0.9
예 산 군	75 (4.6)	114 (4.1)	89 (3.2)	8.7	-6.0	1.9
태 안 군	19 (1.2)	88 (3.2)	55 (2.0)	35.9	-11.1	12.5
당 진 군	45 (2.8)	118 (4.3)	136 (4.9)	21.3	3.6	13.1
계 룡	22 (1.3)	11 (0.4)	9 (0.3)	-12.9	-4.9	-9.5

자료 : 충청남도, 경제백서, 2000.

3) 서비스업

전국의 지역내 총생산액 대비 서비스업 생산액의 구성비는 1999년 현재 60.5%인데 비하여 충남 서비스업의 생산액 구성비는 49.6%에 불과하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건설업(12.4%), 전기가스수도업(6.4%), 부동산사업서비스업(6.8%), 도소매업(4.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업인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은 1990년 10.3%에서 1995년 12.4%로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12.4%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3-12> 충남의 서비스업구조

(단위 : 10억원, %)

구 분	전 국						충 남					
	1990		1995		1999		1990		1995		1999	
지역내총생산	254879.6	100.0	372223.1	100.0	441409.7	100.0	9513.3	100.0	15158.0	100.0	19880.2	100.0
전기가스 수도사업	4411.9	1.7	7857.2	2.1	10877.2	2.5	233.9	2.5	704.2	4.6	1272.2	6.4
건설업	29971.5	11.8	43402.3	11.7	39451.8	8.9	1376.8	14.5	2550.7	16.8	2465.1	12.4
도소매업	24504.3	9.6	37250.1	10.0	38088.6	8.6	556.0	5.8	947.3	6.2	946.2	4.8
음식숙박업	6930.8	2.7	8998.8	2.4	9096.7	2.1	236.4	2.5	312.2	2.1	313.9	1.6
운수창고	13244.4	5.2	18084.2	4.9	20954.5	4.7	225.1	2.4	438.6	2.9	583.1	2.9
통신업	4181.2	1.6	7827.4	2.1	11994.5	2.7	151.3	1.6	237.1	1.6	305.7	1.5
금융보험업	11899.5	4.7	24329.4	6.5	31218.9	7.1	185.0	1.9	486.3	3.2	648.2	3.3
부동산 사업서비스	26850.6	10.5	44785.0	12.0	53652.4	12.2	600.5	6.3	1028.3	6.8	1353.7	6.8
사회 및 개인서비스	9112.9	3.6	15644.7	4.2	19125.0	4.3	199.9	2.1	357.9	2.4	454.3	2.3
정부서비스 생산자	20861.7	8.2	23337.3	6.3	23549.4	5.3	1080.8	11.4	1169.7	7.7	1110.2	5.6
민간비영리단체	5965.7	2.3	8422.9	2.3	9255.8	2.1	164.7	1.7	316.0	2.1	405.1	2.0
소계	157934.4	62.0	239939.3	64.5	267264.7	60.5	5010.3	52.7	8548.3	56.4	9857.6	49.6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이 높을수록 지역금융의 취약성을 가중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지역자금의 서울로의 역외유출비율은 IMF 직후 41.3%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에는 37.3%를 기록하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37.3%는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13> 역외유출비율 추이(금융기관 전체)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예금은행	-7.6	-6.6	-9.9	13.7	10.9	16.4
개발기관 (산은, 수출입은)	-1625	-1680.8	-1194.6	-801.1	-654.4	-442.6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18.7	21.6	17.9	32.9	36.7	37.7
종합금융사	26.9	23.9	-34.9	67.6	60.5	42.3
금융기관 전체	29.7	31.3	30.3	41.3	39.7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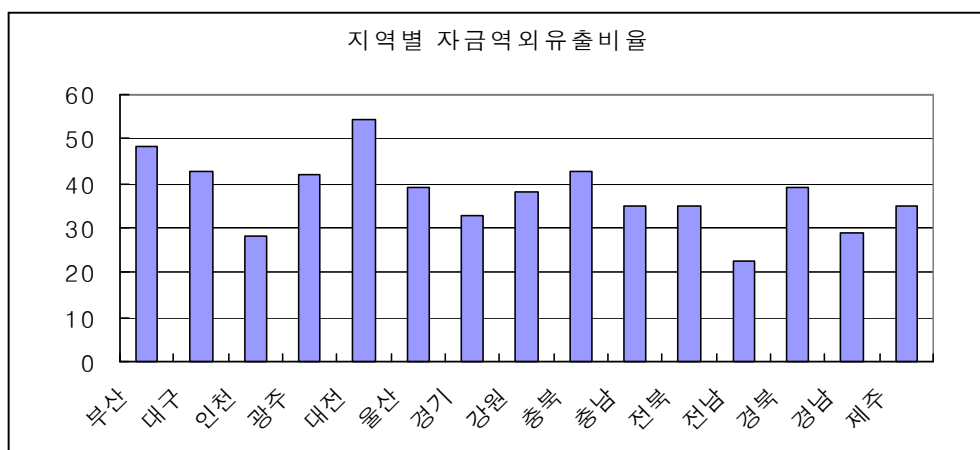
주: 역외유출비율=(수신 - 여신)/수신×10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황과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2001.

2001년 1월 현재 지역별로는 대전(54.4%), 부산(48.3%), 광주(42.1%) 등 대도시지역의 역외 자금유출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22.7%), 경남(29.1%), 인천(28.4%)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충남은 지역자금의 35.0%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자금유출의 확대되는 원인은 IMF 이후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퇴출로 지방소재 점포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인구와 제조업체의 50%, 대기업 본사의 90% 등 산업의 중추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그림3-1] 지역별 자금역외유출비율



3. 인적자원

충남의 6세 이상 인구는 1,692,541명으로 전국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재학생 비중은 24.3%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 중에는 고등학생이 5.0%, 대학 이상의 학생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고급인력의 잠재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의 졸업자 비중은 61.9%로 전국 평균 64.6%에 못 미치고 있으며, 그 중 초등학교 졸업자는 17.3%, 중학교 졸업자 9.1%, 고등학교 졸업자 24.9%, 대학이상 졸업자 10.7%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9.5%, 8.8%, 29.0%, 17.3%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이상 졸업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인력의 공급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 현재 지역별 고졸이상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대도시지역의 고졸이상의 취업자 비율은 7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북, 전남, 충남은 50%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3-14> 학교별 재학생 비중(2000)

(단위 : 천명, %)

구 분	6세이상	재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 국	42,169	25.8	9.3	4.3	5.0	7.3
서 울	9,141	25.5	8.0	4.0	4.8	8.7
부 산	3,405	26.3	8.4	4.3	5.4	8.3
대 구	2,277	27.6	9.3	4.5	5.2	8.6
인 천	2,244	25.6	10.7	4.6	4.9	5.3
광 주	1,225	30.5	10.0	4.6	5.7	10.2
대 전	1,247	30.1	9.9	4.7	5.2	10.2
울 산	911	27.4	11.4	4.9	5.3	5.9
경 기	8,063	25.5	10.8	4.4	4.6	5.6
강 원	1,368	25.2	8.6	4.3	4.9	7.4
충 북	1,341	26.2	9.1	4.4	5.0	7.7
충 남	1,693	24.3	8.6	4.2	5.1	6.4
전 북	1,736	26.3	8.8	4.4	5.3	7.9
전 남	1,836	23.5	8.5	4.2	5.2	5.6
경 북	2,505	24.4	8.5	4.1	5.0	6.8
경 남	2,714	25.2	9.6	4.4	5.1	6.0
제 주	463	26.6	9.8	4.3	5.1	7.3

자료 : 통계청, 교육별 인구, 2000.

인적자본의 질은 사회간접자본과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 경제발전을 지원하기에는 과학기술자원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은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의 7%에 불과하다.⁷⁾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00년 현재 서울이 32.7%와 32.7%, 경기도가 24.6%와 19.8%, 대전이 14.3%와 9.3%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부분의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지역은 각각 3.4%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5> 지역별 연구개발 활동현황

(단위 : 백만원, 인, 개,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연구 개발비	연구 인력	연구 개발비	연구 인력	연구 조직	연구 개발비	연구 인력	연구 조직	연구 개발비	연구 인력	연구 조직
총 계	12,185,807	212,117	11,336,617	199,191	3,339	12,221,752	212,510	3,059	13,848,501	237,232	5,227
서울	19.7	24.9	20.1	23.6	27.9	18.6	26.6	32.1	32.7	32.7	53.0
부산	1.7	4.8	1.7	5.7	4.5	1.5	5.2	5.1	1.7	4.7	4.3
대구	1.2	2.5	1.4	4.0	3.2	2.4	3.4	3.6	1.4	3.0	3.0
인천	5.3	4.7	4.6	5.6	5.8	4.0	4.8	7.1	3.6	4.3	5.3
광주	1.1	2.1	1.1	1.9	1.2	1.2	3.0	1.8	1.4	2.9	1.8
대전	15.5	11.7	16.4	11.0	5.6	14.3	10.0	5.4	14.3	9.3	4.9
울산	3.4	2.0	2.7	2.2	1.9	1.8	2.1	2.3	2.1	1.8	1.8
경기	34.1	25.0	33.7	22.5	22.9	37.7	23.1	2.9	24.6	19.8	23.3
강원	0.8	2.1	0.7	1.9	2.0	0.6	2.1	1.7	0.7	2.8	1.5
충북	2.4	2.7	2.2	2.5	4.0	3.4	3.0	4.4	1.6	3.1	3.2
충남	2.2	2.6	2.3	3.1	4.7	2.5	3.7	5.4	3.4	2.9	3.9
전북	1.5	2.8	1.5	2.8	2.2	0.8	1.5	2.2	1.0	2.1	2.0
전남	0.9	1.3	0.8	1.8	1.9	1.0	1.7	2.1	0.9	1.4	1.4
경북	5.5	5.5	5.8	6.1	4.5	5.5	4.8	4.7	4.5	4.4	3.9
경남	4.8	5.0	4.7	5.0	7.2	4.5	4.7	7.5	6.0	4.6	5.4
제주	0.1	0.4	0.2	0.4	0.4	0.2	0.4	0.4	0.2	0.4	0.4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7) 2001년도 중앙정부 R&D 예산은 41,030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4.4%임에 반하여 2001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의 R&D 예산은 총 3,253억원으로 지자체별 총예산 대비 평균 0.77%에 불과하다.

제3절 사회간접시설

1. 산업단지

충남의 국가산업단지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천안외국인전용단지, 대죽자원비축단지, 고정국가산업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총 지정면적은 3,852만㎡에 이르고 있다. 전국 국가산업단지 면적인 909,104천㎡의 4.2%를 점하고 있으나 천안외국인전용공단, 고정국가산업단지를 등을 제외하고는 가동중인 업체는 전무한 상태이다. 충남의 지방산업단지 및 기타산업단지는 총 25개 단지에 3,367만㎡ 조성하여 22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중 천안 제1산업단지를 비롯하여 9개의 지방산업단지와 계룡 왕대단지를 비롯한 4개 기타산업단지에 203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성거산업단지, 천안 산업기술산업단지, 관창산업단지, 인주1산업단지 등 13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 및 준비중에 있다. 지방산업단지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주로 천안, 연기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요 업종은 기계·장비, 조립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석유화학 등이다.

한편 농공단지는 15개 시·군에 총 58개소, 9,130천㎡에 605개 업체가 입주하고 그 중 48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87.9%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표3-16>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산업단지명	위치	규모	조성기간
계	6개소	38,518	
장항국가산업단지	서천 장항	14,712	1995~2001
아산국가산업단지	당진 고대·부곡	5,343	1992~2001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 석문	12,084	1992~2001
천안외국인전용단지	천안 백석	714	1992~1999
대죽자원비축단지	서산 대산	909	1997~2002
고정국가산업단지	보령 구교	4,749	1992~2002

자료 : 충청남도 공업기술과, 2001

지역별 산업단지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73,292천㎡중 당진군이 18,087천㎡(24.7%), 서천 16,746㎡(22.8%), 서산 9,664천㎡(13.2%), 보령 7,998천㎡(10.9%), 아산 6,165천㎡(8.4%), 천안 5,357천㎡(7.3%), 연기 3,701천㎡(5.0%)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등과 서남부지역의 보령, 서천과 대전근교

인 연기가 산업단지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표3-17> 시·군별 산업단지 분포 현황

(단위 : 천m², %)

구 분	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소수	면적	구성비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계	84	73,292	100.0	6	39,904	20	24,321	58	9,067
천 안 시	12	5,357	7.3	1	699	7	3,970	4	688
공 주 시	5	650	0.9	-	-	-	-	5	650
보 령 시	7	7,998	10.9	1	4,749	1	2,439	5	810
아 산 시	9	6,165	8.4	-	-	2	5,449	7	716
서 산 시	7	9,664	13.2	1	842	3	7,690	3	1,132
논 산 시	6	1,050	1.5	-	-	2	591	4	459
금 산 군	3	1,157	1.6	-	-	1	825	2	332
연 기 군	7	3,701	5.0	-	-	4	3,357	3	344
부 여 군	4	564	0.8	-	-	-	-	4	564
서 천 군	3	16,746	22.8	1	16,195	-	-	2	551
청 양 군	5	859	1.2	-	-	-	-	5	859
홍 성 군	3	419	0.6	-	-	-	-	3	419
예 산 군	5	769	1.0	-	-	-	-	5	769
태 안 군	1	106	0.1	-	-	-	-	1	106
당 진 군	7	18,087	24.7	2	17,419	-	-	5	668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백서, 1999.

2. 교통 · 물류시설

1) 도로시설

충남의 도로연장은 6,023km로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로 등급별 전국의 총 도로연장과 비교하여 보면 고속도로가 3.9%인 78.5km, 일반국도는 9.6%인 1,190.8km, 지방도는 10.0%인 1,709.9km, 시·군도는 8.0%인 3,028.8km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도로연장 중 시·군도 비율이 가장 많은 50.4%로 나타나 지역간 연결도로인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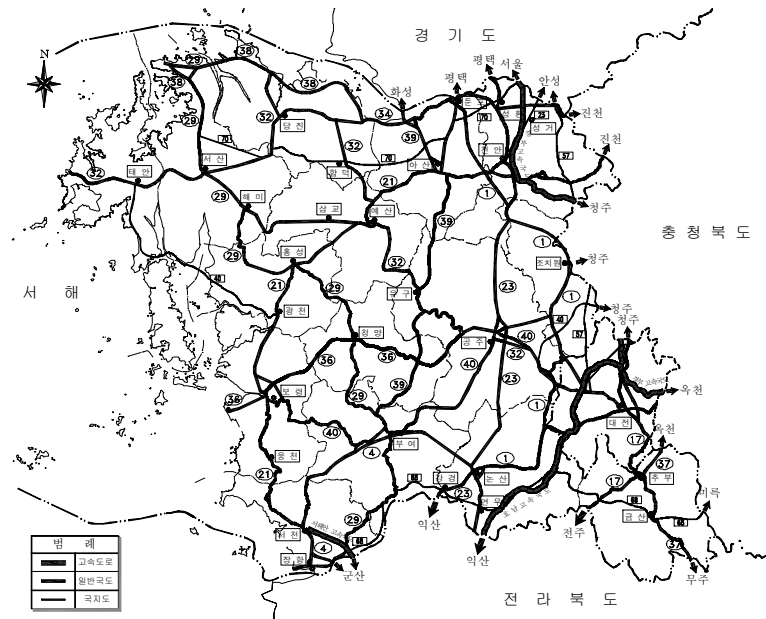
충남의 도로연장 밀도는 전국 0.88km/km²에 비해 낮은 0.70km/km²이고, 인구와 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의 경우 전국이 1.27, 충청남도는 1.48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약간 상회한 수치이나 충남의 도로가 지역간 연결도로인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 비해 시·군도의 도로연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로의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표3-18> 시·도별 도로현황(1999. 12. 31. 기준)

시도별	연 장(km)	포 장(km)	미개통(km)	포장율(%) (미개통포함)	포장율(%) (미개통제외)	면적(km ²)	도로밀도 (km/km ²)
계	87,534	65,356	6,472	74.7	80.6	99,774.72	0.88
서울	8,036	7,069		88.0	88.0	606.37	13.25
부산	2,553	2,493		97.7	97.7	753.19	3.39
대구	1,979	1,933	10	97.6	98.1	885.53	2.24
인천	2,032	1,854	22	91.2	92.2	957.64	2.12
광주	1,805	1,158	645	64.2	99.8	501.15	3.60
대전	1,433	1,399		97.6	97.6	539.79	2.66
울산	2,166	1,361	772	62.8	97.6	1,055.72	2.05
경기	11,183	9,080	1,144	81.2	90.5	10,190.73	1.10
강원	7,842	5,347	118	68.2	69.2	16,873.72	0.46
충북	6,042	3,966	640	65.6	73.4	7,432.72	0.81
충남	6,023	4,359	223	72.4	75.1	8,584.76	0.70
전북	6,087	4,244	287	69.7	73.2	8,047.54	0.76
전남	7,998	5,868	391	73.4	77.1	11,963.79	0.67
경북	9,299	6,466	398	69.5	72.6	19,022.93	0.49
경남	10,474	6,694	1,720	63.9	76.5	10,513.25	1.00
제주	2,581	2,066	102	80.0	83.3	1,845.89	1.40

자료 : 건설교통부, 시도별 도로현황, 2000.

[그림3-2] 도로현황



2) 철도시설

충남의 철도연장은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 등 4개 노선과 강경선, 남포선, 서천화력선 등 3개의 지선을 포함하여 7개 노선에 총연장 268.1km이며, 철도역은 경부선의 성환역~매포역, 호남선의 두계역~강경역, 그리고 장항선의 모산역~장항역 등 총 45개 역이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은 복선이다.

경부 및 호남선은 복선철도이나 각각 도내의 동북단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 통과수송 위주로써 지역내 여객 및 물동량 수송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지며, 나머지 3개의 지선철도는 극히 일부지역만 접속하여 내륙지방의 철도여건이 미약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3-19> 철도시설 현황

(단위 : km, %)

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전 국		3,124.7	-
충 남		268.1	-
전 국 대 비		8.6	-
경 부 선	성 환 ~ 매 포	60.1	복 선
호 남 선	두 계 ~ 강 경	30.1	복 선
장 향 선	모 산 ~ 장 향	143.1	단 선
강 경 선	채 운 ~ 연무대	9.0	단 선
충 북 선	조치원 ~ 봉 양	4.4	단 선
서 천 화 력 선	간 치 ~ 동백정	17.1	단 선
남 포 선	남 포 ~ 옥 마	4.3	단 선

자료 : 대전지방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99.

3) 항만시설

충남의 항만시설은 보령항, 대산항, 장항항, 아산항, 태안항 등 무역항 5개소와 국내 연안을 오가는 화물선, 여객선, 어선의 입출항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연안항은 보령시 대천항과 서천군 비인항 2개소로 접안능력은 전국 항만(584선석)의 4.3%인 25선석이며, 하역능력은 전국 357,351천톤/년의 11.1%인 39,814천톤/년이다.

<표3-20>항만시설 현황

구 분		항만지정일	항 내 수 면적(km ²)	수심 (m)	유속 (N/S)	조위차 (m)	접안능력	하역능력 (천톤/년)
무 역 항	계	-	439.70	-	-	-	25선석	39,814
	보령신항	'83. 8.30	47.00	14~28	1.4~2.0	7.8	2선석	9,715
	대 산 항	'91.10.14	62.00	11~40	3.2~4.4	9.2	16선석	21,735
	장 향 항	'68. 1. 4	1.10	2~9	1.6	7.0	2선석	660
	아 산 항	'86.12. 5	320.00	1~14	1.5	8.1	4선석	2,229
	태 안 항	'98. 2.24	9.60	18~19	3.0~4.0	5.2~7.0	1선석	5,475
연 안 항	계	-	8.43	-	-	-	465척	196
	대 천 항	'68. 1. 4	0.43	1~10	1.4~2.0	7.9	392척	196
	비 인 항	'68. 1. 4	8.00	18~19	2.0~8.0	7.1	73척	-

자료 :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2000.

그 동안 산업단지 및 발전소 전용항만 위주로 개발되어 일반화물처리를 위한 공

용항만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단지가 조성된 대산항 및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 태안, 당진항은 유류 및 유연탄 전용항만으로 컨테이너, 철재 등을 위한 일반화물부두가 없어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물 등이 도로를 이용하여 외국 또는 타 지역으로 운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은 남북간 연결에 비하여 동서간의 간선 교통망 구축이 절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이 전무한 상태이고, 충남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가 없어 지역간 접근성이 낮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심도시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서북부 신산업지대의 아산, 석문, 인주, 대죽, 천흥, 천안 제3산업단지 등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물동량과 이들 신산업지대가 유발하는 여객 수송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며,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철도건설 2건(포승~평택간 27km, 포승~수인선간 43km)이 산업단지 규모와 인구증가 규모에서 각각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0.39, 0.47배에 지나지 않는 경기 남부지역에 모두 계획되어 있어 충남 지역의 물동량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서해대교의 교통혼잡에 따른 고속도로의 용량저하 뿐 아니라 혼잡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가문화의 발달을 가져와 향후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면도 국제관광지 등 충남 서해안권에 대한 관광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관광수요를 육상교통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철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충남 항만의 접안능력은 전국 대비 3.9%, 접안시설은 2.4%, 안벽시설은 1.5%에 불과하고 항만에서 처리되는 총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7.7%를 차지하며 하역능력 점유율은 6.7%로 나타나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수도권과의 과밀로 인한 산업기능을 수요할 대안지로 부상됨에 따라 신산업지대 형성과 대중국과 가장 근접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항만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절 관광자원

1. 자연관광자원

충남에는 자연공원,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 자연경관자원이 풍부하다. 자연공원으로는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비롯해 6개소가 있으며, 아산시 온천과 보령해수욕장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계룡산, 대천해수욕장, 백마강,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 예당저수지, 안면도 송림휴양림 그리고 삼교호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명소에 포함된다.

<표3-21> 자연관광자원 현황

구 분	관광자원
자연공원	계룡산, 태안해안국립공원,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고북저수지국립공원
지정관광지	대천해수욕장, 구두레, 신정호, 삼교호, 태조산, 예당저수지,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각원사,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립공원, 천안온천, 마곡온천,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2. 역사문화관광자원

역사·문화관광자원은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전통가옥 등 사회, 문화, 환경적 자산과 인공·자연적 관광명소를 포함한다. 지정문화재는 1999년 현재 전국에 총 8,124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충남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81점, 지방문화재 298점, 기타 277점으로 전국의 9.3%인 총 756점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충남을 대표할만한 문화자원으로는 지정문화재인 아산 외암전통마을을 비롯하여 계룡산 도예촌, 추사 김정희 고택, 한산 모시마을, 맹사성 고택, 한용운 선생 생가지, 이상재선생 생가, 김좌진장군 생가지가 있고, 천안시의 독립기념관, 국립공주박물관, 서산시의 해미읍성, 정림사지 5층석탑, 현충사, 마애삼존불, 관촉사, 칠백의총, 비암사 등 시군별로 문화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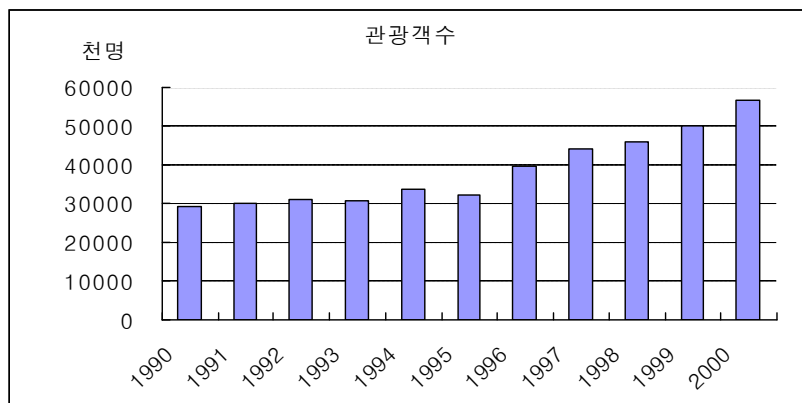
<표3-22> 전통마을 현황

구 분	민속마을	소재지
지정문화재 전통마을	아산 외암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기타 전통마을	계룡산 도예촌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추사 김정희 고택	예산군 산암면 용궁리
	한산 모시마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맹사성 고택	아산시 배방면 중리
	김좌진장군 생가지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한용운선생 생가지	홍성군 성곡리
	이상재선생 생가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통민속마을 관광상품화 방안, 1998.

충남의 관광객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 29,274천명에서 2000년 567,960천명으로 연평균 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4,173천명과 6,785천명이 늘어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해수욕장 관광객수는 20,615천명으로 총 관광객수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보령시가 27.4%, 태안군이 17.2%, 아산시가 12.0%로 세 지역에서 총 관광객수의 5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산군(9.7%), 공주시(6.0%), 서천군(5.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3] 충남의 관광객수 변화추이(1990~2000)



제4장 지역의 유형화와 경제성장잠재력 분석

제1절 지역의 유형화

1. 유형화 방법

지역의 유형은 연구자의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기능적 연계성, 행정 및 정치단위에 근거한 지역구분, 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따른 구분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Boudeville(1968)은 지역을 다음과 같이 동일지역 또는 동질지역, 결절지역 또는 극화지역, 그리고 계획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질지역은 2개 이상의 공간단위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통합된 공간단위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하며,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방법으로는 지역단위별 실업률, 1인당 소득, 산업성장 지표를 정책목표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문제지역을 구분하는 가중 지표방식과 여러 변수들로부터 공통변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몇 개의 기본적인 변인 또는 요인을 찾아내어 지역을 구분하는 요인분석방법이 있다. 결절지역은 중심거점과 주변의 거점지역간 생산, 소비 및 각종 사회활동에 있어서 밀접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범위를 말한다. 계획지역은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자원활용 등 특정한 목적을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된 연속된 공간을 의미한다.

Klaassen(1987)은 지역을 인구와 소득수준의 성장률 기준으로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번영지역, 성장중인 저발전지역, 잠재적 저발전지역, 그리고 저발전지역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Hansen(1968)은 직접생산활동, 직접생산활동을 지원하거나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제간접자본,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등 세 가지 종류의 자본을 기준으로 지역을 과밀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분야별, 자연·지리적 여건, 정주생활권, 삶의 질 등 다양한 기준으로 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분야별로 공간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증가율을 이

용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정태적인 분석과 동태적인 분석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생활권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학·통근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지역별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들을 유형화하였고⁸⁾,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낙후지역 선정을 위해 발표한 8개의 지표의 자료를 수집 표준화하여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사용 AHP 분석기법을 통해 종합점수화하였다.

2. 분야별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시·군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지역의 정태적인 상황과 동태적인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부문별 규모와 성장률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4-1> 지역유형화 기준

규모 \ 성장률	하(<M - 0.5σ)	중(M ± 0.5σ)	상(>M + 0.5σ)
상(>M + 0.5σ)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중(M ± 0.5σ)	IV 유형	V 유형	VI 유형
하(<M - 0.5σ)	VII 유형	VIII 유형	IX 유형

주 : M은 평균, σ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1) 인구규모

전국의 241개 시·군·구를 2000년의 인구규모와 1995~200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충남의 대부분의 시·군은 중규모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나 증가율에서 가장 높은 III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11개, 인천이 3개 시·군·구로 나타난 반면 인구규모도 작고 감소율이 높은 VII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전남이 11개, 강원이 9개, 경남이 7개 시·군·구로 나타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송두범(1998)의 분석을 인용하였음.

<표4-2> 인구부분의 유형

증가율 규모	-0.69% 이하	-0.69% ~ 1.57%	1.57% 이상
264,718명 이상	경기(2) 대구(2) 부산(4) 서울(10) 인천(1) 전남(1)	경기(2) 경남(3) 경북(2) 주(1) 대구(2) 부산(3) 서울(12) 인천(1) 전남(1) 전북(3)	강원(1) 경기(11) 경남(1) 경북(1) 광주(1) 대구(1) 대전(1) 부산(1) 인천(3) 전북(1) 제주(1) 충북(1) 충남(천안시)
56,670명 ~ 264,718명	강원(1) 경기(1) 경남(4) 경북(4) 광주(2) 대구(2) 대전(2) 부산(6) 서울(2) 인천(2) 전남(6) 전북(5) 제주(1) 충북(1) 충남(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논산시)	강원(5) 경기(8) 경남(5) 경북(5) 부산(1) 서울(1) 인천(1) 전남(1) 전북(1) 제주(2) 충북(6) 충남(예산군, 연기군, 공주시, 당진군, 태안군, 서산시)	경기(12) 경남(2) 경북(2) 광주(1) 대구(1) 대전(2) 인천(1) 전남(3) 충북(1) 충남(아산시)
56,670명 이하	강원(9) 경기(1) 경남(7) 경북(7) 부산(1) 전남(10) 전북(5) 충남(청양군)	강원(2) 경기(1) 경북(2) 인천(1)	경북(1) 충남(계룡출장소)

충남의 15개 시·군과 계룡출장소 중에 천안시는 III유형에 속해 인구규모도 크고, 증가율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순전입인구⁹⁾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순전입인구는 1995년 12,644명에서 2000년에는 13,68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순전입인구 중 충남이 4,751명, 경기도가 2,607명, 서울이 1,195명, 대전이 772명 순으로 나타나 순전입인구의 37.6%가 지역내 인구이동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아산시는 인구규모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인구가 전국 타 시·군·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2000년 현재 순전입인구는 1,044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75명, 인천이 273명, 전남이 149명, 서울이 157명으로 나타난 반면 충남은 -509명으로 나타나 타 시도로부터의 인구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출장소는 소규모의 인구를 갖고있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예산군, 연기군, 공주시, 태안군, 서산시는 인구규모나 증가율에 있어서 전국 평균수준을 나타내는 V유형에 속하나 태안군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논산시는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인구감소율이 타 시·군·구에 비해 높은 IV유형에 속하고 있으며, 보령시의 인구는 서울과 대전으로, 서천군은 서울, 대전과 전북으로,

9) 순전입인구 = 전입인구 - 전출인구

10) 부록 참조

부여군은 대전, 서울과 지역내로, 금산군은 대전으로, 홍성군은 서울, 경기, 지역내, 대전으로, 논산시는 대전, 서울과 경기로의 인구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인구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감소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VII유형에 속하였으며 경기, 대전과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충남의 지역별 인구변화

(단위 : 명, %)

구 분	1995	2000	증가율
천안시	330,259	417,835	4.82
공주시	131,229	130,376	-0.13
보령시	122,604	109,535	-2.23
아산시	154,663	180,763	3.17
서산시	134,746	143,154	1.22
금산군	63,499	57,929	-1.82
연기군	80,843	80,031	-0.20
논산군	146,619	137,452	-1.28
부여군	94,304	83,687	-2.36
서천군	79,510	66,929	-3.39
청양군	40,441	38,601	-0.93
홍성군	98,210	90,658	-1.59
예산군	100,143	97,669	-0.50
태안군	62,566	65,928	1.05
당진군	111,723	117,652	1.04
계통	15,495	27,122	11.85

자료 :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각년도.

2) 교육별 인구

앞으로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인적자원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이다. 충남의 지역별 교육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5~2000년 사이의 6세 이상의 인구대비 대졸이상 인구구성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 계통출장소가 III유형에 속하였으며, 대졸이상의 인구구성비와 증가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태안군은 VI유형에 속하여 구성비는 전국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구성비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당진군

은 V유형에 속해 구성비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기군과 논산시는 구성비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증가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출장소(29.20%), 천안시(16.31%), 서산시(10.76%), 아산시(10.50%) 순으로 대졸이상 인구구성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1995~2000년 사이에 대졸이상 인구구성비의 증가속도는 금산군(29.89%), 계룡출장소(14.21%), 태안군(12.74%), 아산시(11.12%), 천안시(10.36%) 순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지역별 교육정도별 유형

구 분	1.32% 이하	1.32% ~ 9.63%	9.63% 이상
16.87% 이상	경기(3) 광주(1) 대구(1) 부산(3) 서울(3) 인천(1)	강원(1) 경기(6) 경남(1) 경북(2) 광주(1) 대구(3) 대전(5) 부산(2) 서울(19) 인천(1) 전북(2) 충북(2)	경기(4) 경북(1) 광주(2) 대구(1) 부산(1) 충남(계룡출장소)
5.07% ~ 16.87%	강원(2) 경기(1) 경남(2) 대구(1) 부산(3) 서울(2) 인천(1) 충남(연기군, 논산시)	강원(15) 경기(11) 경남(17) 경북(17) 광주(1) 대구(1) 부산(7) 서울(2) 인천(7) 전남(17) 전북(11) 제주(2) 충북(10) 충남(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경기(13) 경남(2) 경북(4) 대구(1) 전남(2) 전북(1) 제주(1) 충북(2) 충남(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태안군)
5.07% 이하	전남(1)	전남(2) 전북(2)	-

<표4-5> 충남 지역별 대졸이상 인구구성비 변화

(단위 : %)

구 분	1995	2000	연평균 증가율
천안시	12.59	16.31	10.36
공주시	7.12	9.81	6.50
보령시	5.82	8.33	4.91
아산시	7.09	10.50	11.12
서산시	8.00	10.76	7.38
금산군	4.71	8.17	29.89
연기군	6.44	6.66	-5.67
논산군	5.87	8.81	-4.07
부여군	4.19	5.48	3.06
서천군	5.50	7.21	1.94
청양군	4.07	6.06	7.21
홍성군	6.39	9.00	5.43
예산군	6.61	9.02	5.88
태안군	4.08	7.11	12.74
당진군	5.60	8.34	9.27
계 룡	26.15	29.20	14.21

3) 광공업종사자

광공업종사자에 대한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도의 157개 시·군과 1990~1995년 사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 아산시가 Ⅲ유형에 속해 광공업종사자 규모나 증가율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천안시는 Ⅱ유형에 속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증가속도는 전국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 당진군,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은 Ⅵ유형에 속해 광공업종사자 규모면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연기군, 예산군은 규모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수준인 반면 보령시는 광공업종사자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과 청양군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태안군은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광공업종사자 유형화

구 분	-0.87%이하	-0.87%~9.37%	9.37%이상
23,242명 이상	경기(4) 경남(2)	경기(9) 경남(3) 경북(3) 전북(1) 충남(천안시)	경기(1) 경남(1) 충남(아산시)
1,728명~2 3,242명	강원(7) 경기(9) 경남(2) 경북(1) 전남(4) 전북(1) 충북(1) 충남(보령시)	강원(2) 경기(5) 경남(2) 경북(7) 전남(8) 전북(3) 충북(5) 충남(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연기군, 예산군)	경남(5) 경북(4) 전남(3) 전북(2) 충북(4) 충남(금산군, 당진군,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1,728명 이하	강원(2) 경기(4) 경북(1) 전남(4) 전북(1) 충남(태안군)	강원(4) 경북(3) 전남(3) 전북(4)	강원(3) 경남(2) 경북(4) 전남(1) 전북(2) 충남(청양군)

4) 재정규모

지역별 재정규모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8년 재정규모와 1995~1998년 사이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가 Ⅲ유형에 속해 규모나 증가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서산시는 Ⅱ유형에 속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증가속도는 전국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의 나머지 시·군은 규모나 증가속도에서 전국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천안시(19.7%), 논산시(17.8%), 예산군(17.1%), 홍성군(15.9%), 서천군(15.8%), 금산군(15.7%), 부여군(15.3%), 서산시(15.3%) 순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95.6%이나 광역시는 69.1%, 도는 34.6%, 시는 47.5%, 군은 19.1%, 자치구는 4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2.1%이나, 비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 63.9%보다 무려 18.2%포인트 상회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197개(80.0%)나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요소를 충족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재정규모의 유형화

구 분	3.1% 이하	3.1% ~ 18.3%	18.3% 이상
154,552 백만원 이상	-	강원(2), 경기(6), 경남(3), 경북(7), 전남(1) (1) 전북(4), 제주(1), 충북(2) 충남(아산시, 서산시)	강원(1) 경기(5) 경남(1) 전북(1) 제주(1) 충북(2) 충남(천안시)
41,365 백만원 ~ 154,552 백만원	경기(1) 대구(1) 대전(2) 부산(5) 인천(2)	강원(10) 경기(14) 경남(15) 경북(12) 광주(4) 대구(7) 대전(3) 부산(8) 서울(14) 인 천(6) 전남(22) 전북(10) 제주(1) 충북 (7)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 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 군)	강원(5) 경기(5) 경북(3) 광주(1) 부산(2) 서울(10) 인천(2) 전남(1) 전북(1) 제주(1)
41,365 백만원 이하	-	-	-

또한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 구성의 불균형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재원구성에 있어서 지방세가 85.0%를 차지하나, 광역시는 64.8%에 불과하며, 시, 도는 더욱 낮은 26.5%, 36.6%에 불과하여 세수 자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총액의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계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재정 건전성 제고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남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5%로 전국 도평균 34.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계는 32.5%, 군계는 2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천안시(52.4%), 아산시(34.8%), 연기군

(34.3%), 서산시(32.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청양군이 1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4-8> 충남의 시·군별 재정자립도(2001)

(단위 : %)

합 계	30.5	공 주	19.0	군 계	20.8	청 양	12.6
도 본 청	24.4	보 령	19.6	금 산	16.8	홍 성	17.8
시 · 군 계	26.7	아 산	34.8	연 기	34.3	예 산	19.8
시 계	32.5	서 산	32.0	부 여	16.9	태 안	22.9
천 안	52.4	논 산	23.6	서 천	18.1	당 진	30.4

자료 :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2.

<표4-9>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01)

(단위 : %)

구 분	시도별(평균)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서 울	95.6	94.7	-	-	-	54.5
부 산	69.5	66.1	-	-	40.9	39.6
대 구	69.0	64.9	-	-	44.2	40.5
인 천	74.2	73.1	-	-	22.8	39.3
광 주	61.5	56.7	-	-	-	31.3
대 전	73.5	69.3	-	-	-	32.9
울 산	67.1	60.8	-	-	58.5	47.0
경 기	76.5	-	70.1	73.5	35.9	-
강 원	26.9	-	22.1	29.9	17.9	-
충 북	32.8	-	26.1	43.8	21.2	-
충 남	28.4	-	22.4	29.8	20.0	-
전 북	26.3	-	17.5	32.1	15.4	-
전 남	20.4	-	13.7	29.7	12.2	-
경 북	30.0	-	23.3	33.7	18.1	-
경 남	35.9	-	29.6	42.2	15.9	-
제 주	33.8	-	30.4	34.5	20.0	-
단체별 평균	54.6	79.8	34.6	47.5	19.1	46.0

자료 :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2.

5) 면적당 도로연장

지역별 사회간접시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8년 면적당 도로연장과 1995~1998년 사이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규모면에서 상위그룹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가 포함되었으며, 도지역으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지역만이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III유형에 포함되어 이 지역 도로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모면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VI유형에 속해 규모면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IX유형에 속해 규모는 작으나 도로시설의 빠르게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연기군,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은 규모나 성장속도에서 전국 평균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산군과 청양군은 규모나 성장속도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 도로시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10> 면적당 도로연장 유형화

구 분	1.36% 이하	1.36% ~ 9.40%	9.40% 이상
5.97km/km ² 이상	경기(1) 부산(7) 서울(23) 인천(1)	광주(1) 대구(4) 부산(2) 서울(2) 인천(1)	경기(2) 인천(2)
0.97km/km ² ~ 5.97km/km ²	경기(1) 경북(1) 광주(3) 대구(1) 부산(2) 충북(1)	경기(5) 경남(7) 광주(1) 대구(2) 대전(2) 부산(3) 인천(1) 전남(2) 전북(2) 제주(3)	강원(1) 경기(6) 경남(4) 인천(2) 전남(1) 충북(1) 충남(아산시, 천안시)
0.97km/km ² 이하	강원(4) 경기(3) 경북(1) 인천(1) 전남(4) 전북(3) 제주(1) 충북(1) 충남(예산군, 청양군)	강원(12) 경기(8) 경남(7) 경북(19) 부산(2) 전남(13) 전북(9) 충북(7) 충남(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태안군, 홍성군)	강원(1) 경기(5) 경남(2) 경북(2) 대구(1) 전남(2) 충북(1) 충남(서산시)

3. 지역사회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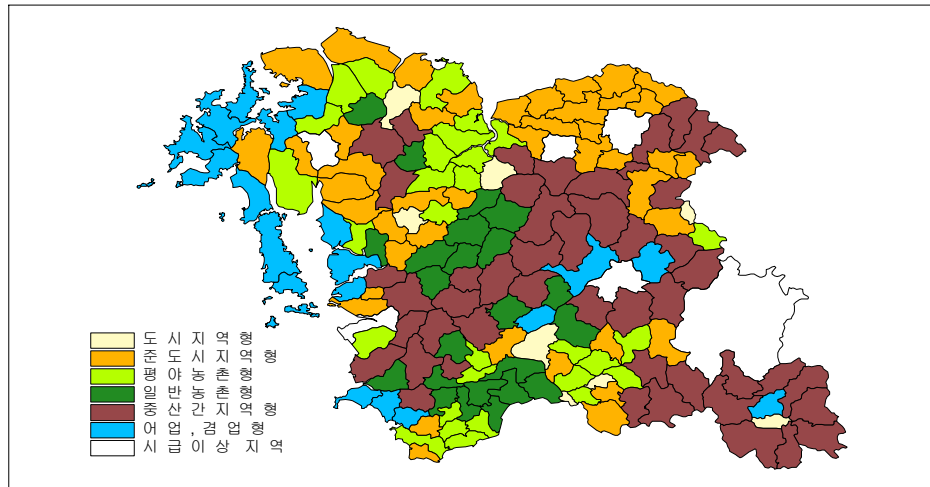
충남의 지역사회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송두범(1998)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¹¹⁾ 그는 충남의 지역사회를 6개 유형 즉, 도시지역형, 준도시지역형, 평야농촌형, 일반농촌형, 중산간 지역형, 어업·겸업형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지역형은 과거부터 농촌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온 소도읍들로 8개 지역이 포함된다. 준도시지역형은 북부 신산업지대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남부 대전광역시 대도시권에 속해 있는 지역들로 43개 읍·면이 포함되어 있다. 평야농촌형에는 금강과 삼교천 주변의 평야지역들이 해당되며 28개 읍·면이 속해 있다. 일반농촌형에는 중산간 지역형과 평야농촌형의 접이지대에 위치한 면 지역들로 23개 면이 포함된다. 중산간 지역형에는 차령산맥줄기를 따라 입지하고 있는 읍·면들과 대전광역시 대도시권 주변에 위치한 49개 읍·면들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어업·겸업형에는 태안반도 및 해안선을 따라 입지한 읍·면들과 내륙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19개의 지역이 포함된다.

시·군별 분포패턴을 보면 도시지역형은 대부분 군 지역의 군청소재지 읍이 해당되고 준도시지역형은 수도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아산시 8개 읍·면(18.6%), 천안시 7개 읍·면(16.3%)을 중심으로 서산시와 홍성군이 각각 5개 읍·면(11.6%)씩 분포하고 있다. 평야농촌형은 논산·서천·당진군이 각각 5개 면(17.9%), 예산군 4개 면(14.3%), 부여군 3개 면(10.7%)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농촌형은 부여군 7개 면(30.4%), 청양군 5개 면(21.7%)이 분포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형은 공주시와 금산군이 각각 8개 읍면(16.3%)씩 분포하고 있으며, 청양군도 4개 면(8.2%)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어업·겸업형은 태안군 7개 읍·면(36.8%), 서천군 3개 면(15.8%) 등 주로 해안에 입지한 읍·면들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11) 농촌지역사회의 유형은 앞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170개 읍·면의 4개 요인점수를 변수로 하여 Ward법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하였다.

[그림4-1] 충청남도 농촌지역사회 유형 구분도



<표4-11> 읍·면 단위 농촌지역사회 유형별 분포

(단위: km², %)

구 분	도 시 지역형	준도시 지역형	평 야 농촌형	일 반 농촌형	중산간 지역형	어 업· 검업형
충청남도	8(100.0)	43(100.0)	28(100.0)	23(100.0)	49(100.0)	19(100.0)
천안시		7(16.3)			4(8.2)	
공주시				1(4.3)	8(16.3)	2(10.5)
보령시		2(4.7)	1(3.6)	1(4.3)	5(10.2)	2(10.5)
아산시		8(18.6)	1(3.6)		2(4.1)	
서산시		5(11.6)	1(3.6)		2(4.1)	2(10.5)
금산군	1(12.5)				8(16.3)	1(5.3)
연기군	1(12.5)	2(4.7)	1(3.6)		4(8.2)	
논산군	2(25.0)	4(9.3)	5(17.9)		4(8.2)	
부여군	1(12.5)	2(4.7)	3(10.7)	7(30.4)	3(6.1)	
서천군		2(4.7)	5(17.9)	2(8.7)	1(2.0)	3(15.8)
청양군				5(21.7)	4(8.2)	1(5.3)
홍성군	1(12.5)	5(11.6)	2(7.1)	2(8.7)		1(5.3)
예산군	1(12.5)	1(2.3)	4(14.3)	4(17.4)	2(4.1)	
태안군		1(2.3)				7(36.8)
당진군	1(12.5)	4(9.3)	5(17.9)	1(4.3)	1(2.0)	

자료 : 송두범, 지역사회 단위별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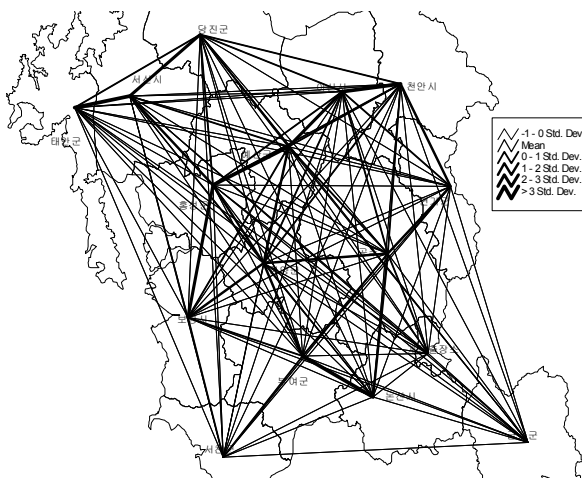
4. 정주생활권

충남으로의 총 통학자수는 2000년 현재 264,642명이며, 그 중 46,941명은 타 시·도로부터 충남지역으로 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공주시는 각각 통학자 39.6%, 30.0%, 24.5%, 14.4%가 타 시도로부터 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들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수도권의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통근행태를 보면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출장소(17.4%), 연기군(9.5%), 금산군(5.9%), 천안시(5.6%) 순으로 외부로 통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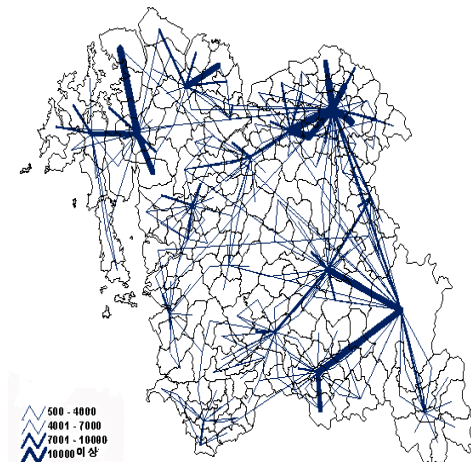
충남의 시·군은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주변의 중대도시의 영향력 확대로 도내 시·군생활권의 자족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당진·서산은 수도권, 공주·논산·금산·연기는 대전광역시, 조치원은 청주시, 서천은 군산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차의 상업서비스기능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용품 구매의 경우는 개별 시·군중심지가 50~70%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가전제품의 구매와 병원시설 이용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와 천안시의 영향권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림4-2] 생활권

통학통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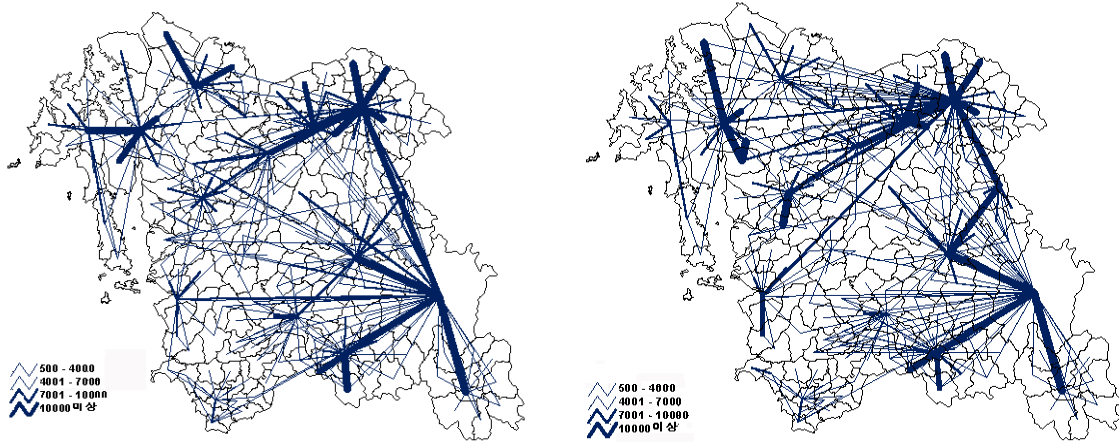


일상용품구매권



가전제품 구매권

병원시설 이용권



지역생활권은 중심도시와 주변 배후지역을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그 권역 내의 생산·생활·문화·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개발권역인 동시에 거주민의 생활편익시설 공동이용권역을 의미하며, 충남지역의 정주생활권을 구분할 경우 대전근교권,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 남부해안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부내륙권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북부해안권은 서산, 당진, 태안을 포함하고 서산시가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약하며, 중부권은 홍성, 예산, 청양으로 구성되어 농업중심지역으로 홍성읍이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타 생활권의 중심도시에 비하여 약한 편이다. 공주, 논산, 금산, 연기를 포함하는 대전근교권과 보령, 서천, 부여를 포함하는 남부해안권은 생활권이 주변지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 통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표4-12> 지역생활권

권역명	도시계층			해당 시·군
	광역중심	지역생활중심	기초생활중심	
대전근교권	(대전)	공주, 논산, 금산, 조치원	계룡, 추부	공주, 논산, 금산, 연기 (계룡 포함)
북부내륙권	천안	아산(온양)	염치, 성환	천안, 아산
북부해안권	서산	태안, 당진	안면, 대산	서산, 당진, 태안
중부권	홍성	예산, 청양	삼교, 광천	홍성, 예산, 청양
남부해안권	보령	부여, 장항	서천, 웅천	보령, 서천, 부여

자료 : 충청남도,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 2000.

5. 삶의 질(낙후도지수)

1) 분석방법

충남의 지역별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선정된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표준화점수기법을 이용하여 전국 23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낙후도지수를 산정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44개 변수를 인구·주택, 산업, 지역기반시설, 교통·정보·통신, 금융, 보건·사회보장, 교육·문화, 행·재정·기타 등 8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시·군별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지표들을 1차로 제거한 후 직관적인 지역낙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변수들을 2차로 제거하여 23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3개 지표 가운데 대표성, 비교객관성, 단순명확성, 개선잠재력, 국토의 균형적 분산의 기여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와 같은 8개의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소 및 교수집단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모집단에는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KDI 연구책임자, 그리고 지역정책과 관련된 한국정책학회 회원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소 및 교수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AHP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중치분석결과는 상위계층에서는 경제(54.5%), 기반시설(32.2%), 인구(13.3%)의 순서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고, 8개 지표별로는 재정자립도(29.1%), 도시적 토지이용율(14.2%), 제조업종사자비율(13.1%), 승용차등록대수(12.4%), 도로율(11.7%), 인구증가율(8.9%), 의사수(6.3%), 노령화지수(4.4%)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13> 낙후도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부 문	지표항목	측정방법	자료출처	비 고
인 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기존
산 업	제조업 종사자비율	$(\text{제조업종사자수} / \text{인구}) \times 100$	각 시도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기존
지역 기반시설	도로율	$(\text{법정도로연장} / \text{행정구역면적}) \times 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기존
교 통	자동차 보유가구수 비율	$(\text{자동차보유가구수} / \text{총가구수}) \times 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보건사회 보장	인구당 의사수	$(\text{의사수} / \text{인구}) \times 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노령화지수	$(65\text{세 이상} / \text{인구}) \times 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신규
행재정기타	재정자립도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times 100$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기존
	도시적토지이용비율	$\text{지목상(대지} + \text{공장용지} + \text{학교용지}) / \text{행정구역면적} \times 100$	지방행정정보은행	신규

2) 분석결과

전국 235개 시·군·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경기의 6개 시 9개 구 1개 군, 부산의 1개 구, 서울의 8개 구, 인천의 1개 구, 충북의 1개 구가 1순위 그룹에 속해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 1개 군, 경남의 4개 군, 경북의 4개 군, 경북의 5개 군, 전남의 11개 군, 전북의 4개 군, 충북의 1개 군은 9순위 그룹에 속하여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천안시가 3순위 상위그룹에 속해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아산시와 계룡출장소가 4순위, 서산시, 당진군, 연기군이 5순위, 예산군이 6순위의 중위그룹에 속하였고,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태안군은 7순위, 금산군, 청양군, 부여군은 8순위로 하위그룹에 속하였다.

충남지역내에서는 천안시, 계룡출장소,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논산시, 공주시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등은 매후 낙후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천안시와 계룡출장소는 제조업 중

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출장소, 태안군, 공주시, 보령시는 제조업 종사자비율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은 자동차보유가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14> 낙후도지수에 의한 지역유형화

순 위		낙후도
상	I	경기(6시,9구,1군), 부산(1구), 서울(8구), 인천(1구), 충북(1구)
	II	경기(5시,2구,2군), 경남(3시), 대구(1구), 부산(2구), 서울(13구), 충북(1구)
	III	경기(5시,1군), 경북(1시,1군), 광주(1구), 대구(2구), 대전(3구), 부산(4구), 서울(4구), 인천(3구), 충남(천안시)
중	IV	강원(1시), 경기(2시), 경남(2구,2시), 경북(2구), 광주(1구), 대구(3구), 대전(1구), 부산(3구), 서울(1구), 인천(2구), 전남(1시), 전북(1군), 제주(1시), 충남(아산시, 계룡출장소)
	V	강원(2시), 경기(2시, 1군), 경남(1시), 경북(1시), 광주(2구), 대구(1구), 부산(4구,1군), 서울(2구), 전남(1시), 전북(3시,1구), 충남(서산시,당진군,연기군), 충북(1군)
	VI	강원(2시,2군), 경기(2군), 경남(1시,1군), 경북(2시,1군), 광주(1구), 대전(1구), 부산(1구), 전남(2시,1군), 전북(1구), 제주(1시,1군), 충남(예산군), 충북(2시,1군,1출장소)
하	VII	강원(2시,4군), 경기(1군), 경남(2시,2군), 경북(3시,2군), 전남(1군), 전북(1시,1군), 제주(1군), 충남(보령시,공주시,논산시,홍성군,태안군), 충북(1군)
	VIII	강원(4군), 경남(3군), 경북(1시,4군), 전남(1시,4군), 전북(1시,2군), 충남(금산군,청양군,서천군,부여군), 충북(2군)
	IX	강원(1군), 경남(4군), 경북(4군), 경북(5군), 전남(11군), 전북(4군), 충북(1군)

청양군, 금산군, 홍성군, 부여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고령화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금산군, 태안군, 공주시, 보령시는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은 의사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금산군,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은 면적당 도로연장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4-15> 충청남도 지역별 낙후도

구 분	인구 증가율 (%)		제조업 종사자율 (%)		자동차보 유가구율 (%)		재정 자립도 (%)		고령자 비율 (%)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천명당 의사비율		면적당 도로연장 (km/km ²)		낙후도	
																		순 위
천안시	7.08	2	2.60	12	67.10	2	52.40	1	6.18	2	5.93	1	1.84	1	143.45	1	0.34	1
공주시	1.27	7	1.41	14	51.32	8	19.00	11	13.50	8	2.20	14	0.82	2	71.97	6	-0.48	10
보령시	-0.84	14	2.43	13	51.05	10	19.60	10	12.75	5	2.70	13	0.66	5	57.06	12	-0.53	12
아산시	4.77	3	26.03	1	60.34	4	34.80	2	9.80	3	5.08	3	0.57	10	102.35	2	0.15	3
서산시	3.13	4	3.13	10	60.30	5	32.00	4	10.78	4	2.88	11	0.62	7	52.09	14	-0.18	6
논산시	0.08	11	4.64	5	47.81	12	23.60	6	14.27	10	4.01	5	0.71	3	75.54	4	-0.44	9
금산군	-0.71	13	4.16	7	42.64	15	16.80	15	17.51	13	1.70	16	0.65	6	50.00	16	-0.61	16
연기군	1.25	8	19.00	2	52.47	7	34.30	3	12.98	6	4.05	4	0.54	11	61.13	8	-0.10	4
부여군	-1.12	15	3.69	9	43.55	14	16.90	14	18.79	14	2.81	12	0.60	8	57.81	10	-0.60	13
서천군	-2.24	16	3.87	8	43.55	13	18.10	12	19.68	15	3.82	7	0.36	14	87.51	3	-0.60	14
청양군	0.23	10	2.70	11	41.81	16	12.60	16	20.46	16	5.79	2	0.58	9	62.97	7	-0.61	15
홍성군	-0.26	12	6.46	4	50.32	11	17.80	13	15.22	11	3.28	9	0.28	15	60.64	9	-0.50	11
예산군	0.77	9	4.47	6	56.25	6	19.80	9	15.31	12	3.05	10	0.28	16	51.74	15	-0.41	7
태안군	2.30	6	0.61	15	51.28	9	22.90	8	13.87	9	2.07	15	0.46	13	57.39	11	-0.43	8
당진군	2.57	5	10.09	3	60.51	3	30.40	5	13.46	7	3.49	8	0.50	12	55.57	13	-0.12	5
계 룡	14.21	1	0.29	16	80.06	1	23.60	7	4.52	1	4.01	6	0.71	4	75.54	5	0.15	2

제2절 지역별 경제성장잠재력 분석

1. 지역 경제성장잠재력 분석방법

지역개발은 지역 또는 지방이라는 국지적 공간단위에 있어서의 지역주민의 거주생활과 사회활동에 관련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 등의 제반 여건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과 행위를 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은 지역에 따라 기존의 자연자원, 시설과 자본, 산업구조, 인구 및 노동력의 양과 질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속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야 하며, 지역특성에 부응한 최적의 방향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바로 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근거로서의 지역특성을 뜻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육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명하는 일이야말로 지역개발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제이자 첩경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성장잠재력을 측정·분석하는 기법은 하나의 정형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활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의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Ogive기법과 국가경제평균접근법을 사용하고, 동시에 지역경제의 상대적인 능력 또는 동인을 구명코자 할 때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인 입지상계수법과 변화·할당분석법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입지상계수법은 상대적인 집중도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변화·할당분석법은 성장 또는 변화된 증감분에 국가와 산업 및 지역의 각각이 기여한 몫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2. 산업구조의 다양성 및 특화산업

1) 분석방법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략의 한가지는 지역별로 특성 있는 지역의 주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지역별로 한정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역에 내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한 지역의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할 경우 즉, 단순형 구조를 가질 경우에는 주력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의 명암이 갈릴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도시로 근대화 과정을 이끌어왔던 대구와 부산이 각각 섬유와 신발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며, 1997년 한보와 기아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와 19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업의 사업교환 등이 당진군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소수의 주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성장 측면이나 국가적인 재원의 분배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수반된다.

여기서는 지역별 산업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시도산업별 취업자수와 충남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양성 측정방법으로는 Ogive법과 국가경제평균법(national average approach)를 사용하였으며, Ogive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된다.

$$O_j = \sum_{i=1}^n \frac{(\frac{e_{ij}}{e_j} - \frac{1}{n})^\rho}{\frac{1}{n}}$$

여기서 e_{ij} 는 j지역의 I산업의 고용자수, e_j 는 j지역의 총 고용자수, n은 산업의 수, $\rho=2$ 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각 산업별 고용자수와의 편차의 합을 나타내고, 한 지역내의 모든 산업이 균등한 비율로 배치되었을 경우를 이상적인 다양화상태라고 가정하며, 지수 값이 작을수록 그 지역의 산업구조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경제평균접근법에 의한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된다. 이 지수는 국가의 산업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가정하며, 절대값이 클수록 국가평균과 편차가 큰 것을 의미하며, 산업의 편중현상이 큰 것을 의미한다

$$N_j = \sum_{i=1}^n \frac{(\frac{e_{ij}}{e_j} - \frac{e_i}{e})^\rho}{\frac{e_i}{e}}$$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특화계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역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의 경제활동은 활발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산업의 특화계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산업특화계수}(LQ) = \frac{\text{지역의산업별구성비}}{\text{전국의산업별구성비}}$$

여기서 산업특화계수 $LQ > 1$, $LQ = 1$, $LQ < 1$ 이면, 지역 산업은 전국에 비해 특화, 전국평균수준, 비특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결과

Ogive법에 의해 구해진 다양성 지수를 보면, 대전의 산업구조가 가장 다양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1.05), 강원(1.12), 서울(1.26), 제주(1.48), 경기(1.57), 부산(1.57), 충북(1.68), 대구(1.70) 순으로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다양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3.29)은 다양화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산업의 편중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울산(2.75), 충남(2.62), 경북(2.51), 전북(1.99) 등은 전국 평균 1.83보다 높게 나타나 산업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평균접근법에 의한 다양화지수는 경기가 0.07로 국가경제의 산업구조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구(0.11), 인천(0.13), 광주(0.13), 부산(0.15), 충북(0.15), 대전(0.18), 서울(0.19) 순으로 국가경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남은 다양화지수가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0.53), 충남(0.52), 경북(0.44), 강원(0.37) 순으로 국가경제의 산업구조와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두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과 충남이 산업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특화계수 분석에 의하면, 두 지역 모두 농림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4-16> 시도 산업별 다양화지수

구 분	Ogive지수	국가경제평균접근법
서울	1.26	0.19
부산	1.57	0.15
대구	1.7	0.11
인천	1.97	0.13
광주	1.05	0.13
대전	1	0.18
울산	2.75	0.21
경기	1.57	0.07
강원	1.12	0.37
충북	1.68	0.15
충남	2.62	0.52
전북	1.99	0.36
전남	3.29	1.07
경북	2.51	0.44
경남	1.76	0.15
제주	1.48	0.53
평균	1.83	0.3

<표4-17> 시도별 산업특화계수(2000)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0.019	0.106	0.210	0.205	0.348	0.176	0.404	0.476	1.761	1.959	2.886	2.528	3.444	2.714	1.805	2.161
2	0.016	1.145	0.025	0.698	0.092	0.018	0.467	0.142	2.005	0.114	1.302	1.294	5.879	1.180	3.107	5.953
3	0.359	0.292	0.387	0.636	0.897	0.453	0.275	0.532	10.563	1.817	1.167	1.033	1.591	1.219	0.703	0.446
4	0.923	1.124	1.241	1.466	0.741	0.673	1.806	1.293	0.367	0.936	0.792	0.615	0.404	0.908	1.108	0.161
5	0.864	0.943	0.834	1.126	1.470	1.442	1.300	0.926	1.256	0.717	1.605	0.686	1.543	0.912	0.780	0.950
6	1.116	1.000	1.061	1.090	1.385	1.246	0.904	1.076	1.092	0.971	0.762	0.891	0.746	0.709	0.739	1.083
7	1.267	1.273	1.223	1.011	1.225	1.233	0.847	0.977	0.856	0.776	0.660	0.770	0.646	0.671	0.781	0.859
8	1.089	1.180	1.130	0.949	1.071	1.136	0.968	0.922	1.386	0.957	0.823	0.835	0.741	0.906	0.896	1.354
9	1.080	1.718	1.014	1.277	1.084	1.129	0.847	0.976	0.836	0.803	0.581	0.850	0.709	0.693	0.783	1.326
10	1.726	0.919	0.902	0.742	1.497	1.503	0.358	0.912	1.009	0.716	0.548	0.752	0.482	0.565	0.573	0.686
11	1.386	0.971	0.978	0.944	1.328	1.121	0.781	0.965	0.952	0.842	0.694	0.901	0.709	0.622	0.789	1.088
12	1.469	1.027	1.017	1.237	0.914	1.270	0.687	1.249	0.684	0.684	0.535	0.609	0.350	0.436	0.565	0.537
13	1.811	0.731	0.808	0.951	0.810	1.671	0.899	1.285	0.437	0.446	0.371	0.378	0.312	0.355	0.488	0.445
14	0.899	0.844	1.015	0.817	1.254	1.407	0.622	0.999	2.101	1.125	0.962	1.060	0.889	0.865	1.071	1.142
15	1.071	1.041	1.151	0.917	1.564	1.509	0.948	0.974	1.093	0.998	0.789	1.054	0.682	0.752	0.891	1.067
16	1.211	1.134	1.135	0.932	1.424	1.330	0.908	0.923	0.931	0.838	0.765	1.034	0.707	0.752	0.827	0.883
17	1.413	0.911	0.938	0.929	1.047	1.045	0.822	1.183	1.007	0.716	0.512	0.695	0.508	0.615	0.669	1.507
18	1.044	1.176	1.052	1.054	1.146	1.175	0.938	0.996	1.038	0.932	0.855	0.948	0.883	0.857	0.891	0.879
19	1.943	1.522	1.116	0.819	0.733	1.019	0.590	0.831	0.723	0.528	0.375	0.493	0.381	0.367	0.481	0.423
20	1.338	0.586	2.014	0.669	0.000	0.000	0.000	2.354	0.894	0.000	0.000	0.491	0.000	0.509	0.012	0.072

주 : 산업별 취업자를 기준으로 계산

<표4-18> 산업분류표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9. 운수업 10. 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 및 임대업 13. 사업서비스업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 교육서비스업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8.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9. 가사서비스업 20. 국제 및 외국기관

다음으로는 충남지역의 시·군별 산업의 다양화지수를 보면, Ogive법에 의한 다양화지수는 논산시가 7.12로 가장 높아 산업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시(6.36), 연기군(4.87), 천안시(4.35), 보령시(3.9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산업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홍성군(1.67), 부여군(1.82), 서천군(1.90), 청양군(2.06), 공주시(2.06)은 상대적으로 산업이 다양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평균접근법에 의한 다양화지수는 보령시(7.01), 논산시(5.21), 서산시(4.19), 서천군(2.64), 계룡(2.37)은 국가경제의 산업구조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진군(0.57), 연기군(0.58), 금산군(0.76), 부여군(0.77), 예산군(0.83)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회원단체, 광공업, 통신업, 금융업, 아산시는 광공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연기군은 회원단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통신업, 광공업, 천안시는 회원단체, 광공업,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보령시는 전기가스 및 증기업 등에 산업이 매우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9> 충남 시·군별 산업의 다양화 지수

구 분	Ogive지수	국가경제평균접근법
천안시	4.35	0.94
공주시	2.06	1.71
보령시	3.9	7.01
아산시	6.36	1.07
서산시	2.78	4.19
논산시	7.12	5.21
금산군	3.6	0.76
연기군	4.87	0.58
부여군	1.82	0.77
서천군	1.9	2.64
청양군	2.06	0.87
홍성군	1.67	1.27
예산군	2.08	0.83
태안군	2.07	1.12
당진군	2.4	0.57
계룡출장소	2.59	2.37
평 균	3.23	1.99

<표4-20> 충남 시·군 산업별 특화계수

구 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룡
1	0.59	1.36	0.73	0.82	1.79	0.72	1.56	0.48	6.69	1.50	5.13	1.44	3.02	3.12	3.21	0.00
2	1.50	0.75	0.52	1.98	0.68	1.54	0.82	1.33	0.66	0.79	0.87	0.44	0.78	0.31	0.95	0.37
3	0.35	0.00	10.31	0.00	2.17	0.55	0.86	0.75	0.00	0.00	0.00	0.98	0.00	0.00	1.77	1.15
4	0.00	1.9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	0.83	1.18	1.46	0.44	1.54	1.04	0.78	0.69	1.47	1.26	1.27	0.92	0.97	1.92	1.91	1.02
6	1.25	1.10	1.28	0.93	1.37	0.88	1.28	0.85	1.34	1.07	1.20	1.55	1.38	1.24	1.44	1.11
7	0.62	0.34	0.40	0.30	0.56	0.37	0.48	0.35	0.39	0.34	0.35	0.82	0.36	0.41	0.45	0.14
8	0.87	1.06	1.35	0.65	1.19	0.84	1.35	1.32	1.28	1.28	1.09	1.54	1.32	1.45	1.20	1.11
9	0.90	1.19	1.55	0.95	1.21	1.03	1.12	0.79	1.18	1.10	1.17	1.23	1.37	1.88	1.23	2.08
10	0.84	0.84	0.76	0.60	0.78	0.58	0.96	0.57	1.01	0.86	0.52	1.09	1.05	0.77	0.63	0.00
11	0.00	0.00	0.00	0.06	1.90	0.00	0.00	0.00	1.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	0.92	0.45	0.48	0.24	1.15	0.58	0.48	0.20	0.54	2.45	0.83	0.61	0.28	0.55	0.33	1.59
14	0.52	0.98	0.92	0.51	0.91	1.54	1.34	1.51	1.23	1.29	2.28	1.62	1.21	1.41	1.09	7.13
15	0.81	1.42	1.29	0.80	1.32	1.15	1.36	1.19	1.20	1.30	1.42	1.33	1.48	1.49	1.32	0.92
16	0.65	1.02	0.80	0.69	0.45	0.40	0.93	0.67	1.11	0.62	0.88	1.74	1.02	0.91	1.19	0.00
17	1.14	0.24	1.26	0.30	3.59	0.69	0.49	0.31	0.00	0.76	0.16	1.25	0.17	0.00	0.00	0.00
18	0.79	0.46	0.44	0.50	0.71	0.61	0.58	0.31	0.23	0.13	0.37	0.45	0.35	0.30	0.51	3.23
19	0.94	0.96	0.71	1.04	1.35	1.04	0.80	0.64	0.72	0.60	0.45	0.95	0.80	1.00	0.82	1.33
20	0.1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	1.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	0.62	0.52	0.38	0.53	0.84	0.42	0.44	0.60	0.32	1.19	0.35	0.46	0.33	0.95	0.54	0.45
23	0.56	2.31	1.89	0.67	1.47	1.13	1.71	1.73	2.22	2.24	2.30	1.77	1.99	1.83	1.27	1.05
24	1.14	1.59	1.14	1.04	1.32	1.05	1.41	0.98	1.25	1.02	1.28	1.44	1.26	1.09	1.05	1.79
25	1.04	1.23	1.15	0.73	0.88	0.85	1.26	0.89	1.16	1.17	1.03	1.14	0.90	0.71	0.74	0.88
26	0.87	1.02	0.83	0.61	0.76	0.78	0.72	0.71	0.76	0.53	0.63	0.72	0.72	0.97	0.61	0.85
27	1.36	0.37	1.14	0.96	1.58	1.79	1.63	3.53	0.63	0.51	1.00	2.18	0.55	0.00	0.81	0.00
28	0.76	1.81	1.57	1.00	1.25	1.03	1.35	2.24	1.56	1.26	1.70	1.17	1.37	1.65	1.11	1.95
29	0.93	1.09	1.05	0.78	1.14	0.75	1.12	0.71	1.04	0.99	1.05	1.10	1.10	1.00	0.85	1.02

주 : 충남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산업별 종사자 기준

<표4-21> 시·군 산업분류표

1. 농림어업	2. 광공업	3.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 수도사업	5. 건설업	6.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7. 도매 및 상품중개업	8. 소매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1. 수상운송업	12. 항공운송업	13. 여행알선,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14. 통신업	15. 금융업	16. 보험 및 연금업	1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8. 부동산업	19.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0.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21. 연구 및 개발업	22.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2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24. 교육서비스업	2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7. 회원단체	2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9. 기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의 시·군별 제조업의 Ogive지수는 계룡이 7.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안군(6.03), 청양군(4.71), 부여군(2.99), 서천군(2.99) 순으로 제조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0.28), 천안시(0.73), 예산군(1.29), 보령시(1.47), 연기군(1.87)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다양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산시(14.06), 보령시(8.98), 계룡출장소(5.88)은 국가경제의 제조업부문에 비해 제조업이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출장소는 가구 및 기타제조업, 음식료품업, 조립금속제조업, 태안군은 음식료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 청양군은 음식료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업 등에 제조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2> 시·군 제조업 다양화 지수

구 분	Ogive지수	국가경제평균접근법
천안시	0.73	0.25
공주시	2.27	1.75
보령시	1.47	8.98
아산시	2.01	5.21
서산시	2.61	14.06
논산시	0.28	2.4
금산군	2.08	1.19
연기군	1.87	0.7
부여군	2.99	1.66
서천군	2.99	2.42
청양군	4.71	2.74
홍성군	2.25	1.76
예산군	1.29	0.66
태안군	6.03	2.94
당진군	2.45	1.87
계통	7.4	5.88
평균	2.71	3.4

<표4-23> 시·군별 제조업 특화계수(2000)

구 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통
1	1.07	3.39	2.65	1.01	1.81	3.56	2.62	1.51	5.33	4.28	4.70	3.64	2.15	6.98	1.55	2.99
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0.59	2.09	1.16	0.39	0.41	2.00	0.82	0.52	1.77	0.91	0.07	1.22	1.52	0.60	0.27	0.28
4	0.43	0.38	0.15	0.07	0.20	0.42	0.08	0.02	0.35	0.28	0.14	0.44	0.18	1.00	0.11	0.30
5	0.18	0.00	0.00	0.00	0.00	0.00	0.74	0.6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	0.46	0.99	1.14	0.57	0.70	1.03	0.92	0.47	2.31	1.62	1.09	1.68	1.01	1.10	0.85	0.00
7	1.77	1.39	0.64	0.87	0.00	0.60	1.35	2.85	0.00	8.39	1.47	0.55	1.53	0.00	0.00	0.00
8	0.27	0.33	0.45	0.19	0.46	0.21	0.10	0.97	0.30	0.31	0.34	0.62	0.26	0.70	0.28	0.00
9	0.5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	1.00	1.05	0.12	0.83	10.87	1.42	0.99	1.34	1.29	1.68	5.55	0.24	1.08	0.00	1.20	0.00
12	1.47	0.73	0.33	1.29	0.12	1.21	5.30	0.92	0.81	0.40	1.57	1.97	2.48	0.00	1.12	0.00
13	0.96	2.34	7.38	1.05	1.36	2.75	0.99	2.36	4.49	1.22	3.26	6.66	2.00	4.09	2.39	1.84
14	0.38	0.20	0.51	0.37	0.00	0.17	0.08	0.13	0.00	1.84	0.00	0.13	1.37	0.00	5.40	0.00
15	1.05	0.54	1.56	0.70	0.57	0.88	0.48	0.74	0.50	0.65	0.54	0.80	1.68	0.35	1.28	0.00
16	1.29	0.43	0.04	1.71	0.09	0.29	0.69	0.33	0.00	0.11	0.19	0.54	0.38	0.00	0.19	0.00
17	1.53	0.00	0.00	2.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	1.65	0.23	0.59	0.72	0.13	1.04	1.42	1.28	0.18	0.04	0.00	0.45	0.80	0.52	1.58	0.00
19	1.86	0.00	0.00	1.59	0.00	0.12	0.00	2.87	0.00	0.00	0.00	0.00	0.11	0.00	0.00	0.00
20	0.99	6.72	0.00	0.27	0.00	0.47	1.86	1.07	0.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	0.96	0.46	1.92	2.92	1.55	0.26	0.84	0.53	0.00	0.50	0.00	0.00	1.11	0.00	2.97	0.00
22	0.08	0.00	0.60	0.08	0.00	0.39	0.00	0.00	0.00	0.35	0.00	0.00	0.00	0.00	0.03	0.00
23	0.53	0.72	0.79	0.88	0.69	1.10	0.74	0.26	0.36	0.26	0.20	0.66	0.83	1.48	0.26	15.22
24	0.32	0.00	0.00	0.00	0.00	0.00	2.67	2.00	4.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표4-24> 제조업 업종분류표

1.음식료품	2.담배제조업	3.섬유제품	4.의복및모피제품	5.가죽마구류가방신발	6.목재 및나무제품	7.펄프종이및종이제품	8.출판인쇄및기록매체	9.코크스석유핵연료	10.화합 물및화학제품	11.고무및플라스틱	12.비금속광물제품	13.제1차금속제품	14.조립금속제 품	15.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	17.기타전기기기및전기변환장 치	18.영상음향및통신장비	19.의료정밀광학기기사계	20.자동차트레일러	21.기타운송장 비	22.가구및기타제조업	23.재생용가공원료
--------	---------	--------	-----------	-------------	---------------	-------------	-------------	------------	-----------------	------------	------------	------------	---------------	---------------	---------------	----------------------	--------------	---------------	------------	---------------	-------------	------------

2. 충남 시 · 군의 변이할당분석

1) 분석방법

변이할당법은 지역의 성장 요인을 전국의 경제성장 요인, 산업구조 요인, 그리고 경쟁 요인(Competition Component)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국의 경제성장은 지역의 외적인 요인으로 지역 밖에서 지역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한다. 산업구조요인과 경쟁요인은 지역의 내적 요인으로 지역 경제의 특징과 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지역의 생산환경을 의미한다. 이 생산환경은 지역의 입지, 기후, 토질, 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기술과 자원을 투입하여 제공되는 도로, 지역의 하부구조 시설 등과 같은 인위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산업구조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적으로 급성장 또는 저성장하는 산업에 특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한다. 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지역은 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 지역경제는 낮은 성장 또는 침체를 보일 것이다. 경쟁요인은 지역간 경쟁력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의 기여도를 설명한다.

지역산업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요인별로 구분될 수 있다.

$$g_r = g_n + (g_r - g_m) + (g_m - g_n)$$

g_r : 지역 r 내 산업 i 의 성장률,

g_n : 전국에서 산업 i 의 성장률,

g_m : 지역 산업구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위 식의 첫째 항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의 성장률을 말하고, 둘째 항은 산업구조 요인에 의한 성장률을 말한다. 셋째 항은 지역의 생산환경이 지역산업을 전국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지 아니면 더딘 성장으로 이끄는지를 측정하는 지역의 경쟁요인에 의한 성장률을 나타낸다.

각각의 성장률은 고용자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g_r = \frac{\sum_i E_i^{rt} - \sum_i E_i^{r0}}{\sum_i E_i^{r0}}, \quad g_n = \frac{\sum_i E_i^{nt} - \sum_i E_i^{n0}}{\sum_i E_i^{n0}}, \quad g_m = \frac{\sum_i [E_i^{r0} \frac{E_i^{nt}}{E_i^{n0}}] - \sum_i E_i^{r0}}{\sum_i E_i^{r0}}$$

여기서, E_i^{rt} : 지역의 i 산업에 t 연도의 종사자수, E_i^{r0} : 지역의 i 산업에 기준 연도의 종사자수, E_i^{nt} : 전국의 i 산업에 t 연도의 종사자수, E_i^{n0} : 지역의 i 산업에 기준연도의 종사자수를 나타낸다.

특화계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산업이 부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전이-할당분석을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률시차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산업유형별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¹²⁾

12) 지역성장률의 총시차는 지역의 실질성장률과 전국의 실질 성장률의 차이로 정의한다.

$$\Delta = g_r - g_n = (g_r - g_m) + (g_m - g_n)$$

<표4-25> 산업별 유형

구 분	총성장율시차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성장산업	+	+	+
성장잠재력산업	+	-	+
부양산업	+	+	-
(-)성장산업	-	-	-
정체산업	-	-/+	+/-

충남의 경우 1995~2000년 사이 성장률이 높은 산업들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수도사업으로 각각 851.8%, 389.1%, 233.1%, 105.3%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의 종사자는 5년 동안 2,402명으로 38명은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이고, 153명은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기여분이며, 2,211명은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개발업은 572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20명은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이고, 47명은 산업구조요인에 기여분이며 505명이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기여분으로 나타났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895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52명이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이고, 60명은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기여분이며 783명은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기여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사업의 증가분은 217명으로 그 중 국가성장에 의한 기여분은 28명이고,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20명이며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은 169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는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재생가공원료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기타운송장비업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성장률은 121.4%, 90.9%, 65.7%, 64.7%, 62.7%, 62.6%로 나타났다.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제조업의 종사자는 974명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성장에 의한 증가분은 -83명,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360명,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은 697명으로 나타났다. 재생가공원료업은 120명이 증가하였으며 107명이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은 935명으로 그 중 894명이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트레일러업은 총 4,869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6,149명이 지역자체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은 총 3,613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3,316명이, 기타운송장비업은 총 321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280명이 지역자체성장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

충남의 성장산업으로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농림어업, 광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등은 성장잠재력산업으로 산업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금속제품,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기시계, 기타운송장비, 재생용가공원료는 성장하는 업종으로 나타났고, 자동차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제조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표4-26> 변이할당 분석결과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연구및개발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수도사업, 부동산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기시계업, 기타운송장비업, 재생용가공원료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수상운송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금융업, 회원단체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가죽마구류가방신발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정체산업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보험및연금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표4-27> 전산업 변이할당분석

구분 산업분류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17.8	477	366	-340	451
2	8.2	10,764	17815	-31912	24,861
3	-2.0	-48	325	25	-398
4	105.3	217	28	20	169
5	-14.7	-4,188	3867	-13727	5,671
6	-40.2	-4,731	1601	-6747	414
7	17.3	2,007	1582	-2087	2,512
8	18.8	10,646	7716	-2530	5,460
9	28.7	13848	6565	3624	3659
10	10.0	1487	2028	-728	188
11	1.0	2	28	-77	51
12	0.0	0	0	0	0
13	12.3	462	512	-526	476
14	7.1	305	586	691	-972
15	-20.5	-2,766	1836	-3285	-1,317
16	-22.9	-2,191	1301	-4155	663
17	851.8	2,402	38	153	2,211
18	55.0	1,869	463	157	1,249
19	-4.0	2,014	311	-488	2,191
20	108.8	74	9	121	-56
21	389.1	572	20	47	505
22	37.4	2,454	892	-136	1,698
23	-16.4	-4,900	4054	-7162	-1,792
24	11.9	4,243	4836	1004	-1,597
25	90.6	8,294	1246	3377	3,670
26	233.1	895	52	60	783
27	-38.8	-5,645	1982	-5568	-2,060
28	47.1	2,844	821	1163	860
29	22.0	1,861	1149	345	367

<표4-28>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분 산업분류	성장율(%)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전이효과
1	0.5	97	-2170	112	2155
2	-	0	0	0	0
3	-19.0	-1995	-1092	-1080	177
4	-38.2	-1273	-346	-476	-450
5	-55.4	-721	-135	-319	-267
6	-31.9	-557	-181	-411	36
7	-16.4	-847	-538	-484	175
8	-33.1	-896	-282	206	-821
9	-	0	0	0	0
10	-4.6	-473	-1068	-362	957
11	62.7	3613	-599	896	3316
12	-40.1	-5327	-1381	-2917	-1029
13	-8.7	-333	-397	880	-816
14	10.8	905	-867	53	1719
15	31.7	3118	-1023	-249	4390
16	121.4	974	-83	360	697
17	-6.5	-470	-747	494	-217
18	52.9	6033	-1185	3126	4092
19	65.7	935	-148	189	894
20	64.7	4869	-782	-498	6149
21	62.6	321	-53	94	280
22	36.9	1025	-289	-178	1492
23	90.9	120	-14	107	27

<표4-29> 산업 및 제조업 분류표

구분	내 용
산업 분류	1.농림어업 2.광공업 3.전기가스증기업, 4.수도사업 5.건설업 6.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7.도매및상품중개업 8.소매업(자동차제외) 9.숙박및음식점업 10.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11.수상운송업 12.항공운송업 13.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14.통신업 15.금융업 16.보험및연금업 17.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8.부동산업 19.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20.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21.연구및개발업 22.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23.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24.교육서비스업 25.보건및사회복지사업 26.위생및유사서비스업 27.회원단체 28.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29.기타서비스업
제조업 분류	1.음식료품 2.담배제조업 3.섬유제품 4.의복및모피제품 5.가죽마구류가방신발 6.목재및나무제품 7.펄프종이종이제품 8.출판인쇄기록매체 9.코크스석유핵연료 10.화학물질및화학제품 11.고무및플라스틱 12.비금속광물제품 13.제1차금속제품 14.조립금속제품 15.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 17.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18.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9.의료정밀광학기기기 20.자동차트레일러 21.기타운송장비 22.가구및기타제조업 23.재생용가공원료

(1) 천안시

천안시의 경우 전기가스증기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연구 및 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잠재력산업으로는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을 들 수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 고무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사계가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고, 섬유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제조업은 지역경쟁력이 있는 성장잠재력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서 성장규모에 있어서는 1995~2000년 사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5,419명), 고무 및 플라스틱(1,627명), 조립금속제품(611명)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조립금속제품(179.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142.4%), 고무 및 플라스틱(88.8%) 순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의복 및 모피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운송장비 등은 부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식료품, 가죽마구류가방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재생용가공원료 등은 부의 성장내지 정체업종으로 분류되었다.

<표4-30> 천안시의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정보처리 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및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 기시계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 외),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 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 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통신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 타운송장비업
정체산업	산업	수도사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오락문화및운동관 련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가죽마구류가방신발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펄프 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 장치업, 재생용가공원료업

(2) 공주시

공주시의 경우 수도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가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농림어업, 광공업, 소매업(자동차제외), 금융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은 지역경력이 높은 성장잠재력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은 산업구조요인에 성장하는 부양산업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가 724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회원단체,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수도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고,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시계는 성장잠재력업종으로 지역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마구류가방신발,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가구

및 기타제조업은 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에는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코크스석유핵연료 순으로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4-31> 공주시의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수도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제조업	음식료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소매업(자동차제외), 금융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여행알선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가죽마구류가방신발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 변환장치업, 가구및기타제조업
정체산업	산업	건설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통신업, 기계장비및소비 용품임대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오락문 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제1차금속 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3) 보령시

보령시의 경우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가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소매업(자동차제외)이 성장잠재력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 출판인쇄기록매체업이 성장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조립금속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성장잠재력업종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특히 높은 산업은 회원단체와 통신업으로 5년 사이에 각각 221.1%, 187.3%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는 조립금속제품과 출판인쇄기록매체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 각각 57.0%, 48.7% 증가하였다. 두 업종의 성장요인으로는 산업구조요인과 지역자체성장에 의한 기여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32> 보령시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제조업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조립금속제품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부양산업	산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농림어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여행알선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 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 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조업
정체산업	산업	광공업, 전기가스증기업, 수도사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 관련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제1차금속제 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기타운송장비업

(4) 아산시

아산시의 경우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회원단체가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광공업, 소매업(자동차제외), 보험 및 연금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이 성장잠재력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 및 회계용기계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의복 및 모피제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 지역경쟁력이 있는 성장잠재력업종으로 분류되었다.

1995~2000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각각 175%, 137% 증가하였고, 제조업 중에는 가구 및 기타제조업과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각각 217.5%, 117.1% 증가하였다.

<표4-33> 아산시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회원단체
	제조업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광공업, 소매업(자동차제외),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농림어업, 건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수상운송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제조업	섬유제품업, 가죽마구류가방신발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정체산업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통신업, 금융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5) 서산시

서산시의 경우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 소매업, 수상운송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코크스석유핵연료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이 성장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과 회원단체로 1995~2000년 사이 각각 1776.2%와 322.2%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트레일러업, 코크스석유핵연료업, 기타전기기계 및 변환장치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각각 454.8%, 214.2%, 153.8% 증가하였다.

<표4-34> 서산시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코크스석유핵연료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수상운송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보험및연금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정체산업	산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6) 논산시

논산시의 경우 통신업, 부동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가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잠재력산업으로 광공업이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이 성장업으로 나타났으며,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회원단체와 광공업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30.8%, 82.7%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는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823.4%, 653.6%, 367.6%, 195.9% 증가하였다.

<표4-35> 논산시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통신업 부동산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제조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광공업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부양산업	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농림어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
정체산업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

(7) 금산군

금산군의 경우 전기가스증기업, 통신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잠재력산업으로는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이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코크스석유핵연료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 성장잠재력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는 회원단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646.7%, 493.6% 337.4% 증가하였고 제조업 중에는 코크스석유핵연료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 음식료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9,650%, 500%, 167.2%, 141.8% 증가하였다.

<표4-36> 금산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통신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코크스석유핵연료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
	제조업	가죽마구류가방신발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정체산업	산업	수도사업
	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재생용가공원료업

(8) 연기군

연기군의 경우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잠재력산업으로는 소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고, 고무 및 플라스틱업, 자동차트레일러업은 성장잠재력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회원단체와 부동산업으로 각각 268.6%와 91.1%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트레일러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432.2%, 279.2%, 135.3% 증가하였다.

<표4-37> 연기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사계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소매업(자동차제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자동차트레일러업
부양산업	산업	-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수도사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가죽마구류가방신발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조업
정체산업	산업	건설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업

(9) 부여군

부여군의 경우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잠재력산업으로는 농림어업, 건설업, 보험 및 연금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고무 및 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으로 각각 147.5%, 53.6%, 49.4%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상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38> 부여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건설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광공업, 수도사업, 수상운송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가죽마구류가방신발업, 화합물 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정체산업	산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교육서비스업, 회원단체
	제조업	음식료품업, 목재및나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

(10) 서천군

서천군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잠재력산업으로는 농림어업, 광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이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는 섬유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농림어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각각 76.9%, 60.0%, 59.3% 증가하였다. 제조업 중에는 가구 및 기타제조업과 음식료품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속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39> 서천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정체산업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제1차금속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11) 청양군

청양군의 경우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잠재력산업으로는 농림어업, 건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이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업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목재 및 나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조립금속제품업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농림어업으로 각각 298.8%, 128.8%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는 고무 및 플라스틱업과 음식료품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의 성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표4-40> 청양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건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조립금속제품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통신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금융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
정체산업	산업	광공업, 수도사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 운송업, 보험및연금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12) 홍성군

홍성군의 경우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농림어업, 소매업, 보험 및 연금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업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고,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1,710%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66.7%, 41.8% 증가하였다.

<표4-41> 홍성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소매업(자동차제외),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및플라스틱,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광공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제조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정체산업	산업	수도사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통신업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기타운송장비업, 가구및기타제조업

(13) 예산군

예산군의 경우 부동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농림어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은 성장잠재력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조립금속제품업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고, 고무 및 플라스틱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부동산업으로 각각 41.9%와 41.6% 증가하였고, 제조업 중에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34.3%, 77.7% 증가하였다.

<표4-42> 예산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부동산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광공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정체산업	산업	수도사업, 통신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제조업	음식료품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14) 태안군

태안군의 경우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중에는 섬유제품업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제조업이 부의 성장을 보이거나 정체산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과 부동산업으로 각각 170.9%와 120%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성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표4-43> 태안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제조업	-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제외),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통신업, 위생및 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업
정체산업	산업	전기가스증기업, 수도사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수상운송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기타운송장비업, 가구및기타제조업

(15) 당진군

당진군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농림어업, 건설업, 소매업, 보험 및 연금업은 성장잠재력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은 고무 및 플라스틱업, 기타운송장비업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고, 섬유제품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림어업, 회원단체로 나타났으며 1995~2000년 사이에 각각 158.6%, 78.1%, 75.2% 증가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 기타운송장비업, 자동차트레일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46.9%, 50.0%, 43.1%가 증가하였다.

<표4-44> 당진군 산업유형

구 분	산업 및 제조업	
(+)성장산업	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운송장비업
성장잠재력산업	산업	농림어업 건설업, 소매업(자동차제외) 보험및연금업
	제조업	섬유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부양산업	산업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
(-)성장산업	산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업
정체산업	산업	광공업, 전기가스증기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통신업, 금융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제5장 충남 시·군별 지역경제정책 및 특성화방안

제1절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1.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중요성 부각

동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WTO 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지방화도 동시에 진전됨에 따라 지역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정보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산업 각 부문에서 지속적인 혁신의 창출, 확산, 활용이 21세기 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이에 따라 21세기 산업경쟁력은 무형자산인 정보 네트워크와 지식기반 인프라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업 인프라로서 정보 네트워크와 지식기반시설은 기존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결합을 통해 비용절감 및 외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증대를 유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 인프라는 그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과소투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촉진과 지식기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급속한 기술혁신과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생산요소와 생산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로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라도 적응력이 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창출이 가능 따라서 수직적·수평적으로 분화된 생산체인에 참여하는 다수의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특정 기능에 전문화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4. 동북아경제권 형성

동북아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내에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한국경제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우수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고,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확충하기 위해 4조 7,0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 배후부지를 개발하여 대단위 국제물류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해양·항공뿐 아니라 육로 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송도신외항·평택항·목포신항을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과 동북아 주요 도시·항만들간의 셔틀·연계버스를 확대하고, 전국 5대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및 내륙화물기지간 물류정보 DB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계획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경제축을

형성해온 경부축의 집중도를 또다시 강화하여 지역간불균형 성장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항·항만 등 물류기반 시설이 취약한 충청남도의 성장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특성을 살린 항만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고속교통망을 연계하여 주요 도시·항만들간의 셔틀·연계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사회간접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비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고속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교통체계의 발달은 지리공간 위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시간거리와 비용거리를 단축시켜, 시공간과 비용공간의 상대적 수렴을 가져와 상호 교환효율을 극대화 해준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지만, 일단 건설되면 주민생활, 산업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은 충남지역의 교통량과 관광객의 증가 등 이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점차 누적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개방형 통합국토축 전략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시간단축효과는 전국 수준에서는 서해안지역의 시·군들이 평균 14.3%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되고, 서해안의 5개 시·도내의 시·군간에는 평균 17.9%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되며, 서해안고속도로영향권내의 시·군간에는 평균 24.5%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및 서해안 5개 시·도에서 가장 단축효과가 높은 곳은 충남과 전북으로, 전국에서는 충남이 20.3%, 전북이 17.1%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의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1.3%, 전북이 18.3%로 단축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생산거점도시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들은 물류비용·운송시간 단축→생산원가 절감→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 도시화 촉진, 국토이용 효율성 증진, 지역분업 가속화 등을 통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

저울 것이나 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들은 주변 대도시들과 전반적으로 생활권의 광역화가 촉진되면서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대도시의 영향력이 서해안의 중소도시의 배후지 이면에까지 미치는 잠상효과(潛上效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해안지역의 중남부는 아직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소도시 수준의 지역으로 시·군 중심지 상호간에는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 중·대도시에 의해 배후지를 잠식당함으로써 상대적인 쇠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표5-1>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효과

구 분		시·군간 통행시간 ¹⁾		단축시간 (B-A)	단축률(%)
		1995(A)	2010(B)		
전 국 (165시군)	인 천	26,624	23,265	3,359	12.6
	경 기	31,227	25,692	5,535	17.8
	충 남	30,734	24,287	6,447	20.3
	전 북	29,448	24,329	5,119	17.1
	전 남	37,867	33,194	4,673	12.4
	계	32,972	28,336	4,636	14.3
서 해 안 시 · 도 (83 시군)	인 천	16,101	13,911	2,190	13.6
	경 기	14,026	11,639	2,388	17.3
	충 남	12,433	9,691	2,742	21.3
	전 북	12,625	10,279	2,346	18.3
	전 남	17,295	14,493	2,802	16.3
	계	14,433	11,876	2,557	17.9
서 해 안 고속도로 영 향 권 ²⁾ (35 시군)	직접영향권	5,669	4,353	1,315	23.1
	간접영향권	5,561	4,153	1,427	26.1
	계	5,617	4,247	1,369	24.5

주: 1)지역간 평균통행시간은 전국, 서해안의 5개 시·도, 서해안고속도로 영향권 등 각각의 분석대상 지역내의 모든 시·군간의 통행시간의 합을 해당 시·군수로 나눈 것임.

2)서해안고속도로의 직접영향권에는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군,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영광군, 무안군, 목포시 등 18개 시·군이 포함되고, 간접영향권에는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아산시,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장성군, 영암군, 나주시 등 17개 시·군이 포함됨.

자료: 김정연·전영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 지역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 2001.

제2절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천안시

1) 잠재력

- 입지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산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지로써 기업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고속전철의 개통에 따라 수도권에 대등한 입지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됨
- 단국대, 한국기술대학 등 12개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고급인력 및 양질의 실험기자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산·학·연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
- 도시 및 생활기반시설, 교육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산업 및 연구인력의 공급기반도 충실하여 충남 전체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의 거점 역할을 담당
 - 재정자립도가 52.4%를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고, 삶의 질 지수도 높게 나타남
- 개발가능지역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저밀도 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중심의 지역발전이 가능

2) 제약점

- 천안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산업의 지역적 특성도 없으며, 관광자원이 적어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아 지역응집력이 약하고, 제조업의 구조가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관된 종합발전계획이 없어 개발이익을 위한 투기성에 의한 난개발의 우려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도권 의존적 외생적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천안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1999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에는 녹지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지역 순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5-2> 천안시 지가변동률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주거지역	-8.85	1.12	-0.54	0.37	3.29
상업지역	-16.45	-0.43	-0.97	-0.62	1.59
공업지역	-4.97	0.17	-0.11	0.04	4.27
녹지지역	-4.26	3.85	1.47	1.49	4.73
준도시지역	-3.48	1.95	-0.66	0.89	0.66
농림지역	0.7	3.77	1.03	-1.1	0.29
준농림지역	-1.27	3.76	0.14	-0.41	0.97
평균	-6.5	2.13	0.06	0.2	2.61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지역이 산업환경 변화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쟁력은 약하나 성장효과를 경험하는 도시형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흡수될 가능성이 높음
- 직장과 거주지역이 다른 이동인구가 많아 지역 정주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의 역외유출 요인이 되고 있음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천안시는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생산·교역의 내륙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충남 북동부지역의 중추적 관리 및 생활중심지역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천안시에는 많은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대학의 학생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통학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대학들간의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대학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담당
- 수도권의 산업기능을 수용할 최적의 대안지로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는 지식기반사회에 기초한 유연적 생산체제로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발적 발전전략이 필요
- 천안시는 광공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

났고, 제조업으로는 의료정밀광학기기기시계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 등 지식기반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식기반산업들이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광공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회원단체, 교육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기시계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 기타전기기기및전기전환장치업, 비금속광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음식료품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전기가스증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및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 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고무및플라스틱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기시계업, 섬유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 또한 산업은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사업, 통신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은 매우 다양화되어 있어 제조업간의 전후방효과가 클 것임. 따라서 산업간 또는 제조업간의 연계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2. 공주시

1) 잠재력

- 풍부한 역사·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로 전국적인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가능
- 중소도시 지역으로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대학이 소재하여 교육도시로서

의 성장가능

- 광역교통체계망 확충에 따른 교통시설의 연계개발로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 가능 및 산업입지 여건 개선이 기대

2) 제약점

- 산업구조는 3차산업이 지배적으로 생산기능이 미약하고, 주민소득이 낮고 재정 자립도가 빈약
- 관광도시이나 관광소재가 빈약하고 편중되어 있어 관광서비스 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미약
- 시가지의 한정된 공간범역으로 도심의 과밀화 및 도시개발 정체되어 있고,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각 대학의 학생들의 함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없고, 산학연계체계 구축되어 있지 못함
- 광역교통망이 발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상권의 유출이 심함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입체적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의 결절지로서 접근성의 개선효과를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백제문화권의 고도로서 국제적 거점관광지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성있는 전통·문화예술기반 육성
 - 고도옛모습되살리기 추진, 종합도예촌, 마곡온천관광지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전통문화의 보전·계승,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와 참여형 이벤트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 단체관광객이나 외래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관광지원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금강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대도시의 근교관광농업을 활성화하여 계룡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대전광역시 인구의 휴양지로 개발
- 공주시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 지역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으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산업입지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음. 교통의 결절지 주변에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 대덕연구단지,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지식기반

제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주시는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자동차트레일러업,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 펄프종이 및종이제품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수도사업, 농림어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특화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업,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수도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농림어업, 광공업, 소매업, 금융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음식료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사계업
- 공주시는 섬유·가죽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44.1%로 가장 많이 입지해 있어 직물산업의 집산지인 유구읍 일대에는 고급섬유, 의복, 의료, 생활용품 가공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완제품생산단지로 전환이 필요

3. 보령시

1) 잠재력

- 연기군의 컨테이너기지가 조성될 경우 중부내륙권과 중국을 연결하는 대중국 진출거점기능 수행
- 서해안 및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및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으로 서해안 관광거점으로 성장
- 도서·해안·산악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특구 지정으로 관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체재형 관광지로서의 발전잠재력

2) 제한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어 산업인력의 부족으로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
- 제조업생산제품의 유통·물류기능이 미약하고,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업에 편중되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고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
- 해안~도서~내륙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루트개발이 미흡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보령시는 지경학적으로 서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수도권외의 과밀로 인한 분산정책이 강조되고 있어 앞으로 환황해·동북아권의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유통단지 조성, 보령신항 건설 등 광역교통·물류체계를 구축
- 보령시는 서해안문화관광벨트의 대중적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 따라서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
 - 보령~안면도 연육교 개설, 해양~도서~산악~호반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폐광지구진흥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휴양학습공간 조성
- 또한 중국의 개방과 함께 외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지로의 기반 구축하여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육성
 - 보령신항을 국제적 미항으로 개발, 서해안 도서를 연결하는 크루즈관광루트 개설, 국제적 마리너시설, 국제적 숙박시설과 다양한 휴양·위락시설 확보
- 보령시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제조업은 다양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가스및증기업, 숙박및음식점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음. 제조업은 제1차금속제품업, 음식료품업, 기타운송장비업, 기타기계및장비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전기가스및증기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회원단체,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 소매업, 금융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제1차금속제품업, 음식료품업, 기타운송장비업, 기타기계및장비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조립금속제품업, 펄프종이종이제품업
- 보령시는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아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제조업의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레포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의 특화제조업인 제1차금속제품업, 기타운송장비업, 기타기계및장비업과 연계하여 업종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 1년에 7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은 지역의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관광지 주변에 지역 제조업의 생산물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문쇼핑몰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4. 아산시

1) 잠재력

-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인구의 수용을 위한 산업배후지역으로서 역사문화·온천자원과 풍부한 문화행사 등이 있어 도시의 편리성과 중소도시의 쾌적함을 겸비한 전원휴양도시로의 성장잠재력
- 충남테크노파크, 순천향대, 호서대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천안시와 함께 충남지역혁신체제의 거점지역이 될 것임
- 삼성테크노컴플렉스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추세에 있고, 고속철도 역세권에는 첨단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서의 발전잠재력이 무한함
- 아산신도시 건설, 서수원~평택간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이 아산신도시까지 연장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임

2) 제약점

- 아산시는 충남의 최북단으로 수도권 및 천안시와 인접하고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온천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수도권 분산정책에 따른 수도권 공장의 무계획적 입지로 환경문제 및 공해문제 발생 가능
-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제활동가능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 아산의 온천지역은 쾌적한 휴양도시의 성격보다 유흥, 환락, 소비성향의 심화 등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흐릴 가능성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국제적 생산·교역도시로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연계하는 광역 물류·교통망체계 구축이 필요
 - 아산~천안간 연담화에 따른 경전철 도입, 아산유통단지 등 수도권과 대도시간 연계체계 강화
-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온천자원을 산업배후도시와 연계하여 쾌적한 전원휴양도시로 육성하고, 환락도시로의 전락하지 않도록 관광특구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됨
 - 도시내 입지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편의시설, 도시경관 등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하거나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
-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수도권의 산업기능 이전의 최적 대안지이며, 첨단지식 기반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광공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교육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기타운송장비업, 기타전기기및전기변환장치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의료정밀광학기기사계업, 비금속광물제품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회원단체, 광공업, 소매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 제조업의 입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함. 인력부족은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꺼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문식교육, 예약입학제도, 인턴쉽제도 등 산학연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학습능력을 제고
- 지역내 대학의 학생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식창출의 공간을 확보하여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천안과 함께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국제교육도시촌 조성, 과학기술관련 대학원대학을 유치
 - 대학, 연구, 산업을 Net-Work시키는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 대학과 도시·지역사회가 결합된 특성과 매력있는 도시로 육성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조성

5. 서산시

1) 잠재력

-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 및 지속적인 산업개발을 통해 신산업지구 조성에 다른 첨단산업기능으로 개편이 가능해질 것임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해미읍성, 부석호와 간월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기능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됨

2) 제약점

-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 대부분이 석유화학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화되어 있지 못함
- 주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IC 및 국도주변으로 소규모 공장의 난개발 우려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시가지 조성이 미흡하여 산업 및 주변지역과의 연관된 광역적 생활권 검토가 필요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내포문화권 및 해양관광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과 전통음식점 등 관광기반시설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거점화하고,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수덕사, 간월암을 연계한 불교테마 관광축 조성이 필요
 - 서산 남부 관광·산업도로의 개설과 함께 서산간척지, 간월암 등을 연계한 사파리공원, 철새공원, 갯벌생태공원 등 생태공원 조성
 - 지역산업인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 Theme Park 조성
- 서산시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은 석유화학과 수송기계류 군집업종으로 양분되어 편중되어 있어 기존의 업종과 연관된 정밀화학, 가공조립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특화산업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전기가스및증기업, 농림어업, 건설업
 - 특화제조업 : 고무및플라스틱업, 음식료품업, 기타운송장비업
 - 성장 및 성장잠재력산업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수상운송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 성장 및 성장잠재력제조업 : 코크스석유핵연료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6. 논산시

1) 잠재력

- 시대별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계룡대 등 군사시설의 요지

로 이와 관련된 방위산업관련 기업유치에 유리

-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호남선철도 등 인접 대도시를 배후로 한 광역교통체계의 향상으로 유통 및 산업입지 여건의 양호

2) 제약점

- 논산, 강경, 연무 연담도시권의 특화기능 미약하며, 근대농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립경제기반이 미약
- 백제문화권에서 제외되어 있고, 논산시에 산재된 문화자원의 연계 및 거점개발 미비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대전 도시권과 군장산업권의 중간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유통·상업업무 주거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
- 논산~연무~강경읍간의 도시성장축을 고려 기존 도심에 대응하는 신도심을 배치하여 도심활동의 균형성을 도모
-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지역내에 소재한 각종 서원, 유교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안동과 대등한 유교문화권 형성
 - 금년에 개교한 불교재단의 대학인 금강대학에 한문학과 유교학을 개설하여 불교와 유교문화의 메카로 지역특화 유도
 - 연산면 고정리 주변에 예학촌과 탑정호 주변에 농업생태공원을 조성 연계개발
- 강경읍은 근대문화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근대문화 유적을 복원하여 영화촬영소로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관광자원화
- 논산시는 광공업, 통신업, 금융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가구및기타제조업종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광공업, 통신업, 회원단체, 금융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통신업, 부동산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광공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펄프종이종이제품

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 대전·청주권과 군산·장항권 산업기지 양지역의 배후지역 기능을 수행하고, 정보·전기·전자·정밀과학 등의 전문산업과 식료, 농산품 등 지역특산품의 전문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지방 주력산업단지 개발
- 군장권과 연계된 부품산업 및 식료품산업 유치하고, 논산지방산업단지를 중소 기업전용단지로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 계룡입암벤처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전자·통신기기 등 군수관련 산업 적극 유치하여 현재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

7. 금산군

1) 잠재력

- 금산군은 대전광역시와 인접하여 대전과 연계된 광역개발이 가능하고, 대전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겨냥한 근교농업과 관광레저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금산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국내 최대 인삼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전국 3대 약초시장으로 고소득을 보장하는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해 소득증대가 가능
- 금산군은 대둔산, 서대산, 금강과 같은 명산·명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연환경은 아직까지 적극 개발되지 않아 인공적 훼손이 적어 산악형과 내륙형 관광개발 가능성이 높음
- 추부면에 학생수 7천명의 중부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중부대학교 인근 대학촌 개발 및 대학의 연구기능과 연계한 각종 기술집약적 산업발달 가능성

2) 제약점

- 금산군은 중산간지역형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교육, 문화, 생활환경의 미비로 인구유출의 지속으로 군세 및 재정력의 약화로 재정규모가 미약하고, 삶의 질이 충남 시군 중 가장 낮음

- 대전광역시가 인접해 있다는 것이 금산군에는 기회요인이기보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적 개발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획기적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부재
- 금산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 관광, 역사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금산을 인삼의 국제적 종주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세계적 규모의 인삼거래시장으로 체계적인 유통기능 확대하고, 인삼관광특구의 지정을 추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양·휴양 관광기능을 특화
- 대둔산·서대산 등의 명산을 활용한 산악경관감상·생태체험 및 산악이벤트 개최, 도시내의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 등 문화관광기반을 구축 관광산업의 활성화
- 금산군은 농림어업, 숙박및음식점업, 통신업, 금융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전기기기및전기변환장치업, 재생용가공원료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농림어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통신업, 금융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회원단체,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전기기기및전기변환장치업, 재생용가공원료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전기가스증기업, 통신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코크스석유핵연료업, 섬유제품업, 의복및모피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

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가구및기타제조업

-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지역 특화산업 위주로 공단을 조성하여, 전기, 전자, 식료품, 인삼, 약제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양호한 교통 접근성 및 쾌적한 환경을 이용한 첨단산업단지와 산촌주택 및 청정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

8. 연기군

1) 잠재력

- 연기군은 국토 중심부에 입지해 있고 간선교통망의 통과·교차지점으로서 국내 주요거점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기업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충북권의 오송, 오창, 충주첨단산업단지 등 지식기반집적지와 인접하여 연구개발과 연계된 첨단산업의 생산활동의 거점지역으로 잠재력이 높음
- 연기군은 충남에 비해서 도시적 토지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금강변, 미호천변, 산림자원을 활용한 개발가능지가 풍부함

2) 제약점

- 정보통신, 금융 등 전문서비스와 무역, 국제업무, 대기업의 본사 등 경제적 중추관리기능의 미비로 자립경제기능이 취약함
- 주변 대도시권의 확장으로 남부는 대전권에, 북부는 천안권에 동서방향은 공주시와 청주시에 상권 및 생활권이 잠식되고 있음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연기군은 충북 오창,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천안·아산테크노파크와 인접해 있

어 새로운 첨단·벤처산업지대로 등장하고 있고, 지역내 2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산학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인력수급의 안정과 지식기반화를 유도

- 연기군은 광공업, 광공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기계업, 기타전기기기및전기변환장치업, 재생용가공원료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광공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회원단체,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사무기계및회계기계업, 기타전기기기및전기변환장치업, 재생용가공원료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소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사계업, 고무및플라스틱업, 자동차트레일러업
-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로 성장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기존의 대학에 지역의 특화산업과 관련된 학과신설, 전문대학의 유치를 통해 인력공급체계 구축이 필요
- 연기군은 산업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여 산업의 다양화 제고
-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 사이에 조성중인 대학촌을 중심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을 문화, 예술 및 교육, 서비스업의 구심점으로 육성
- 합강도 주변을 금강 수변축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주변 대도시민들의 휴양지로 조성하고, 동시에 지역내 또는 주변의 첨단산업벨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전문 도매 및 쇼핑단지를 조성하여 주변 대도시로의 상권유출을 방지

9. 부여군

1) 잠재력

- 백제역사재현단지 및 대학유치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역사, 문화, 교육, 관광도시로서의 면모 기대
- 금강과 같은 천연적인 자연자원이 존재하므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함
- 부여군은 7개의 읍·면이 일반농촌형으로 분류되고, 대전에 인접한 지역으로 근교 농업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농업의 잠재력이 풍부

2) 제약점

- 문화유적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지원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자원들간의 연계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관광행태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
- 도시 전역에 문화재가 산재한 관계로 층고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엄격하여 다양한 도시개발의 제약이 가해짐
-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청양군과 서천군을 제외하고 삶의 질의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백제문화권의 고도로서 국제적 거점관광지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및 전통문화예술기반을 구축
 -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추진,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백제문화제의 세계화 추진
 - 금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 조성, 녹색교통의 자전거 도로 건설,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해상시장, 수상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이벤트형 프로그램 개발
- 부여군은 농림어업과 주로 관광과 관련된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재생용가공원료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농림어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수상운송업, 통신업, 금융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재생용가공원료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고무및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
- 토마토, 양송이, 인동초 등 지역 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고도의 이미지를 살린 전통음식가공 전문산업단지를 조성
- 전통음식가공 전문산업단지 : 주거지와 공장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의미함
- 금강변 지역의 논과 밭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전원농업지역으로 중점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기술의 도입을 하고 체험농업지구를 조성하여 관광농업을 육성

10. 서천군

1) 잠재력

- 서천군은 환황해권의 유리한 지경학적 위치에 있고, 장항선의 개량,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 주변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산업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됨
-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다양한 자연·인문관광자원과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음

2) 제약점

- 기 계획된 사업추진의 미진과 선발이익을 주변지역으로 빼앗김으로써 개발의

소외지역으로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생활권이 군산 영향권에 속함

- 교육,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삶의 질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심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충남의 15개 시·군중 삶의 질 지수가 14위로 매우 낮게 나타남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서천군은 해양·역사문화·자연자원과 지역특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환경친화형의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어촌민속박물관, 골프장 등 각종 관광휴양시설을 공급·정비하여 서해안권 남단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 군산·전주, 대전지역의 산업화에 의한 소득을 이 지역으로 흡인
 - 신성리 갈대밭, 금강하구둑의 철새도래지, 마량리의 동백나무숲과 해돋이, 홍원항, 한산모시제 등 관광자원화
 - 동해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해안의 갯벌과 어촌체험형 관광상품을 활용 송석리에 어촌체험형 조성하여 금강하구둑의 철새도래지와 춘장대를 연결하는 친환경적 개발 육성
 - 특히 금강하구둑 주변에 수변위락관광단지를 만들어 주변의 해수욕장과 연계하는 중부권의 수변관광거점을 조성
- 서천군은 농림어업, 건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은 음식료품, 업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농림어업, 건설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농림어업, 광공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섬유제품업, 고무

밋플라스틱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밋기타제조업

- 서천군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진으로 제조업의 기반은 취약하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산업입지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의 입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산업단지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목고 유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자연환경과 조화된 정주환경을 조성

11. 청양군

1) 잠재력

-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내 타 시군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간접영향권에 속함
- 칠갑산, 천장호, 지천 등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발원하여 청양군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하나도 없어 지속적인 청정환경 유지가 가능
- 도립온천 등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인근의 백제재현단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의 가능성

2) 제약점

- 청년층의 이농현상과 도시선호 추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교육, 의료, 문화 등 중추관리기능 미약하고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으로 2, 3차산업기반이 취약함
- 차령산맥으로 인해 공주, 부여, 보령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지역상권의 외부유출이 심함
- 재정자립도가 충남의 시·군중 가장 낮으며, 삶의 질 지수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청양군은 중심도시기능을 강화하여 분산된 생활권의 내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청정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 청양군은 충남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나 개발의 낙후지역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칠갑산도립공원, 휴양림, 지천, 천장호, 칠갑호 등 산악과 수변공간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및 장승공원, 장승제, 산신제 등 마을 전래문화자원과 지역문화 축제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화
 - 특히, 지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하천의 자연생태를 최대한으로 보존하여 지역주민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환경교육장으로 생태체험공간을 제공
 - 보령시와 인접한 화성면에 도립온천과 보령시의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유료 노인휴양시설을 조성
- 청양군의 특화산업은 농림어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등 특화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농림어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음식료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조립금속제품
- 기 조성된 농공단지에 청정자연과 연관된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 맥문동 등 한약재료 관련 도매상가를 기존의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조성
- 또한 전통식품 전문산업단지나 목공예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산물의 가공·물류·유통시설의 설치, 공동브랜드화를 통해 환경농업과 지식기반농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12. 홍성군

1) 잠재력

- 홍성군은 대부분의 지역이 구릉지로 개발가능지가 풍부함
-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 이를 토대로 한 지역특화산업화 및 가공산업 등 지연 산업에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화의 잠재력이 풍부함
- 청운대학교, 해전대학, 홍성기능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입지하여 고급기술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 산학연계를 통한 지식산업발전 잠재력 보유
-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철도의 복선화, 국도의 확장 교통의 요충지이며, 역사적 전통문화자원과 홍성 온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광천김, 새우젓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의 지역특화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의 잠재력이 높음

2) 제약점

- 도시성장을 유도할 산업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이 미비로 정보화, 미래사회에 부응한 첨단지식산업의 유치·육성이 어려움
- 주변지역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지역중심기능이 저하되고, 홍성의 전통기능인 교육, 행정기능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율이 높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임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내포문화의 복원·홍보를 강화하여 홍주성, 조양문, 구백의총, 총령사 등 역사문화유적과 용봉산의 관광자원화
- 홍성군 문당리 환경농업시범단지와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지역의 녹색관광화를 통해 도농간의 교류증대, 농어촌의 이해의 증대, 자연과 농사의 체험, 여가공간 확보의 장으로 발전시켜 농어촌관광지로 육성
- 궁리, 어사, 남당지구 3개의 관광지구를 각 지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궁리지구는 통과여행객을 위한 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어사지구는 정적 장기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남당지구는 남당항 개발과 연계시켜 요트장과 같은 동적 장기체류형 관광지로 특성화하고 기존의 대하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더욱 활성화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

- 홍성군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림어업이 특화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제조업은 제1차금속제품업, 음식료품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회원단체, 보험및연금업, 농림어업
 - 특화제조업 : 제1차금속제품업, 음식료품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농림어업, 소매업, 보험및연금업,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음식료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및플라스틱,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지역 대학들의 학과와 연계된 산업을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전용공단을 홍성 IC 주변에 조성 지역산업의 다양화를 추진
- 충남에서 추진 중인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자연산업인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전통적인 축산업의 지식기반산업화와 관광자원화 추진 선진화된 농업군으로서 이미지 구축
 - 축산기술의 개발,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축산시범단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축산사육의 체험장으로 조성

13. 예산군

1) 잠재력

- 대부분이 우량농지이거나 과수원 등으로 광활한 평지가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지역내 농업테크노파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벤처농업, 환경농업 등 첨단 농업 선진도시로의 성장잠재력
-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예당저수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 및 휴양 거점도시로 성장 가능성

2) 제약점

- 예산군은 대부분의 개발정책에서 농업부문이 강조되어 산업기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산업단지 개발이 부족하고, 고용창출 관련산업의 개발이 미흡
- 주변 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중추관리, 사회·문화시설이 빈약하여 상대적으로 중심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예당저수지, 덕산도립공원 등의 활성화를 위해 연계코스를 개발하고, 각종 과수원과 원예단지를 체험관광자원화
- 예산군은 농림어업, 숙박및음식점업이 특화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자동차트레일러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농림어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통신업, 금융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자동차트레일러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부동산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농림어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조립금속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조업
- 예산군은 홍성군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농업테크노파크가 조성중에 있어 생태 및 벤처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선진농업기반을 구축

14. 태안군

1) 잠재력

- 태안해양국립공원, 안면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향후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잠재력
- 그동안 교통제약으로 개발에 뒤쳐져 있던 지역이었으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태안군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임

2) 제약점

- 태안군은 충남 서해안으로 치우쳐 내륙으로부터 접근이 불리하고, 교통물류시설도 열악하여 육장주변의 교통혼잡이 극심함
- 태안군은 주로 1차산업과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2차산업의 구조가 취약함
- 북군이전 서산시 위주의 개발,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지연과 보령간 연육교 건설의 보류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상대적 저조는 지역주민의 역외유출로 이어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태안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태안군은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해양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태안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어촌정주환경을 조성
- 중국 등 주변국가의 외래관광의 증가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해상교통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크루즈 관광을 통한 해양관광산업의 국제화 유도
 - 인천~아산만~장군지구~다도해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루트 개발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의 지속적 개최와 해양종합리조트 조성 등을 통해 특화된 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바다, 해변, 낙조 등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친화형

해양휴양지로 개발

- 학ampo, 천리포 및 신두리 등의 전문적 관광단지와 지역내 산재한 농어촌 및 생태관광자원을 연계·복합화함으로써 4계절 관광지화 도모
- 태안군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업, 숙박및음식점업이 특화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남
- 특화산업 :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공공행정국방사회행정,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 특화제조업 : 음식료품업, 목재및나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가구및기타제조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산업 :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 성장및성장잠재력제조업 : 섬유제품업
- 태안군은 최근 화훼산업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화훼산업의 현대화와 시험장, 지역의 대학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특화산업으로 발전
- 태안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어류양식장과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지연산업을 활성화하고, 온배수를 이용한 종합해양레저센터 조성 등을 검토
- 태안군의 제조업 대부분이 음식료품업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가공업을 위한 전문중소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

15. 당진군

1) 잠재력

- 당진군은 수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압출요인들을 흡인 혹은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충남의 관문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당진군은 충남북부 서해안권의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속도로 개통의 파급효과를 가

장 먼저 수혜할 수 있는 선발지역이 될 것임

-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산업여건이 양호하고, 서해대교와 인접하여 당진군의 새로운 명물로서 급격한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와 연계하여 연안을 따라 삼교호 국민관광지 외 관광지가 다수 입지하여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이 예상됨

2) 제약점

- 대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용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고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미미하여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음
- 당진군의 도시기능이 미흡하여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상권이 수도권으로 편입되어 상권의 역외로 유출되어 상업기능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요인 대두됨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주5일근무제로 인한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당진군의 관광산업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 관광지간 거점별 Theme 설정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주변의 유명관광지와 연계하는 지역관광거점으로서 기능정립이 필요
 - Water Front : 행담도, 삼교호, 음샘마을
 - Energy : 대호방조제, 당진화력, 왜목, 풍력발전시범단지
- 당진군은 광공업종사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충남북부 서해안권의 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입지별, 업종별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산업군집화 유도
 - 특화산업 : 농림어업, 전기가스및증기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 특화제조업 : 조립금속제품업, 기타운송장비업, 제1차금속제품업, 음식료품업, 기타기계및장비업, 화합물및화학제품업
 - 성장 및 성장잠재력산업 : 도매및상품중개업, 부동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 성장 및 성장잠재력제조업 : 고무및플라스틱업, 기타운송장비업, 섬유제품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업, 자동차트레일러업, 가구및기타제조업
- 사회간접시설 측면에서 아직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도로가 완성되면 충남북부지역의 교통요충지가 될 것임
- 서해안 및 당진~대전간고속도로의 결절지인 남당진 JC 부근 농수산물유통센터 신설, 송악 IC 내 유통단지 기능을 보완하여 주변지역의 물류·유통기능을 강화
-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상권유출방지를 위한 시장재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당진의 산업입지는 북부연안의 임해산업형 단지와 남부내륙의 농공단지로 형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생산체제로 바뀔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단지의 수요가 증대될 것임
- 단기적으로 농공단지를 활용한 철강, 금속, 석유화학의 연관산업단지로 개발정비하고, IC 주변에 중소전용단지를 조성 산업입지수요에 부응
- 당진의 석문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국가산업단지와 당진항을 연계하여 자유무역지구로 개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지식이 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가 담당해야할 역할은 동북아경제권의 성장중심지로서 국제화의 창구역할, 중국대륙과의 최근접지로서 중국진출의 교두보, 수도권 기능 수용의 최적 대안지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주변 대도시민들의 휴양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충남이 담당해야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인접지역과의 분업구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과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이후 개방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은 수도권의 확대로 이어져 충남의 동북부지역인 천안시와 아산시와 수도권 산업기능의 최적의 대안지로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수도권의 spill-over 효과는 충남 지역내의 지역간 경제격차란 또 다른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인구와 광공업체의 분포를 보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에 2000년 현재 총인구 1,922천명 중 36.8%, 광공업체의 47.7%가 집중되어 있으며, 광공업체는 충남의 서북부지역과 대전근교지역 75.1%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격차 현상은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 지역내에서 지역간 갈등, 성장지역의 난개발, 침체지역의 산업공동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생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충남의 생활권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전근교권, 북부내륙권, 북부해안권, 중부권, 남부해안권 5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충남지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역별 추진해야 할 발전전략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를 포함하는 북부내륙권은 수도권의 확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교육, 생활 및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충남의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지역과 국제적인 산업생산기지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시스템과 고급인력공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상업시설,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주, 논산, 금산, 연기를 포함하는 대전근교권은 대전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바탕으로 역사·문화를 이용한 관광 및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첨단산업 생산기지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서산, 당진, 태안을 포함하는 북부해안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으로의 상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주 및 유통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산업의 메카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홍성, 예산, 청양을 포함하는 중부권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환경농업과 첨단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 다른 공장과 주거지가 함께 하는 전통음식료품산업단지 조성 및 농축산물 유통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천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근교관광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규모 개발의 소외지역이었고, 농산물의 개방화로 인해 지속적인 침체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령, 서천, 부여를 포함하는 남부해안권은 주변의 산업지구와 보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는 대중관광의 거점과 중부내륙과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서천군은 군산·전주, 대전지역으로 지향한 중부지역의 관광거점으로 규모에 적합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고, 부여는 백제문화권의 고도로서 역사·문화관광

의 거점으로 서해안의 해양관광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근교농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 헌 】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000. 2.
-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6권 제2호, 1994.
- 김갑성 외 5명, “주요통계로 본 지역별 위상과 과제,” 1997. 12.
- 김갑성·송영필,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역연구, 제5권 제1호, 1999.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박영사, 1976.
- 김군수, “경기 31개 시·군의 성장잠재력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1995. 12.
- 김선기·권오혁, “신산업체제에 부응한 지방산업단지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 김안제, “지역간 경제적 격차에 관한 측도연구,” 환경논총, 제1권 제1호, 서울대학교, 1974.
- 김영모, “제조업 및 3차산업의 입지가 대도시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Vol. 5, 한국도시행정학회, 1992.
- 김영용·박진석, “한국경제성장과 지역소득격차,”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제학회, 1995.
- 김영정, “전북 도시지역의 불균등성장 연구 : 1965-1985,” 한국사회학, 제25집, 1991.
- 김영정, “현대 한국도시의 차별적 집적현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989.
- 김정연·전영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지역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 2001.
- 김현주 외 5명, “세계 도시경쟁력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1997. 1.
- 노근호 외,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3집 제2호, 1995.
- 노병한, “지역불균형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16집, 1호, 1991.
- 박문정, “지역경제의 성장요인과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박사논문, 경희대학교, 1986.
- 박범조 · 고석찬, “지역불균형 발전의 결정요인,” 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1998.
- 박양호 외, “중소도시의 성장과 구조”, 국토개발연구원, 1988.
- 박양호,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지방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2001.
- 박용규, “지역경제 현안과 발전모델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2001. 2.
- 박현 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 12.
- 삼성경제연구소, “지방자치와 지역특화산업,” 1995. 6.
- 송두범, “지역사회 단위별 유형구분에 관한연구 ; 충청남도 농촌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오상봉 외 9명,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0.
- 장익수, “우리나라의 지역격차 현황과 변동추이 및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9.
- 조명래, “지역개발학의 패러다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제2호, 1995.
- 주학중,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포,” Working Paper 7810, 한국개발연구원, 1978.
- 최승업, “강원도에 적합한 지식기반신산업 육성방안,” 강원개발연구원, 2000.
- 최영출, “지역격차 분석,”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III, 한국행정학회, 1993.
-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2000.
-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진흥 실행계획,” 2000.
-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000.
- , “인구이동통계연보”, 2000.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도시경쟁력평가에 대한 연구,” 2000. 6.
- 한국산업은행, “2000년대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장기발전전략,” 1995.
- 황명찬,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권, 국토개발연구원, 1982.
- Byun, Byungseol, “The Dynamics of Regional Product Inequality by Expanded Rank Size Fun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7.
- Lee, Jeong-Sik, “Development Strategies in a Larging Region : The Case of Centralized Popularization in Korea,” Univ. of Hawaii, 1981.

- Mira, Koichi,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Regional Income Dispariti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 and Korea," in Niles M. Hansen ed.,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78.
- Rao, D. C., "Economic Growth and Equity in the Republic of Korea," World Development, Vol. 6, No. 3, 1978.
- Renaud, Bertland M.,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40, 1976.

【 부 록 】

통근 O-D표(2000)

(단위 : %)

D \ O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천안시	87.36	0.14	0.04	5.65	0.09	0.03	0.00	0.36
공주시	0.56	92.49	0.10	0.18	0.02	0.54	0.04	0.68
보령시	0.18	0.02	96.42	0.00	0.12	0.00	0.00	0.00
아산시	12.40	0.17	0.04	82.80	0.13	0.00	0.02	0.07
서산시	0.09	0.05	0.02	0.05	96.32	0.00	0.02	0.00
논산시	0.07	0.23	0.03	0.02	0.00	92.77	0.08	0.02
금산군	0.15	0.00	0.00	0.00	0.00	0.13	93.67	0.07
연기군	2.75	1.56	0.00	0.00	0.00	0.09	0.08	85.76
부여군	0.02	0.51	0.39	0.05	0.00	1.14	0.03	0.00
서천군	0.04	0.04	0.48	0.00	0.00	0.07	0.00	0.00
청양군	0.12	0.83	0.52	0.06	0.04	0.04	0.00	0.00
홍성군	0.30	0.05	0.62	0.12	0.69	0.03	0.00	0.00
예산군	0.82	0.00	0.14	1.53	0.29	0.02	0.00	0.00
태안군	0.03	0.00	0.03	0.03	1.52	0.00	0.00	0.00
당진군	0.27	0.02	0.02	0.33	0.82	0.00	0.00	0.00
계통	0.00	0.64	0.00	0.00	0.00	0.31	0.15	0.00

D \ O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계통	외부지역
천안시	0.01	0.00	0.02	0.12	0.33	0.01	0.25	0.00	5.58
공주시	0.65	0.00	0.77	0.16	0.27	0.03	0.04	0.00	3.48
보령시	0.31	0.12	0.61	1.39	0.08	0.05	0.07	0.00	0.64
아산시	0.01	0.01	0.00	0.12	0.85	0.01	0.36	0.00	3.00
서산시	0.01	0.00	0.02	0.39	0.09	1.49	1.05	0.00	0.40
논산시	1.60	0.11	0.04	0.04	0.02	0.03	0.02	0.12	4.79
금산군	0.00	0.00	0.00	0.07	0.03	0.00	0.00	0.00	5.90
연기군	0.09	0.00	0.00	0.06	0.09	0.00	0.00	0.00	9.51
부여군	96.37	0.41	0.37	0.06	0.03	0.03	0.00	0.00	0.61
서천군	0.37	96.60	0.00	0.00	0.00	0.00	0.00	0.00	2.40
청양군	0.65	0.00	96.60	0.33	0.36	0.00	0.00	0.00	0.45
홍성군	0.00	0.05	0.23	96.53	0.85	0.02	0.15	0.00	0.36
예산군	0.05	0.00	0.25	1.10	94.34	0.05	0.93	0.00	0.47
태안군	0.00	0.00	0.03	0.07	0.00	97.81	0.25	0.00	0.22
당진군	0.00	0.00	0.02	0.20	0.26	0.09	97.29	0.00	0.68
계통	0.45	0.00	0.00	0.00	0.26	0.13	0.13	80.49	1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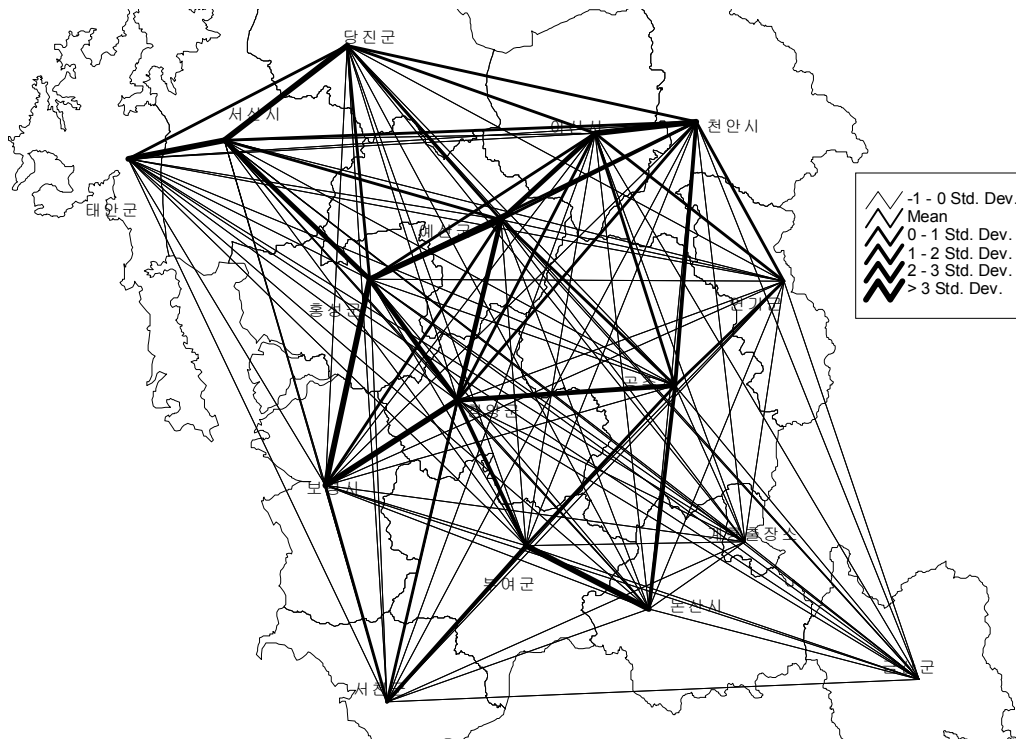
통학 O-D표(2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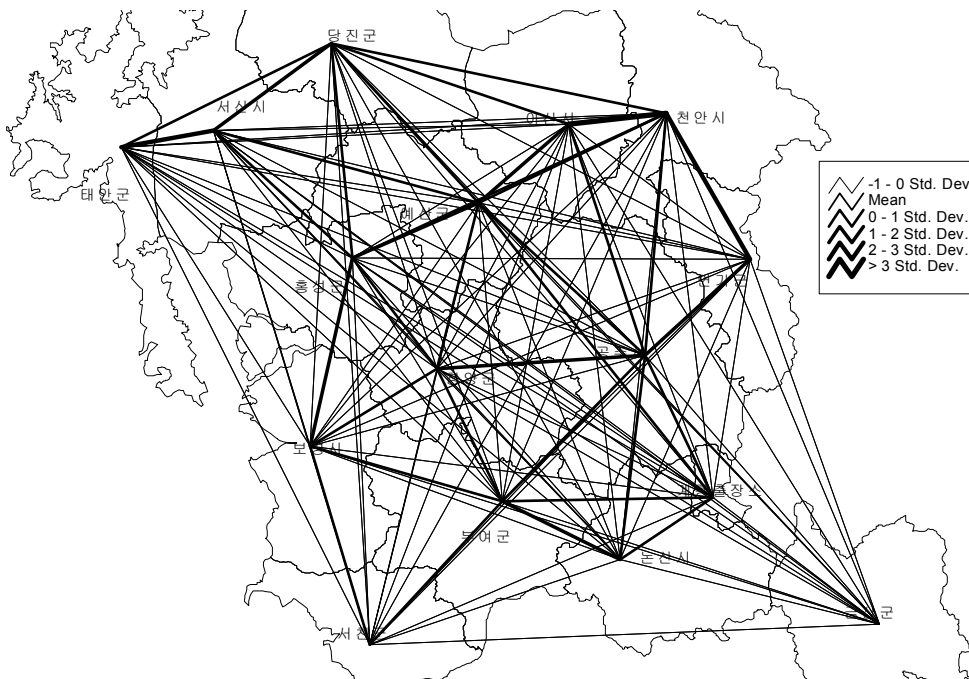
O \ D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천안시	60.43	1.65	0.10	5.67	0.38	0.23	0.00	0.49
공주시	0.11	78.57	0.00	0.00	0.06	0.73	0.00	0.26
보령시	0.08	0.08	97.45	0.08	0.00	0.12	0.00	0.00
아산시	2.75	0.61	0.20	70.00	0.12	0.06	0.00	0.36
서산시	0.00	0.10	0.00	0.09	86.88	0.00	0.00	0.00
논산시	0.01	1.41	0.09	0.00	0.00	84.05	0.27	0.00
금산군	0.00	0.06	0.00	0.00	0.00	0.00	80.14	0.00
연기군	0.61	0.94	0.00	0.15	0.00	0.05	0.00	74.41
부여군	0.00	0.94	0.18	0.00	0.00	4.15	0.12	0.00
서천군	0.00	0.00	0.18	0.00	0.00	0.00	0.00	0.00
청양군	0.02	0.70	0.13	0.10	0.00	0.04	0.00	0.00
홍성군	0.12	0.09	0.09	0.23	0.25	0.00	0.00	0.00
예산군	0.38	0.39	0.32	1.35	0.88	0.06	0.00	0.00
태안군	0.02	0.00	0.00	0.00	3.37	0.00	0.00	0.00
당진군	0.10	0.05	0.00	0.34	0.84	0.00	0.00	0.00
계 룡	0.00	0.06	0.00	0.00	0.00	0.06	0.00	0.00
외부지역	35.36	14.41	1.26	21.98	7.21	10.52	19.46	24.48

O \ D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계 룡
천안시	0.00	0.00	0.48	1.01	0.45	0.00	0.58	0.00
공주시	0.12	0.00	2.10	0.06	0.18	0.00	0.00	0.00
보령시	0.00	0.96	3.47	4.10	0.09	0.00	0.00	0.00
아산시	0.00	0.00	0.68	0.88	1.73	0.00	0.56	0.00
서산시	0.00	0.00	0.00	2.51	0.08	2.70	3.07	0.00
논산시	0.13	0.00	0.20	0.00	0.00	0.00	0.00	0.00
금산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기군	0.00	0.00	0.28	0.04	0.00	0.00	0.00	0.00
부여군	98.58	1.10	2.03	0.00	0.00	0.00	0.00	0.00
서천군	0.42	91.66	0.48	0.00	0.00	0.00	0.00	0.00
청양군	0.32	0.00	85.22	0.66	0.29	0.00	0.00	0.00
홍성군	0.00	0.00	1.97	78.79	2.03	0.00	0.13	0.00
예산군	0.00	0.00	2.36	3.53	92.68	0.00	1.05	0.00
태안군	0.00	0.00	0.00	0.25	0.00	97.14	0.93	0.00
당진군	0.00	0.00	0.00	1.09	0.20	0.00	89.92	0.00
계 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8.42
외부지역	0.43	6.29	0.74	7.07	2.27	0.16	3.77	100.00

통학연결(2000)



통근연결(2000)



천안시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27.2	68	34	-32	66
2	16.4	6,740	5,595	-10025	11170
3	91.1	72	11	1	60
4	-100.0	-11	1	1	-14
5	25.0	1,018	555	-1,971	2,434
6	-31.1	-870	381	-1,604	353
7	46.9	1,500	435	-574	1,639
8	27.3	3,104	1,547	-507	2,063
9	51.5	4,529	1,197	564,713	-561,381
10	18.7	720	523	15,180	-14,983
11	-	0	0	0	0
12	-	0	0	0	0
13	88.0	709	110	-113	712
14	12.2	71	79	94	-102
15	-47.5	-1,849	529	-947	-1,431
16	-52.2	-1,716	447	-1,427	-735
17	888.4	844	13	52	779
18	28.8	444	209	71	163
19	3.9	22	77	-156	101
20	280.0	84	4	53	26
21	392.9	444	15	36	392
22	36.0	689	261	-39	468
23	-35.9	-1,566	594	-1,049	-1,111
24	43.3	3,033	952	198	1,883
25	119.3	2,639	301	816	1,522
26	62.7	1,015	220	312	482
27	312.4	278	12	14	252
28	-10.4	-173	226	-635	236
29	42.1	781	252	76	453

천안시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3.6	-166	-473	24	282
2	-	0	0	0	-
3	26.1	495	-197	-195	887
4	-25.6	-412	-167	-230	-15
5	-27.0	-61	-23	-55	18
6	-7.2	-21	-30	-68	77
7	-13.5	-267	-206	-185	124
8	-22.3	-152	-71	52	-133
9	-62.7	-121	-20	32	-133
10	-26.7	-849	-330	-112	-407
11	88.8	1,627	-190	285	1,533
12	-35.0	-830	-246	-520	-64
13	50.9	254	-52	115	191
14	15.3	512	-347	21	838
15	8.4	487	-599	-146	1,232
16	179.2	611	-35	153	493
17	-12.3	-501	-424	280	-357
18	142.4	5,419	-395	1,043	4,771
19	53.2	311	-61	78	294
20	2.2	66	-307	-195	568
21	-20.1	-32	-17	29	-45
22	22.0	192	-91	-56	339
23	-46.7	-28	-6	48	-70

공주시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4.6	8	24	-22	6
2	4.7	269	782	-1401	888
3	-	0	0	0	0
4	52.8	19	5	3	11
5	-4.2	-80	257	-913	576
6	-48.4	-396	111	-470	-38
7	-15.3	-118	105	-139	-84
8	9.7	388	546	-179	21
9	19.6	724	503	237,217	-236,996
10	-4.4	-53	163	4726	-4,942
11	-	0	0	0	0
12	-	0	0	0	0
13	-34.9	-99	39	-40	-98
14	-22.1	-87	53	63	-204
15	28.4	198	95	-170	273
16	-18.0	-136	103	-328	89
17	-	0	0	0	0
18	16.7	41	33	11	-4
19	-3.8	-6	21	-43	16
20	-	0	0	0	0
21	-	0	0	0	0
22	58.8	201	47	-7	162
23	-2.5	-74	401	-708	234
24	-6.2	-230	508	106	-843
25	44.2	438	135	365	-62
26	76.9	336	59	84	192
27	150.0	15	1	2	12
28	-0.8	-7	122	-343	214
29	17.6	116	90	27	-1

공주시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7.5	119	-165	8	275
2	-	0	0	0	-
3	-19.5	-250	-133	-132	15
4	-45.9	-111	-25	-35	-51
5	-100.0	-46	-5	-11	-30
6	-27.6	-27	-10	-23	6
7	77.4	72	-10	-9	90
8	8.2	6	-8	6	8
9	-	232	0	0	-
10	108.3	156	-15	-5	176
11	93.6	102	-11	17	96
12	-14.0	-75	-56	-118	98
13	-50.0	-50	-10	23	-63
14	-13.6	-38	-29	2	-11
15	24.2	50	-22	-5	77
16	-	0	0	0	-
17	-45.1	-51	-12	8	-47
18	-100.0	-82	-9	22	-96
19	96.3	366	-39	50	355
20	-	176	0	0	-
21	-	0	0	0	-
22	-20.9	-47	-23	-14	-9
23	-	0	0	0	-

보령시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44.6	-62	19	-18	-63
2	-3.1	-103	458	-822	260
3	-9.9	-96	131	10	-238
4	-100.0	-19	3	2	-23
5	-34.9	-946	368	-1308	-6
6	-46.9	-344	100	-421	-23
7	10.6	57	73	-97	80
8	21.6	784	495	-162	451
9	37.8	1,248	449	211,872	-211,073
10	0.5	4	111	3,223	-3,330
11	-	0	0	0	0
12	-	0	0	0	0
13	-16.6	-31	25	-26	-30
14	187.3	148	11	13	125
15	-11.8	-86	99	-177	-8
16	-47.7	-349	100	-318	-131
17	-	0	0	0	0
18	35.0	57	22	8	27
19	-29.6	-37	17	-34	-20
20	-100.0	-10	1	18	-29
21	-	0	0	0	0
22	-6.0	-20	45	-7	-59
23	-26.6	-671	343	-607	-408
24	-20.6	-514	340	71	-925
25	53.4	368	94	254	20
26	64.0	194	41	58	94
27	221.1	42	3	3	36
28	-62.3	-1,005	220	-617	-608
29	14.1	73	70	21	-18

보령시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4.2	29	-72	4	97
2	-	0	0	0	-
3	-5.5	-18	-34	-34	50
4	-58.8	-40	-7	-10	-23
5	-	0	0	0	-
6	-26.7	-16	-6	-14	4
7	20.6	7	-4	-3	14
8	48.7	19	-4	3	20
9	-	79	0	0	-
10	-47.2	-17	-4	-1	-12
11	-49.5	-50	-10	16	-55
12	-34.0	-405	-124	-262	-20
13	-1.5	-1	-7	16	-10
14	57.0	138	-25	2	162
15	-41.7	-10	-2	-1	-7
16	-	0	0	0	-
17	-34.1	-44	-13	9	-39
18	-	0	0	0	-
19	-	0	0	0	-
20	-	401	0	0	-
21	-11.9	-8	-7	12	-13
22	-35.6	-58	-17	-10	-31
23	-	0	0	0	-

아산시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8.3	-18	30	-27	-20
2	13.2	3,347	3,443	-6,169	6,073
3	-100.0	-174	24	2	-200
4	-100.0	-3	0	0	-4
5	-55.9	-1,545	376	-1,336	-585
6	-30.6	-286	127	-536	123
7	-9.1	-103	153	-202	-54
8	12.7	548	588	-193	153
9	-0.2	-16	873	412,066	-412,955
10	19.2	238	169	4,888	-4,818
11	-42.9	-3	1	-3	-1
12	-	0	0	0	0
13	-20.5	-47	31	-32	-46
14	-12.7	-42	45	53	-140
15	-0.8	-7	125	-224	92
16	81.9	339	56	-180	463
17	175.0	70	5	22	43
18	103.9	293	38	13	242
19	41.9	88	29	-58	117
20	-	0	0	0	0
21	-	0	0	0	0
22	77.1	437	77	-12	372
23	-12.2	-208	232	-410	-30
24	28.7	927	439	91	397
25	137.1	890	88	239	562
26	-2.9	-25	118	167	-310
27	100.0	59	8	9	42
28	1.5	13	119	-335	229
29	14.6	127	119	36	-27

아산시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2.5	59	-250	13	296
2	-	0	0	0	-
3	-52.6	-1,047	-207	-205	-635
4	3.6	4	-11	-16	31
5	-100.0	-152	-16	-37	-99
6	-29.5	-83	-29	-66	12
7	-57.0	-670	-122	-110	-438
8	20.3	38	-19	14	43
9	-	1,635	0	0	-
10	6.2	67	-112	-38	218
11	30.6	423	-143	215	352
12	-56.9	-1,323	-242	-511	-571
13	57.5	161	-29	64	126
14	4.8	70	-153	9	213
15	117.1	2,663	-236	-58	2,957
16	98.2	391	-41	179	254
17	19.7	153	-81	53	180
18	-16.9	-952	-585	1545	-1,911
19	-	143	0	0	-
20	98.1	2,713	-287	-183	3183
21	-	75	0	0	-
22	217.5	722	-34	-21	778
23	-	0	0	0	-

서산시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25.5	52	28	-26	50
2	2.7	155	770	-1,380	765
3	-	-	-	-	-
4	-	-	-	-	-
5	10.0	228	311	-1,106	1,022
6	-40.8	-390	130	-547	28
7	16.0	157	133	-176	200
8	27.6	1,148	565	-185	768
9	39.7	1,365	467	220,406	-219,508
10	14.8	146	134	3,898	-3,886
11	59.1	26	6	-17	37
12	-	-	-	-	-
13	71.9	212	40	-41	213
14	-20.0	-76	52	61	-189
15	-7.0	-67	129	-232	35
16	-56.6	-377	91	-289	-178
17	1776.2	746	6	23	717
18	87.8	223	35	12	177
19	32.7	56	23	-47	80
20	-	-	-	-	-
21	-	-	-	-	-
22	47.6	303	87	-13	229
23	-20.2	-495	333	-588	-240
24	30.6	725	322	67	336
25	47.0	349	101	274	-26
26	63.8	240	51	73	116
27	322.2	87	4	4	79
28	-72.3	-1,720	323	-909	-1,135
29	36.1	230	87	26	117

서산시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4.3	36	-87	4	119
2	-	-	-	-	-
3	10.1	18	-18	-18	55
4	-41.6	-47	-12	-16	-19
5	-	-	-	-	-
6	-7.7	-4	-5	-12	14
7	-	-	-	-	-
8	25.9	22	-9	6	24
9	214.2	1,722	-84	135	1,671
10	0.4	12	-308	-104	424
11	18.5	5	-3	4	4
12	-57.7	-351	-63	-133	-154
13	-	-	-	-	-
14	-9.8	-27	-29	2	0
15	-20.6	-14	-7	-2	-5
16	-	-	-	-	-
17	153.8	20	-1	1	20
18	-	-	-	-	-
19	-	-	-	-	-
20	454.8	473	-11	-7	491
21	-	0	0	0	-
22	62.4	63	-10	-6	80
23	-	0	0	0	-

논산시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48.9	-85	24	-22	-87
2	82.7	5,145	846	-1,516	5,815
3	-52.2	-59	15	1	-76
4	-	0	0	0	0
5	-56.0	-1,883	457	-1,623	-717
6	-73.8	-883	163	-686	-360
7	-24.8	-213	117	-154	-176
8	-38.0	-1,969	705	-231	-2,443
9	-4.7	-172	503	237,281	-237,956
10	-43.9	-569	176	5,116	-5,862
11	-	0	0	0	0
12	-	0	0	0	0
13	-56.9	-291	69	-71	-289
14	40.7	129	43	51	35
15	-38.6	-422	149	-266	-305
16	-72.7	-592	111	-354	-349
17	-	0	0	0	0
18	23.7	68	39	13	16
19	-0.7	-1	21	-42	20
20	-	0	0	0	0
21	-	0	0	0	0
22	6.0	23	52	-8	-21
23	-44.4	-1,043	319	-564	-798
24	-32.6	-1,033	431	90	-1,554
25	13.4	108	109	296	-297
26	44.4	169	52	73	44
27	330.8	86	4	4	78
28	-55.7	-592	145	-406	-330
29	-34.7	-263	103	31	-397

논산시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35.9	-844	-244	13	-612
2	-	0	0	0	-
3	-45.6	-408	-93	-92	-223
4	-95.0	-395	-43	-59	-292
5	-	134	0	0	-
6	-41.1	-44	-11	-25	-8
7	367.6	500	-14	-13	527
8	823.4	387	-5	4	388
9	-	0	0	0	-
10	195.9	474	-25	-9	508
11	21.6	88	-42	63	67
12	33.6	225	-69	-147	441
13	15.1	8	-6	12	1
14	44.7	192	-45	3	234
15	96.3	180	-19	-5	204
16	-	0	0	0	-
17	653.6	549	-9	6	552
18	-	3,259	0	0	-
19	-	223	0	0	-
20	-	384	0	0	-
21	-	0	0	0	-
22	79.7	149	-19	-12	180
23	-	46	0	0	-

금산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219.7	145	9	-8	144
2	56.8	2,412	577	-1,035	2,869
3	106.7	48	6	0	41
4	-100.0	-10	1	1	-12
5	141.6	705	68	-241	878
6	98.0	248	34	-145	359
7	337.4	722	29	-38	731
8	89.7	2,688	407	-133	2,414
9	179.7	2,715	206	96,953	-94,443
10	258.4	956	50	1,460	-554
11	-	0	0	0	0
12	-	0	0	0	0
13	180.6	130	10	-10	130
14	64.3	166	35	41	89
15	61.1	328	73	-131	386
16	212.0	388	25	-79	443
17	-	0	0	0	0
18	305.5	278	12	4	261
19	132.7	73	7	-15	81
20	-	0	0	0	0
21	-	0	0	0	0
22	333.6	357	15	-2	345
23	42.2	638	206	-363	796
24	161.9	1,939	163	34	1,742
25	493.6	1,239	34	93	1,112
26	196.8	366	25	36	305
27	646.7	97	2	2	93
28	56.6	244	59	-165	350
29	192.4	531	38	11	482

금산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167.2	1266	-79	4	1,341
2	-	0	0	0	-
3	123.2	615	-52	-51	718
4	126.4	91	-7	-10	109
5	-100.0	-103	-11	-25	-67
6	-27.8	-32	-12	-27	7
7	-52.1	-88	-18	-16	-55
8	67.6	23	-4	3	24
9	9,650.0	386	0	1	386
10	141.8	268	-20	-7	294
11	33.4	99	-31	46	84
12	63.7	239	-39	-82	360
13	-52.1	-50	-10	22	-62
14	33.7	113	-35	2	146
15	-30.4	-85	-29	-7	-49
16	-	0	0	0	-
17	500.0	260	-5	4	262
18	-	84	0	0	-
19	-78.2	-212	-28	36	-220
20	-70.8	-271	-40	-25	-206
21	-	80	0	0	-
22	112.4	163	-15	-9	187
23	-100.0	-29	-3	23	-49

연기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65.0	-65	14	-13	-66
2	-44.5	-4602	1406	-2,519	-3,489
3	-	-	-	-	-
4	-100.0	-2	0	0	-2
5	-34.6	-304	119	-424	1
6	-55.2	-218	54	-226	-45
7	-15.9	-68	58	-77	-49
8	32.4	726	305	-100	521
9	-21.6	-439	276	130,318	-131,034
10	-45.3	-346	104	3,010	-3,460
11	-	-	-	-	-
12	-	-	-	-	-
13	-68.1	-96	19	-20	-95
14	39.3	72	25	29	18
15	-31.1	-182	80	-143	-119
16	-45.5	-184	55	-176	-63
17	-	0	0	0	0
18	91.1	51	8	3	41
19	-65.8	-106	22	-44	-84
20	-	-	-	-	-
21	-	-	-	-	-
22	-28.8	-136	64	-10	-191
23	11.0	115	143	-252	225
24	-20.4	-298	199	41	-538
25	76.7	244	43	117	83
26	-25.2	-98	53	75	-226
27	268.6	94	5	5	84
28	-51.1	-621	165	-465	-322
29	-28.1	-106	51	15	-173

연기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8.0	-111	-145	7	26
2	-	-	-	-	-
3	-30.4	-172	-59	-58	-55
4	-22.9	-8	-4	-5	1
5	-88.6	-631	-74	-174	-383
6	-42.3	-47	-12	-26	-9
7	-79.9	-621	-81	-73	-468
8	-97.1	-778	-83	61	-756
9	-	-	-	-	-
10	-25.1	-92	-38	-13	-41
11	135.3	854	-66	98	821
12	-84.7	-1,050	-129	-272	-649
13	-73.6	-53	-7	17	-62
14	-49.2	-206	-44	3	-165
15	-27.1	-148	-57	-14	-77
16	-100.0	-4	0	2	-5
17	-41.4	-259	-65	43	-237
18	-100.0	-1,569	-163	430	-1,836
19	279.2	148	-6	7	146
20	432.2	255	-6	-4	265
21	-	-	-	-	-
22	-27.9	-69	-26	-16	-28
23	3.2	1	-3	25	-21

부여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44.2	160	49	-46	157
2	-34.0	-1,592	636	-1,140	-1,088
3	-	-	-	-	-
4	-100.0	-3	0	0	-4
5	9.8	117	163	-578	532
6	-36.1	-170	64	-270	36
7	0.0	0	59	-78	19
8	14.7	397	367	-120	150
9	16.1	356	301	141,868	-141,813
10	37.7	220	79	2,304	-2,163
11	-52.9	-36	9	-26	-20
12	-	-	-	-	-
13	-12.7	-19	20	-21	-18
14	34.1	57	23	27	7
15	-34.7	-234	92	-164	-162
16	49.4	130	36	-114	208
17	-	-	-	-	-
18	53.6	30	8	3	20
19	20.0	11	7	-15	19
20	-	-	-	-	-
21	-	-	-	-	-
22	36.4	52	19	-3	35
23	2.3	36	215	-379	201
24	-9.2	-162	240	50	-452
25	147.5	469	43	117	308
26	45.3	105	32	45	29
27	-7.4	-2	4	4	-10
28	-46.5	-390	114	-320	-184
29	12.8	49	52	16	-19

부여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21.5	-369	-178	9	-200
2	-	-	-	-	-
3	-24.4	-141	-60	-59	-21
4	-43.4	-46	-11	-15	-20
5	-100.0	-39	-4	-10	-25
6	-25.9	-29	-12	-26	9
7	-	-	-	-	-
8	-92.5	-446	-50	37	-433
9	-	-	-	-	-
10	-47.3	-165	-36	-12	-116
11	18.2	18	-10	15	13
12	-44.6	-358	-83	-176	-99
13	-	0	0	0	-
14	14.0	14	-10	1	24
15	-100.0	-8	-1	0	-7
16	-	-	-	-	-
17	-54.7	-29	-6	4	-27
18	-	-	-	-	-
19	-	25	-	-	-
20	-	-	-	-	-
21	-	-	-	-	-
22	12.8	5	-4	-3	12
23	-	26	-	-	-

서천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60.0	39	9	-8	38
2	4.6	145	425	-762	482
3	-100.0	-415	56	4	-476
4	-	0	0	0	0
5	-12.8	-147	156	-554	251
6	-47.7	-195	56	-234	-16
7	15.6	46	40	-53	59
8	15.0	360	325	-107	141
9	18.0	324	245	115,368	-115,289
10	-13.7	-96	95	2,761	-2953
11	-	0	0	0	0
12	-	0	0	0	0
13	12.2	57	64	-65	59
14	-5.0	-11	30	35	-76
15	-18.5	-96	71	-126	-40
16	-32.8	-95	39	-126	-8
17	-	0	0	0	0
18	7.9	3	5	2	-4
19	-52.0	-53	14	-28	-39
20	-	0	0	0	0
21	-	0	0	0	0
22	76.9	279	49	-7	237
23	-16.3	-281	234	-414	-101
24	-23.5	-357	207	43	-607
25	59.3	262	60	163	39
26	21.5	37	23	33	-20
27	-	0	0	0	0
28	-4.7	-16	46	-129	67
29	7.4	25	46	14	-35

서천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37.7	325	-90	5	410
2	-	0	0	0	-
3	16.4	35	-22	-22	79
4	-60.4	-81	-14	-19	-48
5	-	0	0	0	-
6	-51.5	-68	-14	-31	-23
7	-	551	0	0	-
8	2.5	1	-4	3	2
9	-	0	0	0	-
10	-14.6	-45	-32	-11	-2
11	70.3	26	-4	6	24
12	-73.1	-361	-51	-108	-201
13	-43.9	-195	-46	102	-251
14	7.9	12	-16	1	27
15	-42.6	-26	-6	-2	-18
16	-	0	0	0	-
17	-91.5	-65	-7	5	-62
18	-	0	0	0	-
19	-	0	0	0	-
20	-	107	0	0	-
21	-53.3	-40	-8	14	-46
22	75.0	15	-2	-1	18
23	-	0	0	0	-

청양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128.8	103	11	-10	102
2	-0.7	-14	254	-455	187
3	-	0	0	0	0
4	-100.0	-5	1	0	-6
5	22.5	95	58	-204	242
6	-51.8	-133	35	-147	-21
7	-6.3	-12	26	-34	-4
8	5.5	63	155	-51	-41
9	26.1	240	125	58,903	-58,788
10	-6.0	-12	27	785	-824
11	-	0	0	0	0
12	-	0	0	0	0
13	19.7	15	10	-11	15
14	25.8	39	21	24	-6
15	-22.2	-68	42	-74	-35
16	-9.5	-15	21	-69	32
17	-	0	0	0	0
18	40.0	18	6	2	10
19	-26.9	-7	4	-7	-3
20	-	0	0	0	0
21	-	0	0	0	0
22	73.2	41	8	-1	35
23	-23.3	-232	135	-239	-128
24	0.0	0	102	21	-124
25	298.8	239	11	30	199
26	85.5	59	9	13	36
27	-	0	0	0	0
28	-50.7	-229	61	-173	-118
29	28.6	44	21	6	17

청양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45.5	228	-52	3	277
2	-	0	0	0	-
3	-31.3	-5	-2	-2	-2
4	-42.3	-11	-3	-4	-5
5	-	0	0	0	-
6	20.0	4	-2	-5	11
7	-	54	0	0	-
8	38.9	7	-2	1	7
9	-	0	0	0	-
10	-23.8	-152	-66	-23	-63
11	72.8	59	-8	13	55
12	-48.7	-188	-40	-85	-63
13	-	0	0	0	-
14	38.9	21	-6	0	26
15	-	34	0	0	-
16	-	0	0	0	-
17	-100.0	-56	-6	4	-54
18	-	0	0	0	-
19	-	0	0	0	-
20	-	0	0	0	-
21	-	0	0	0	-
22	-37.5	-9	-2	-2	-5
23	-	0	0	0	-

홍성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8.8	11	17	-16	10
2	-20.4	-640	426	-763	-303
3	-	0	0	0	0
4	-100.0	-1	0	0	-1
5	-3.2	-33	139	-495	322
6	-40.3	-284	96	-404	24
7	-6.2	-73	160	-211	-22
8	25.4	916	491	-161	586
9	36.7	863	320	150,915	-150,372
10	21.9	188	117	3,393	-3,322
11	-	0	0	0	0
12	-	0	0	0	0
13	-4.3	-8	25	-26	-7
14	-21.7	-99	62	73	-234
15	-26.8	-216	110	-196	-129
16	58.0	273	64	-205	414
17	1,710.0	171	1	5	164
18	164.0	123	10	3	109
19	9.3	9	13	-27	22
20	-	0	0	0	0
21	-	0	0	0	0
22	15.6	46	40	-6	12
23	-24.5	-504	280	-495	-289
24	14.1	276	267	56	-46
25	61.2	357	79	215	63
26	69.6	158	31	44	83
27	-	0	0	0	0
28	-46.1	-347	102	-287	-162
29	21.2	96	62	19	16

홍성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9.0	64	-74	4	134
2	-	0	0	0	-
3	-47.5	-232	-51	-50	-131
4	-43.4	-49	-12	-16	-21
5	-	0	0	0	-
6	-34.6	-27	-8	-18	-1
7	-17.6	-6	-4	-3	1
8	5.0	3	-6	5	5
9	-	0	0	0	-
10	-73.9	-82	-12	-4	-67
11	41.8	71	-18	26	62
12	-24.0	-176	-76	-161	61
13	-	14	0	0	-
14	-38.4	-96	-26	2	-72
15	66.7	54	-8	-2	64
16	-	0	0	0	-
17	-55.3	-63	-12	8	-59
18	-	0	0	0	-
19	-	0	0	0	-
20	-	0	0	0	-
21	-100.0	-7	-1	1	-8
22	-15.9	-13	-9	-5	1
23	-	0	0	0	-

예산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15.5	35	31	-29	33
2	-23.3	-1228	717	-1,286	-660
3	-	0	0	0	0
4	-100.0	-4	1	0	-5
5	-49.8	-948	259	-919	-288
6	-49.2	-332	92	-387	-37
7	6.3	26	56	-74	44
8	12.7	399	427	-140	112
9	26.9	697	352	166,187	-165,842
10	20.5	157	104	3,014	-2,961
11	-	0	0	0	0
12	-	0	0	0	0
13	-38.5	-47	17	-17	-47
14	-1.6	-4	34	40	-78
15	-13.4	-93	94	-169	-18
16	-22.6	-116	70	-223	37
17	-	0	0	0	0
18	18.2	22	16	6	0
19	-16.3	-16	13	-27	-2
20	-	0	0	0	0
21	-	0	0	0	0
22	-30.9	-98	43	-7	-135
23	-3.0	-50	224	-396	122
24	-7.5	-144	262	55	-461
25	41.6	198	65	176	-42
26	41.9	104	34	48	22
27	-4.0	-1	3	4	-8
28	-30.0	-186	84	-237	-33
29	8.4	39	63	19	-43

예산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11.2	-94	-87	4	-11
2	-	0	0	0	-
3	-63.6	-902	-147	-146	-609
4	-74.5	-123	-17	-24	-82
5	-	0	0	0	-
6	-62.7	-84	-14	-32	-39
7	-19.2	-30	-16	-15	1
8	-15.7	-8	-5	4	-7
9	-	0	0	0	-
10	-15.1	-38	-26	-9	-3
11	77.7	216	-29	43	202
12	-48.9	-260	-55	-117	-88
13	-	232	0	0	-
14	17.0	76	-46	3	120
15	134.3	90	-7	-2	99
16	-	0	0	0	-
17	-81.6	-649	-83	55	-621
18	33.3	12	-4	10	6
19	-	0	0	0	-
20	-	297	0	0	-
21	-	0	0	0	-
22	49.5	47	-10	-6	63
23	-	0	0	0	-

태안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18.4	-38	28	-26	-40
2	-23.7	-315	180	-323	-172
3	-100.0	-165	22	2	-189
4	-100.0	-2	0	0	-2
5	-48.0	-1,092	310	-1,099	-302
6	-39.5	-126	43	-183	13
7	2.6	8	41	-55	21
8	11.4	248	296	-97	49
9	14.4	355	336	158,294	-158,275
10	8.2	32	53	1,546	-1,568
11	-100.0	-28	4	-11	-21
12	-	0	0	0	0
13	37.3	25	9	-9	25
14	0.6	1	24	28	-51
15	9.2	32	47	-84	69
16	18.0	34	26	-82	90
17	-	0	0	0	0
18	120.0	42	5	2	36
19	-12.3	-9	10	-20	1
20	-	0	0	0	0
21	-	0	0	0	0
22	170.9	253	20	-3	236
23	-18.2	-204	153	-270	-87
24	-10.2	-110	147	31	-288
25	97.6	164	23	62	79
26	8.8	24	37	53	-66
27	-	0	0	0	0
28	-43.0	-247	78	-219	-106
29	8.3	22	36	11	-25

태안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5.6	-21	-39	2	16
2	-	0	0	0	-
3	11.1	3	-3	-3	9
4	-25.5	-12	-5	-7	0
5	-	0	0	0	-
6	-81.8	-36	-5	-10	-21
7	-	0	0	0	-
8	-34.6	-9	-3	2	-8
9	-	0	0	0	-
10	-	0	0	0	-
11	-	0	0	0	-
12	-35.9	-46	-13	-28	-5
13	-	0	0	0	-
14	-63.6	-28	-5	0	-24
15	-100.0	-7	-1	0	-6
16	-	0	0	0	-
17	-50.0	-14	-3	2	-13
18	-	0	0	0	-
19	-	0	0	0	-
20	-	0	0	0	-
21	-100.0	-43	-4	8	-46
22	-7.5	-3	-4	-3	4
23	-	0	0	0	-

당진군 전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75.2	164	30	-28	162
2	-9.3	-698	1,016	-1,821	107
3	-5.1	-9	24	2	-35
4	-100.0	-7	1	1	-9
5	31.8	627	268	-953	1,312
6	-41.6	-352	115	-485	18
7	11.8	81	93	-123	111
8	23.5	846	490	-161	516
9	35.2	1,059	409	193,072	-192,422
10	-12.6	-111	120	3,468	-3698
11	-	0	0	0	0
12	-	0	0	0	0
13	-21.9	-34	21	-22	-33
14	-16.3	-59	49	58	-166
15	-0.5	-4	101	-181	76
16	51.2	218	58	-185	345
17	-100.0	-5	1	3	-8
18	158.6	176	15	5	156
19	-50.2	-116	31	-63	-84
20	-	0	0	0	0
21	-	0	0	0	0
22	5.1	24	64	-10	-31
23	-20.5	-361	240	-424	-177
24	10.2	191	254	53	-116
25	78.1	336	58	159	119
26	62.7	160	35	49	76
27	75.0	21	4	4	13
28	-43.2	-369	116	-326	-159
29	22.1	97	60	18	19

당진군 제조업의 변이할당분석

구 분	성장률(%)	총효과	국가성장효과	산업혼합효과	지역성장 전이효과
1	-32.4	-424	-136	7	-295
2	-	0	0	0	-
3	10.3	14	-14	-14	42
4	-42.9	-33	-8	-11	-14
5	-	0	0	0	-
6	-36.7	-40	-11	-26	-3
7	-	0	0	0	-
8	-10.7	-9	-9	6	-7
9	-	0	0	0	-
10	-3.0	-12	-42	-14	44
11	27.8	80	-30	45	65
12	-38.5	-334	-90	-190	-53
13	-30.2	-649	-223	495	-921
14	32.8	162	-51	3	210
15	-51.9	-135	-27	-7	-101
16	-	0	0	0	-
17	146.9	282	-20	13	289
18	-	0	0	0	-
19	-	0	0	0	-
20	43.1	392	-94	-60	547
21	50.0	2	0	1	2
22	25.4	15	-6	-4	25
23	-	0	0	0	-

■ 집 필 자 ■

한 무 호(韓武虎)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학 박사(경제발전 전공)

기본연구과제 2002-02

지방산업인력의 육성 및 공급방안

발 행 자 : 김 대 길(충남발전연구원 원장(직))

발 행 일 : 2002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번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3층

전화 : (042)841-9503

팩스 : (042)841-9452

인 쇄 처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16-8 93320

<비매품>